

예술담론계간지

대문

Dae Mun

2013 겨울





캐리커처 에세이_인생의 사진사, 빙허 현진건	002	
사문진에서 새롭게 쓰여진 대한민국 최초 피아노 이야기	006	기획특집 2013년 대구 예술 세계지 키워드 01 / 틀을 깨다
거리로 나온 연극 - 새로운 연극의 흐름	014	
2013년 대구의 미술, 틀을 깨다 - 살아있는 예술을 만나다	022	
평화를 비는 씻김굿 : 극단 예전 <마르지 않는 것>	030	02 / 평점을 깨다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돌아보며	038	
나는 닭이 우는 마을에 산다 -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위하여	046	
시에 음악의 날개 달기 -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	058	03 / 벽을 깨다
시의 대중화, 서정시 콘서트	068	
음악을 보고 미술을 듣다 - 멀티미디어 아트와 다원예술	076	
대구건축, 벽 깨기와 신도시건축미학을 위하여	086	
2013 대구지역 문화예술계 10대 뉴스	096	2013 대구 예술 결산
연극_영원한 연극인 김홍근, 우리의 위대한 멘토	103	대구예술의 힘
우리들만의 조우 - 심윤, 강민영, 한승훈, 차현욱	114	사람들
대구, 지금 여기_대구시민화관 재개관을 축하하며	124	문화이슈
시_시가 있는 풍경 - 노태맹	134	문화공간
칼럼_손태룡의 음악상자 - 대구 서양음악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36	
신간_대구 예술인의 신간 2권	144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_	146	재단소식
한국뮤지컬이라는 거목을 키우는 작은 씨앗, SEED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_	150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메세나_대구문화재단 메세나 운동	156	

인생의 사진사, 빙허
현진건
1900 ~ 1943

캐리커처 에세이
대구 예술인을 찾아서
글_엄창석
소설가
캐리커처_권기철
화가



그를 생각하면 '빙허'가 떠오른다. 어감상 왠지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자일 듯한 빙허의 남편은 누군가? 훗날 시절이 달으면 세상을 포효할 남편인가? 아니다. 빙허의 남편은 자기 글이 세상에 알려지길 고대하며 차가운 방에서 낡은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메우는 무명의 소설가이다.

소설가는 가난하다는 아주 오래된 귀동냥은 아마 현진건의 단편소설 「빙허」에서 비롯된 것 같다. 먹을 양식이 없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내다파는 가련한 여인네. 「빈

처」는 소설을 쓰는 남편에게 자금심을 잃지 않는 궁핍한 아내의 서사시다.

구한말 대구에서 태어나 15살에 결혼한 현진건은 고심 참담한 끝에 당시 최고의 종합교양지인 〈개벽〉을 통해서 「빙허」를 발표하여 일약 문단의 중심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듬해에 3대 문학동인지 중 하나인 〈백조〉에 참가하면서, 그 후 창대하게 펼쳐질 한국현대문학사의 회원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문학과 삶을 일치시켰던 몇 안 되는 작가이다. 김동인은 그를 '인생의 사진사'라고 표현했다.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문장 기법과 삶을 닮아내는 방식을 두고 했던 말이다.

그와 교류한 문인들은 그의 생김새를 이렇게 전한다. "꼭 씨암탉처럼 살이 포동포동 찌고 역시 키가 작달막하게 걸음걸이조차 씨암탉처럼 아기죽이기죽하였다. 살결도 희고 맑으며…… 예쁘장한 미남이었다. 눈매는 여자처럼 매력 있고 사람 반할 만하다"방인근, 「빙허 회고기」

그러나 걸출한 단편을 썼던 이십대를 지나 서른이 될 즈음에 현진건은 이른바 주호酒豪의 반열에 뛰어든다. 나중에 그와 사돈을 맺은 소설가 박종화의 말에 따르면 곱빼기로 막걸리 60사발을 거뜬히 마시곤 했다는 것이다. 이견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단아한 귀공자 풍의 미남자가 서울의 겨울 거리를 배회하며 폭음을 일삼는 모습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다. 당대의 삶을 여실히 녹인 소설을 쓰다가 현실의 장벽에 막혀 폭주로 마음을 다스렸다. 현진건을 둘러싼 폭주담이 왜 그리 많은지. 서울 종로와 동대문을 오가며 술로써 비탄한 세월을 다스려야 했던 얼굴이 하얀 미남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의 호인 빙허憑虛조차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의 한 구절인 빙허어풍憑虛御風.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다에서 나온 것이다.

소설가 현진건



모름지기 허무를 느끼지 않는다면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진실했기에 그의 허무는 도저한 깊이가 스며 있다. '빈처'가 한 가정의 공기를 울리는 말이라면 '빙허'는 세상의 대기와 공명共鳴하는 슬픈 떨림이 담겨 있지 않은가. DaeMun



기획특집

2013 대구 예술 세가지 키워드



01 / 틀을 깨다

새 창을 열다

음악_사문진에서 새롭게 쓰여진 대한민국 최초 피아노 이야기

연극_새로운 연극의 흐름

미술_2013년 대구의 미술, 틀을 깨다 - 살아있는 예술을 만나다

사문진에서 새롭게 쓰여진 대한민국 최초 피아노 이야기

임동창

피아니스트

풍류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클래식과 국악, 재즈를 자유롭게 중형무진하는 천재음악가이며 2012년 99대 피아노 콘서트의 음악감독, 2013년 100대 피아노 콘서트의 총연출 및 음악감독으로 맹활약하여 대규모 피아노 콘서트가 대구 달성군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주역, 임동창 선생을 만나보았다.

이번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서 연출방향은 어떠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연출을 기획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최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100대 피아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대중을, 특히 달성 사람들을 기쁘게 할 다른 구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주인공인 100대 피아노를 가려서는 안되었죠. 다른 구성들이 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야 하며 공연 내내 호흡이 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공자에서부터 바이엘을 치는 초보자까지 천차만별의 실력을 가진 10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단 몇 번의 연습을 통해 음악적으로 조화롭게 들리도록 해야 했고, 일반적인 공연 연출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까다로운 조건이죠.

하지만 저는 내내 매우 즐거웠습니다. 피아노가 사문진을 통해 들어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악기로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와 이제 우리



가 피아노와 함께 나아가야 할 음악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99대 피아노 때는 클래식/교회음악/가요/재즈/국악 등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들어와서 활용된 모든 장르들로 구성해 보았고 100대 때는 클래식/국악/가요로 압축해서 보다 밀도 있게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피아노를 ‘한국인의 악기’ ‘한국음악의 악기’로 활용할 수 있을 비전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음악국악이 주가 되어 다른 장르의 음악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구성을 짤다거나, 국악에 어울리는 음색으로 피아노를 개량한 ‘임동창 피아노’를 선보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지휘죠. 저도 폼나게 지휘하고 싶었어요. 하하. 하지만 일반적인 지휘법으로 100명의 연주자들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하려고 손을 들어도 연주자들은 몰라요. 그랜드 피아노라도 어려웠겠지만 업라이트 피아노는 연주하면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리허설 당시 연주자의 옆모습이 보이게 배치를 하고 제가 단 위에 올라가도 멀리 있는 연주자에게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연주자들은 악보보기도 정신이 없는데... 지휘 받고 연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고, 100대가 길게 배치되어 있으면 소리에 시간차가 생겨서 연주자에게 다른 피아노 소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요. 이런 상황에서 100명의 연주자들의 연주가 시간 차 없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박수를 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높이 올려 마이크 앞에서 박수를 쳤죠.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연주자들은 박수소리를 듣고 박을 맞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안했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공연을 보셨던 어떤 관객은 제가 흥에 겨워 박수를 친 줄 아시더라구요. 또 정말 눈썰미 있는 분들은 100대의 웅장한 스케일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위에서 마음껏 잘난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즉, 지휘자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고 연주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주자들과 하나가 된 멋진 지휘였다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또 놀라웠구요.



99대 피아노 콘서트에 이어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참가계기가 궁금합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출을 요청하였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가지고 클래식 애호가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만족시키면서 100대 피아노의 상징성을 살려야하는 컨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임동창 뿐이다, 라면서 의뢰를 하셨거든요. 100대의 연주를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연주곡 모두를 새로 작곡 하거나 효과적으로 편곡해야하고, 100대가 돋보이게 다른 구성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했지만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죠-내내 즐겁게 했습니다.

다른 공연들과 비교해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갖는 장점 혹은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는 악기인 피아노가 콘서트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특별하고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피아노가 일반 대중과 하나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달성문화재단이 발굴해낸 국내 첫 피아노

“무엇보다도, 달성문화재단이 발굴해낸 국내 첫 피아노 유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이 콘서트의 진수입니다. 첫 피아노 유입지로서의 문화적 위상을 세우는 문화적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이 콘서트의 진수입니다. 첫 피아노 유입지로서의 문화적 위상을 세우는 문화적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달성군이 피아노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임동창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의 피아니스트를 선정하셨습니다. 심사의 기준과 3회에 걸친 사전 연습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응시자들은 클래식 연주자들이었죠. 그러나 저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솔로를 하게하고 싶었습니다. 정통 클래식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개성을 발휘하게 하고 싶었어요.

연습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 연주자끼리 친해지기 둘째, 즐겁게 흥을 내서 연주하는 것 셋째,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쉽게 바꾸어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작/편곡하는 저의 몫이었구요.

내년 101대 피아노 콘서트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연출방향이 있는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연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101대 때에도 의뢰하신다면 기꺼이 하겠구요.

국악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내도록 제가 직접 개발한 <피앗고>란 악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보다 입체적이고 강렬한 사운드를 내죠. 정악용인 <피앗고1>, 민속악용인 <피앗고2> 이 두대를 가지고 댄스뮤직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풍성한 우리음악의 여러 보컬들, 여러 악기들과 101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아주 놀라운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고싶은 방향이 있다면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 입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이라면 유럽인, 재즈라면 흑인, 등등 각 장르의 본토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음악장르의 최선을 보여주고 우리의 음악과도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 전에 국제 피아노 콩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뿐 아니라 모든 장르로 해서, 그리고 특히 피아노 창작곡의 국제 콩쿨을 하는



“ ‘달성 아리랑’은
달성군민들을 하나로
묶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

거예요. 여기서 뽑힌 작품들을 피아노 콘서트 무대에 올리고 신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 달성의 피아노 축제가 세계적인 피아노 히트곡을 만드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대의 스타 피아니스트들도 발굴하게 될 것이구요.

강원 정선, 경남 밀양, 전남 진도 하면 아리랑이 떠오릅니다. 달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달성아리랑을 작사·작곡 하셨는데요, 100대 피아노 콘서트 이후에도 꾸준히 ‘달성 아리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성아리랑을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우리민족의 DNA 와 같은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아리랑들이 많았지요. 정말 귀한 문화 유산인거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소실되고 몇몇 지역에만 남아있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 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생기는 지역마다 아리랑을 만들어왔습니다. 진주, 신불산, 논산, 홍성, 상주어린이를 위한 아리랑, 남원, 완주... 지금까지 20여 곡 정도 됩니다. 그런 제가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하는데 어떻게 안 만들 수 있겠어요?



이 하나의 작은 노래가 달성군민들을 하나로 묶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공부를 해서 작사를 하고, 곡조는 전통 동부민요(강원도, 경상도 등 우리나라 동부지역의 민요를 일컬음)의 대표적인 음악적 특징인 메나리 토리메나리 음계를 사용하여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 민요의 특징 중 하나인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서로 한마음이 되어 부를 수 있게 했구요.

99대,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참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산이죠. 사실, 풍부한 상상력을 실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어요. 빠듯한 예산으로 좋은 공연을 준비하느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대규모 피아노 공연은 경제적으로 충분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아이টে이며 연출하는 저로서는 자신도 있습니다.

“둘째는, 천차만별의 실력을 지닌 피아니스트와 하나의 음악을 조화롭게 이루어낸다는 것. 공연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써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둘째는, 천차만별의 실력을 지닌 피아니스트와 하나의 음악을 조화롭게 이루어낸다는 것. 공연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써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실력이 고르더라도 맞춰내기가 어렵고, 똑같은 선율을 100명이 똑같이 친다는 것이 음악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죠.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온 100명의 스케줄을 조율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연습을 2-3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도 100명이 동시에 연습한 것은 리허설 때 뿐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관객 분들은 100대 피아노 연주자분들이 참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티가 안나게(?) 보인 가장 큰 공은 지휘와 작/편곡에 있었군요. 공연에서 연주된 전곡을 편곡하셨는데,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100대 피아노는 희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소위 프로들의 ‘잘난 척’이 아닌, 피아노 칠 줄 아는 아마추어에게도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길 원했죠. 그래서 어린이나

“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 솔로, 듀오, 앙상블, 튜티전체 합주 이런 형식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돋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비슷한 나이의 관객은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을 수 있게.”

청소년 참여가 많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 솔로, 듀오, 앙상블, 튜티전체 합주 이런 형식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돋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비슷한 나이의 관객은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을 수 있게. 이를 염두에 두고 100대 연주자들의 연주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온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관객이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내용의 공연이 펼쳐지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DaeMun

편곡 작업을 재미있게 했는데요, 클래식과 가요를 조화롭게 편곡한 것소팽의 즉흥환상곡과 이별의 부산정거장, '대지의 항구'와 모차르트 터키행진곡 등, 국악과 클래식을 조화롭게 편곡한 것도 재미있었고대금산조 인간문화재 이생강 선생과 협연한 즉흥시나위, 대니보이 외, 전통가요를 피아노 한 대만으로 반주한 것주현미 씨와 '밤비내리는 영동교' '비내리는 고모령' 외, 달성아리랑을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그리고 굿거리와 휘모리 두 개의 버전으로 만든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칠채 휘모리와 흥아라밴드와의 가요 연주도 피아노의 생동감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기회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거리로 나온 연극 - 새로운 연극의 흐름

최재우

연극연출가

최근 우리나라 연극에서 실외공연이 많아지고 있다. 연극이 실내극장에서만 공연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 어떤 곳에서도 쉽게 연극을 볼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 오히려 실내 연극보다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외 연극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골목이나 시장,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던지 연극이 공연되고 또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의 실외 공연은 대구문화재단이 기획한 3편의 “옛 골목은 살아있다” 시리즈 연극이 있다. 제1탄은 대구가 배출한 대표적 시인인 이상화의 생가와 독립운동가 서상돈의 생가를 중심으로 3.1운동 및 국채보상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현장연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시대적 상황을 담은 이 공연은 실내 극장보다 상화고택과 서상돈 고택이 있는 실외 공간에서 펼쳐짐으로써 훨씬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5년째 매주 토요일 오전에 공연되어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 연극이 평일이나 주말 저녁 시간대에 많이 공연되는 사정을 생각했을 때 주말 오전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공연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옛골목 시리즈는 제1탄의 성공에 힘입어 제2탄이 만들어졌다. 대구에는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이 탄생한 청라언덕이 있는데, 대구사



람들조차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곳을 배경으로 박태준, 현제명 등 대구 음악인들의 주옥같은 가곡과 동요 20여 곡이 등장하는 음악극 “청라언덕에서”가 바로 그 장소 청라언덕에서 공연되었다. 젊은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동무생각”의 사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야기가 주된 즐거리이다.

“동무생각”을 작곡한 음악가 박태준과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만든 음악극 “청라언덕에서”가 대구시 중구 동산동 청라언덕의 “동무생각 노래비” 앞에서 펼쳐짐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한 연극이었다. 때마침 공연 기간 중 둥근 달이 동산 무대 위 밤하늘에 밝게 떠올라 연극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 주었다. 이것 또한 실내극장 공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으로 많은 관객들이 깊은 감상에 젖어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3탄으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 온 예술인들의 애환을 그린 새로운 형태의 마당극 “향촌동 소야곡”이 공연되었다. 소위 “뽕짜 뮤지컬”로 불릴 만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 가요를 극 속에 삽

입하여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접근해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별과 사랑의 환을 그려낸 유쾌하면서도 정겨운 마당극 “향촌동 소야곡”이 향촌동과 가까운 곳에서 공연됨으로써 옛 향촌동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향촌동이라는 공간적 환경 속으로 피난 온 예술인들이 소재가 된 이 연극은 향촌동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한국전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현재의 시점에서 되살아 나옴으로써 지나가는 행인들이 관객이 되어 옛 향수에 젖게 만드는 연극이었다.

이 3편의 “옛골목은 살아있다” 시리즈 연극은 “대구의 옛 골목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숨겨진 이야기를 재발견해 현장 연극을 선보임으로써 옛 골목의 가치를 환기하고 이상화·서상돈 고택을 비롯하여 청라언덕, 향촌동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장소의 재발견”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대구문화재단이 야심차게 기획한 사업이기도 하다. 옛골목을 고급스러운 문화콘텐츠로 되살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효과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극이 만들어진 셈이라서 대구 근대로近代路의 상징적 내용이 되었다.

“중국의 인상시리즈 성공은... 중국의 거대 자연을 배경으로 실사 연극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중국을 찾아오게 만들었으므로 연극사에 또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실외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실경뮤지컬이 유행처럼 여러 도시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동에서는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산수실경뮤지컬 “왕의 나라”, 하회마을의 부용대에서 공연되는 실경수상뮤지컬 “부용지애”, 안동의 노송정 고택에서 고택실경뮤지컬 “퇴계연가” 등이 공연되었으며, 고령에서는 대가야 테마파크의 인공연못을 무대로 한 “대가야의 혼 가얏고”, 영주에서는 무섬에서 실경뮤지컬 “무섬아리랑”이 잇달아 공연되었다.

이 공연들 또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비슷한 목적에서 시도된 기획들이었다. 경북지역 각각의 역사와 전설을 소재로한 연극의 제작이 실경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연들은 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연극 역량을 활용하여 제작되고 있어서 경북지역의 연극 역량을 발전시키는데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경북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도 영암, 경기도 수원,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실경뮤지컬이 유행하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배우인들에게도 공연은 중요하다



몇 년 사이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중국의 거대한 대자연과 명승지를 무대화하여 연출한 “인상 서호”, “인상유상저”, “인상리장”이라는 3편의 인상 시리즈 대형 뮤지컬을 성공시킨 이후 계속해서 “인상대홍포”, “인상해남도” 등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의 인상시리즈 성공은 쉽게 옮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세계무대를 누비던 장이머우가 이제는 옮길 수 없는 중국의 거대 자연을 배경으로 실사 연극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중국을 찾아오게 만듦으로써 연극사에 또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조명이나 음향을 비롯한 무대 시스템도 규모나 스케일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흉내내어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이다. 심지어 어떤 작품은 공연 시간을 아침으로 하여 청명한 중국의 아침풍광을 연극에 담아냄으로써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려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하룻밤 숙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철저한 상품화에도 성공하였다.

또 거대한 대자연이 배경이다 보니 출연하는 배우들도 수십 명이 아닌 수백 명의 배우가 필요한데, 이들 배우들은 지역 주민들을 훈련시켜 출연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하여 그야말로 문화산업을 일으킨 셈이니, 중국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 연극에서 실경을 배경으로 실외공연이 많아진 것은 문화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서울과 서울 주변이 경기도에서는 거리극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안산거리극축제를 비롯하여 고양호수예술축제, 과천한마당축제 등 거리극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춘천마임축제도 거리극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극이 공연의 주를 이루고 있다.

거리극street theatre은 그야말로 거리에서 혹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인데,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재의 세계적인 거리극 추세는 실내극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모두 거리극이라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실내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조차 거리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 연극이 아닌 음악연주나 설치미술, 영상, 서커스, 마술, 구연, 인형극 같은 것도 거리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칫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거리극은 단순히 공연장소가 거리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 아닌 모든 곳을 그 무대로 삼는 연극을 의미한다.”

세계연극을 주도해온 서양연극은 불과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 프로시니엄 무대가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실내극장의 무대를 지향해 왔다. 서양연극이 실내극장에서 추구했던 미학은 이전의 고대 제례 의식이나 거리퍼레이드, 혹은 거리의 마임, 그리고 중세의 교회가 연극을 불허하던 시대를 지나 수레무대와 같은 이동식 가설무대의 연극 등과 같은 근세 이전의 연극이 추구하던 미학과는 다른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르네상스에 와서야 비로소 프로시니엄 실내극장이 만들어지고 미술에서 원근법 혹은 소실점의 발견이 연극의 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극미학은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소위 도시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 유럽에 걸쳐 실내극장이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이전의 공동체적 연극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한 유럽 중심의 서양 연극이 본격적으로 실내극장을 벗어나서 소위 거리극이라는 것을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거리극이라 지칭할 만한 공연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거리극이라는 특정한 흐름이 나타난 것은 오래되지 않아서 살롱과 오리악으로 대표되는 유럽 최고의 거리극 축제들의 역사는 아직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최근의 연

극 현장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관객 동원의 측면에서는 실내 연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리극(street theatre)은 단순히 거리에서만 공연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이나 교회, 강당, 주차장, 시장, 체육관 등 실내 극장이 아닌 곳은 어떠한 곳이라도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리극은 단순히 공연장소가 거리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 아닌 모든 곳을 그 무대로 삼는 연극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리극이 추구하는 미학은 이전의 극장 연극이 추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필자는 몇 해 전 유럽의 거리극 축제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유럽의 여러 거리극 축제에서 만났던 거리극 공연 배우들에게 “당신은 왜 거리에서 공연하는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당시 거리극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맞춘 듯 자신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관객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는 실내극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관람하던 관객과 연극의 관계를 전도한 것으로 유럽의 거리극

“거리극의 부흥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라는
정치적 함의와
깊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

관계자들은 “거리극은 그 자체로 기계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비판적 저항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즉, “그들에게 거리란 사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자 근대화, 도시화에 의해 소외된 길”의 개념으로 실내극장이 각 개인의 독립된 사적 공간의 영역을 의미한다면 거리는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의 공공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유럽의 거리가 의미하거나 존재하는 가치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마당이 있어서 유럽에 거리극이 있다면 한국에는 마당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나타나는 시기나 배경도 흡사하여 유럽의 거리극이 소위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이 배경이 되었다면, 한국의 마당극 또한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

“거리극의 부흥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라는 정치적 함의와 깊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당극 또한 연극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연극미학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으며 연극 외적으

이제부터 거리극



로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즉 형식적인 면에서는 탈춤이나 판소리, 혹은 꼭두각시 놀음 등 전통 연희에 기반을 두고 주제의식에 있어서는 당대의 첨예한 사회문제를 민중적이며 진보적 관점에서 형상화하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극에서 소위 리얼리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보여주는 연극양식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국의 마당극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거리극 또한 사회적 참여 의식이 매우 강하게 표출된 연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축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하나의 아이템화 된 양상을 보인다. 초기의 유럽 각국의 거리극 축제 속에서의 저항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로서의 거리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유럽의 거리극들이 그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유럽의 거리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의 거리극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연극이 실내 극장을 벗어나서 실외 무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흐름은 비록 그것이 연극 내적 고민이나 실험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연극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극이 지역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aeMun

2013년 대구의 미술, 틀을 깨다

- 살아있는 예술을 만나다

박민영

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연구사

예술가의, 예술가에 의한

2013년의 대구의 미술은 중요한 싹을 틔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미술계는 공공기관이나 주요 기관으로부터 형성된 기금을 주 자원으로 하여 외형상으로 대형의 기획 행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많은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언뜻보면 매우 풍부한 예술 마당이 형성된 듯 보이지만, 예술가의 의지와 자생력이라는 면에서는 예술가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 미술관이나 전시관, 상업적인 화랑 등이 예술가의 전통적인 활동 통로로 이용되어온 가운데, 대구에서는 몇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제3의 공간, 방천시장이나 범어아트스트리트에서는 새로운 미술계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인 공간이 틀에 짜여진 기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데 반해 이러한 공간은 운영자의 의지보다는 작가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작가의 의지대로 시도해 보는 가능성의 마당으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곳에서 일어난 전시들 가운데 몇가지 모델들이 있었다.

방천시장은 몇 년전 중구의 시장재생과 예술가의 작업장 제공 등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방천시장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진 공간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 주도한 사업이 결국 자생성을 가지느냐는 측면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또다른 문화 콘텐츠 예를 들면 김광석 거리 조성과는 같은 사업으로 방계를 쳐나가는 모습이

“방천시장은 몇 년전 중구의 시장재생과 예술가의 작업장 제공 등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방천시장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진 공간이다… 지금 이 공간은 예술가들, 시장 상인들 모두에게 점점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느낌이다.”



다. 프로젝트 이후에도 이 공간의 자생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고, 입주한 작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이끌고 나갈 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인위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이 지나고 난 후 지금 이 공간은 예술가들, 시장 상인들 모두에게 점점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느낌이다.

인위적인 맞추기가 아닌 그들 나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기존의 공간에서 수용할 수 없었거나 알아보지 못한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욕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스페이스 바, 토마갤러리, 스페이스 방천 등의 장소에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먼저라 할 수는 없지만 골목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카페가 생기고, 사람들의 왕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이 장소의 활력에 한 몫을 한다.

올해 열린 방천시장의 사건들 가운데는 단연 썬데이페이퍼 그룹의 활동이 눈에 띈다. 2010년 <썬데이페이퍼>라는 전시로 시작한 썬데이페이퍼 그룹은 2010년 전시 이후, 한해를 일주일의 매 요일로 정하고 일요일에서 다음 일요일까지 총 8년에 걸친 장기적인 그룹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시민들의 보행통로라는
입지적인 환경을 전제로
그 활용을 고안하여
만든 공간이다...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공간으로써
이 공간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월요일 아침 5시 19분〉, 2012년의 〈화요일〉을 거쳐서 2013년에는 〈사각형, 방천에서〉라는 제목으로 대구 중구 방천시장의 전시장 4곳에서 썸데이페이퍼의 수요일 전시를 열었다. 이들이 특이성은 기획의 개념이나 합의도 없이 자유로움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가지는 틀과 형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허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대적 담론이나 주제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가에 대한 분류 또는 재단(裁斷)을 거부하고, 필요에 따라 취해지는 대상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서 예술가 상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제도나 공간, 형식에 많이 익숙해져 왔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가가 또는 예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 기존의 예술계의 시스템에 자극을 준다.

또한 틀을 거부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새로운 예술가들의 지형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방천시장과 같은 자생적인 장소나 작가들의 의지라면 예술가들의 자율



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이다. 사회도 문화도 새로운 요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기존의 예술계가 관이나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개입이 많았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와 뚜렷한 목소리가 있다.

자연스러운 예술가의 요구가 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고, 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힘의 관계나 구도가 아닌 필요와 의지로 움직이는 예술가의 모습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하지만 말이다.

생활 속의 예술

2013년 미술계에서 두 번째 특기할 모습은 아마 생활 속에 다가온 예술이 아닐까 생각한다.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시민들의 보행통로라는 입지적인 환경을 전제로 그 활용을 고안하여 만든 공간이다.

사실 작품이 걸리기에는 적절치 못한 면도 있다. 지하도 벽면은 전시장의 화이트큐브의 벽면과는 차

이가 있고, 점포는 애초에 상업공간으로 짜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전시장과와의 차이가, 그리고 그러한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예술가를 끌고 들어왔을 때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공간으로써 이 공간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상 미디어, 설치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장르를 접하게 한다든지 기획을 공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획자나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벽면갤러리, 예술가들의 작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스튜디오, 문화예술정보센터, 문화예술교육체험실, 아트마켓,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토요일 예술장터, 콘서트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많은 노력을 보였다. 시민들 역시 점점 더 이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는 듯하고, 매번 달라지는 모습에 이 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점점 더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듯하다.

지난 1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안갤러리 기획 최정화 작가의 프로젝트 <생생활활生活生活>전람회

“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뜻밖의 초대〉는
소통을 대하는 조금 다른
전략과 시도였다...
메인 전시에 대한 메타
전시로 다른 작가들과의
소통을 유도하였고,
관객 참여전에서는
관객의 반응을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의 현장과 예술을 연결시킨 눈에 띄는 행사였다. 이 전시는 전시장 뿐 아니라 주변 주택가와 거리 공간을 이용한 설치작업을 선보여 화랑 주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상업공간은 그 특성상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고 고객의 판단을 기다려야하겠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된 데는 작가적 면모를 보여주기엔 간혀진 화랑공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현장 설치된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통한 소통과 활력을 일깨운다는 작가의 취지가 잘 살아나 주민들도 덩달아 즐거운 작품의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화랑의 목적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면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기는 서로의 이해가 바탕이 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지역 화랑의 폭넓은 이해와 재미있는 전략이 지역사회와 지역작가들에게도 많이 미치고,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고객들의 층이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뜻밖의 초대〉는 소통을 대하는 조금 다른 전략과 시도였다. 이 전



시는 기존의 관객을 향해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시 시스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하나의 작품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관찰해 보는 과정이었다.

메인 전시에 대한 메타 전시로 다른 작가들과의 소통을 유도하였고, 관객 참여전에서는 관객의 반응을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그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크고 작은 관객의 반응이 2,900여 점이었고, 기대보다 훌륭한 관객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관객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했다.

기획의 기준이 점점 관객으로 향하고 있고, 그레야 함을 깨닫게 했다. 왜냐하면 관객과 감상자의 반응과 요구가 새로운 예술을 낳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관객이 필요로 하든, 관객을 이해시키든 간에 궁극적으로 예술은 그들의 움직임으로 살아날 수 있고, 예술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관객들의 무한한 잠재적 욕구가 살아나고, 예술가들의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목소리가 있는 특별한 해였던 것 같다. 내년에는 예술가와 관객

이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넓고 깊게 지역사회에 울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DaeMun





02 / 껌질을 깨다

지역을 벗어나다

연극_평화를 비는 씻김굿 : 극단 예전 <마르지 않는 것>

미술_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돌아보며

대중문화_나는 닭이 우는 마을에 산다 -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위하여

평 화 를 비 는 씻김굿 : 극단 예전 〈마르지 않는 것〉

- 도쿄 앨리스 페스티벌 2013 초청작

김미정

공연평론가

I. 평화를 비는 제의(祭儀)

10월 중순 어느 저녁, 도쿄 신주쿠 하나조노 신사(新宿・花園神社) 근처에 자리한 소극장 타이니 앨리스(Tiny Alice). 공연 20분 전부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프로그램에 실린 드라마투르기를 찾아 읽으며 〈마르지 않는 것〉(후루가와 다이스케 작, 김태석 연출, 극단 예전의 공연을 기다렸다. 아홉 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열띤 무대가 끝나자 공연 내내 흐르던 낮은 흐느낌은 뜨거운 박수로 바뀌었다. 위안부와 독도문제, 쓰나미와 원전폭발 등으로 일상에서 부조리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화 〈마르지 않는 것〉은 '자성과 치유로서의 연극'이 갖는 깊은 울림을 증명한 것이다.

전쟁이란 인종, 이념,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무력 분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극의 당연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의 재현보다 의미의 표현에 비중을 두는 연극은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지스트라타(Lysistrata)〉나 박조열의 〈오장군의 발톱〉에서 보듯, 공연 자육한 전장의 난폭함이 아니라, 그 이면(裏面)을 들여다본다.

〈마르지 않는 것〉도 후방에 남은 세상의 모든 여인들, 즉 어느 소국의 군사기지 내 참전병사가족 거주구의 행정관 기리아우크라이나, 봉재와 빨래 다듬기를 주된 일과로 삼는 모스탈보스니아, 토끼 우화에서 보듯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유치카아메리카, 남편의 전사통지를 전한 가즈니에게 분풀이를 하고 참전을 부추기는 아부르프랑스, 오르간 주자 가즈니상사

“전쟁이란 인종, 이념,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무력 분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극의 당연한 관심사일 것이다.”

미르지영극단 <전쟁의 그림자>



의 아내 가즈나(나이지리아), 신혼의 남편과 헤어진 유에(베트남, 남동생을 전장으로 보낸 테토베트남의 기다림)과 심리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본질을 천착한다.

연극은 유에의 남편 병 중사의 출정 장면에서 시작하여, 종전 임박을 알리는 중대장의 편지로 누린 짧은 기쁨, 곧 이어 전해진 남편의 전사통지에 절망한 유에의 자살, 지아비의 복수를 외치는 여인들의 입대신청 까지 빠르게 전개된다. 그러나 메시지로 향해 가는 걸음은 진중하고 용의주도하다.

작가는 개방된 시공간과 다국적 인물을 설정해 전쟁의 통시성과 편재성을 상기시킨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처 입은 토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토끼를 삶아 먹었다’고 자랑하는 유치카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명분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고발한다. 그리고는 특하면 고장 나는 세탁기를 차지하려고 벌어지는 다툼을 군데군데 배치해 폭력의 진앙(震央)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들추어낸다.

전쟁과 평화의 본질에 대한 후루가와와의 통찰을 김태석은 한국적 제의(祭儀)로 풀어낸다. 집회소에서

김태석의 연극 <영혼의 노래> (사진: 김태석)



36년 역사의 연극 타이니타임스극장 안무계



벌어지는 사건과 대화는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작품의 주요 라이트모티프인¹ 빨래에 세밀화와 의례(儀禮)의 품격을 부여한 것이다. 삼중기도(三鐘新禱)를 바치듯 때 맞춰 세탁하고, 사방 모서리를 맞잡고 대각선으로 세계 잡아당겨 모양을 잡은 후, 잘 접어 손 다듬이질로 솔기와 바닥을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팽팽하게 펴 널고, 바삭 마른 천을 걸어 반듯하게 개키는 여인들의 손길은 제주(濟州)를 높이 받쳐 든 사제(司祭)의 두 손처럼 경건하다.

김태석은 평화 만들기는 우리 내면에 숨은 전쟁의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식(淨化儀式)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일본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잘못 전해진 남편의 전사통지에 절망해 자살한 유예의 장례식에서는 한국적 제의성(祭儀性)이 더욱 강화된다. 촛불을 켜고 유예의 피 묻은 옷을 돗자리에 편 후 돌돌 말아 일곱 매듭을 묶어세우는 ‘영돈말이’를² 연행(演行)한다. 관객들은 비통함과 결연함을 격조 있게 표현한 이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태석 표 <마르지 않는 것>이 제의성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다. ‘영돈말이’는 진도 씻김굿의 한 대목인데, 중심대목인 ‘이슬 털기씻기’의 준비과정이다. 씻김굿은 명칭에서 짐작

1 Leitmotif: 원래는 음악에서 특정인물이나 상황, 그리고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동기를 이르는 말로, 연극에서는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주제, 말, 행위, 이미지를 가리킨다. 라이트모티프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물을 조명해주며, 그의 행동의 궁극적 목표를 보강해준다.

2 영돈은 망자의 시신을 가리킨다.

3 루이스 캐럴(Lewis Caroll)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의 등장인물

4 축지소극장은 1924년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가 세운 연극 전용소극장과 그 부속 극단을 이른다.

“ 김태석은 평화 만들기는 우리 내면에 숨은 전쟁의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식淨化儀式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일본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

하다시피, 이슬로 맺힌 망자의 원한을 씻어내고 편안히 저승으로 보내는 곳이다. 막상 준비만 하고, ‘이슬 털기’는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라이트모티프인 정화淨化의 이미지를 강화하지 못해 유기적 통일성을 놓쳤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 또한 무대를 깊이로 이분二分한 빨랫줄, 그 너머로 병사가 떠나고 그 너머로부터 병사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벽이 쉬이 그리고 느닷없이 무너지는 점을 강조해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지 못한 점, 이기심과 폭력성이 제거된 평화 상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전쟁의 기운에 쉬이 오염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백색白色의 천이 갖는 양면성을 강조해 과연 평화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의 등기물인지 따져 묻지 못한 점도 아쉽다.

II. 원더랜드로 가는 길 : 엘리스 페스티벌

지역 중견 극단 예전의 엘리스 페스티벌Alice Festival 초청 공연은 대구 소극장 연극과 연극적 교류의 관심과 활동반경을 확대시켰다. 예술적 교류와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과 관계 형성이 어떠한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드문 선례가 되었

다. 토끼 뒤를 쫓다 동굴에 빠진 엘리스³처럼 경이로운 체험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명명한 지하소극장 타이니 엘리스에서 열리는 엘리스 페스티벌은 미래 지향적이고도 알찬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올해로 31회에 이른 엘리스 페스티벌의 면면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소극장 운동이 마땅히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더듬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개관하던 198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 31회를 맞은 엘리스 페스티벌이 가장 큰 힘을 쏟는 일은 해외 교류다. 현재 한국, 홍콩,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 최근 들어 러시아, 영미권, 그리고 이라크의 바그다드 까지 세계 각지의 극단을 초청하는 국제 연극축제로 성장했다. 1990년 중국의 근대극과는 다른 새로운 연극이 태동하던 상해에서 상해극극학원上海戲劇學院(大學) 교수와 부산의 연희단 거리패를 초청해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 동시대 연극”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해외 교류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한국연극의 소개는 엘리스 페스티벌의 주요 사업이 되었다.

기실 한·일 간 예술교류는 일찍이 백제왕조 이래로 계속되어왔다. 1931년 극예술연구회가 발족되면서 소극장⁴ 운동이 일어난 데는 축지築地 소극장의

영원한 공연의 기록
〈장극원〉(왼쪽) 〈백미극단〉(가운데) 〈극단연극〉(오른쪽)



“엘리스 페스티벌은 일찍이 군부독재시절 한국연극계의 거장 오태석, 이운택을 일본에 소개하고, 10여년 전 부터는 박근형과 같은 한국연극의 중진들을 비롯, 최근까지 김광보, 박장렬의 무대를 차례로 선보였다.”

영향이 컸다. 1920년 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유학 하던 윤백남, 이기세, 현 철, 김우진 등이 축지 소극장에서 연극을 접했고, 홍해성은 축지 소극장 단원으로 〈밤 주막〉 등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연극실험실’을 자임했던 극단 축지 소극장이 30년대 신축지극단과 신험극단으로 양분되면서, 신축지극단에서는 이원경이 무대미술 연구생으로 활동했다. 소설가 주요섭의 동생 주영섭은 재일 유학생들로 구성된 동경학생예술좌를 이끌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당시 한일양국의 극단이 동일 작품으로 동일 극장에서 공연한 전례前例가 있었다는 점이다. 1937년 동경학생예술좌가 주영섭 연출로 축지 소극장에서 〈춘향전〉을 공연했다. 38년 초에는 일본 극단 신험이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연출로 가부키 스타일을 가미한 〈춘향전〉을 축지 소극장 무대에 올렸다. 일본 배우에 의해 일본어로 이뤄진 신험의 가부끼 식 〈춘향전〉은 38년 말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서도 공연되었다.

40년 무렵 일본 극단에서 활약하던 조선 연극인들이 귀국하고 곧이어 무라야마 도모요시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연극문화협회 촉탁으로 조선에 건너 오면서 30년대 후반, 일본의 축지 소극장을 매개로

5 이 후 제 II 章에 나오는 모든 인용문은 니시무라 히로코 대표가 필자와의 이메일 면담에서 밝힌 내용임을 밝혀둔다.

극장 앨리스 대표이자
극장 운영 스태프 니시무라 히로코



객석을 꽂 채운 일본 관객들



활성화된 일본과 조선의 연극이 40년대 초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진 조선에서 다시 복잡하게 전개됐다. 한국과 일본의 연극적 교류는 상호영향과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앨리스 페스티벌은 일찍이 군부독재시절 한국연극계의 거장 오태석, 이운택을 일본에 소개하고, 10여년 전 부터는 박근형과 같은 한국연극의 중진들을 비롯, 최근까지 김광보, 박장렬의 무대를 차례로 선보였다. 2012년부터는 신진작가들의 희곡을 소개하는 ‘한국 신인극작가 시리즈’까지 기획하고 있다. 타이니 앨리스 극장 대표이자, 앨리스 페스티벌 주관자인 니시무라 히로코 여사는 이 시리즈를 “한국 연극의 보차(寶車)인 타이니 앨리스 극장에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더하는 기획”⁵이라 정의함으로써, 한일연극교류의 목적이 “서로의 연극적 세계를 풍성하게”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초청극단의 선발기준은 유명세가 아니라, “한국의 현재를 반영하는 새로운 연극인지”의 여부이다. 동시대적 고민을 담은 연극, 새로운 관점과 틀을 벗어난 양식을 갖춘 작품을 중시하는 니시무라 히로코 여사의 연극관과 연극운동에 대한 신념이 담긴 이런 실천은 한·일공동제작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등 지방도시 작품 초청까지 확대되고 있다.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 근현대극의 드라마투르기와 역사를 전공하고, 극작과 연출 작업을 병행해 온 니시무라 히로코 대표는 수익 성과는 상관없이 “배울 점이 많은 작은 연극을 계속 올리겠다”는 욕심으로 이 연극계를 이끌어 왔다. 이는 25년간 국내 44개 극단이 타이니 앨리스의 무대에 올랐고, 일본 18개 극단도 부산 아시아 연극제, 밀양연극공연축제와 대학로 소극장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는 등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중견 극단 예전이 작지만 강한 앨리스 페스티벌에 초청된 것은 2012년 대구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던 도쿄의 극단 귀상풍경(軌上風景)과의 인연 때문이다. 당시 소극장 예전에서 공연되었던 후루가와 다이ске 작·연출 <도시 풍경>의 정서에 공감한 김태석 대표가 후루가와 대표와 우정을 쌓아왔고, 지난 봄^{3,12-4,7} <마르지 않는 것>이 김태석과 후루가와 다이ске의 연출로 차례로 공연되었다. 이는 여러모로 뜻 깊은 시도였다.

지역극단 간의 자발적 국제교류활동이라는 점, 한일 양국의 해묵은 앙금을 극복한 예술 활동이라는 점, 동일 작품이 서로 다른 문화적 기호로 무대에 어

(왼쪽 이미지)
1950년대 서울 공연장 모습



(오른쪽 이미지)
1950년대 서울 공연장 모습



1950년대 서울 공연장 모습



(오른쪽 이미지)
1950년대 서울 공연장 모습



떻게 구현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 공연 시 꼼꼼한 번역과 드라마투르 기작업으로 예술성을 확보했던 김태석은 후루가와 대표의 추천으로 앨리스 페스티벌에 초청된 후, 셋 김굿으로 제의성을 보강하여 한국적 <마르지 않는 것>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도 높이 살 대목이다.

III. 소극장 연극의 본질과 사명

소극장 연극은 태생적으로 실험적이다. 20세기에 들어 근대극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혁신이 요구되자, 대형 프로시니엄 무대를 지양하고 약 4백 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연극적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했던 것이다.

19세기 말 자연주의 연극을 개척한 현대연극의 아버지 요한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도 스톡홀름에 161석의 소극장 인터마 테아트르 Intimate Theatre를 개관하여 그의 연극적 이상을 실험하였으며, 런던의 리틀 씨어터 Little Theater, 도쿄의 축지 소극장은 1920년대 자국의 연극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파리의 소극장 1950년대 세계 대전을 두 번씩이나 겪은 전 유

6 키친 싱크 드라마 Kitchen Sink Drama: 기성세대가 만든 현실에 분노하는 '앵그리 영 맨'의 삶을 다룬 1950~60년대 초반 영국의 연극, 영화, TV 드라마로 발전한 영국의 문화 운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누추한 셋방에서 거주하며, 퇴근 후 허름한 선술집에서 술만 퍼마시는 노동자계층의 가정사를 묘사한 사회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드라마가 많다. 아놀드 웨스커의 <부엌 The Kitchen>(1950), 존 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Look Back in Anger>(1956)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연극의 새로움이란 형식적 참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제나 소재, 관점, 그리고 해석도 포함한다. 안타깝게도 대구의 소극장 연극은 코미디에 집중되어 있다.”

럽의 작가들이 기존 연극의 규칙을 부정하면서 썼던 부조리극도, 아놀드 웨스커의 키친 싱크 드라마도⁶ 브레히트의 서사극도 바로 파리의 소극장에서 전파 되어 프랑스 연극의 중흥을 촉발하지 않았던가?

연극의 새로움이란 형식적 참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제나 소재, 관점, 그리고 해석도 포함한다. 안타깝게도 대구의 소극장 연극은 코미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우려는 ‘비극은 보통 보다 뛰어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 반해, 희극은 저급한 인물의 행동을 모방’한다며 코미디를 하대_{下待}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편협한 주장에 기대기 때문이 아니다. 웃음이라는 당의_{糖衣} 속에 마땅히 들어있어야 할 코미디의 본질, 즉 비판과 풍자가 빠진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간혹 진지함이 묻어나는 고전이나 창작극, 그리고 하이네 뮐러와 같은 실험극이 무대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기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극단 예전의 <마르지 않는 것>은 인류가 벗어나지 못한 폭력과 전쟁의 역사와 그 극복을 위한 통찰을 한국적 제의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소극장 연극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예

민한 일본작가의 희곡을 무대화하고, 동일 작품을 함께 공연하기도 하며, 극단 귀상풍경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모범으로 삼을 일이다.

대구에는 연출가 홍혜성, 극작가 이만택을 비롯한 연극적 자산이 풍부한 고장이다. 제 4회를 맞이한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이 활발해져서, 새로운 자극으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 DaeMun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돌아보며

박소영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하루 평균 3천 500여 명, 총 33만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 야마도 지역미술관으로서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 대구미술관의 특별전, <KUSAMA YAYOI, A Dream I Dreamed>가 약 넉 달의 전시기간 끝에 지난 11월 초에 막을 내렸다. 쿠사마 야요이와 같은 세계적인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서울이나 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 및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점과,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이 전시를 보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는 점은 반갑고 놀라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도 동시대미술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지역미술관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쿠사마 야요이의 개인전은 회화, 조각, 설치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주려 했던 한편, 또한 그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물방울 무늬 polka-dot'를 통한 '자아-지움 self-obliteration', '무한성 infinity', '영원성 eternity' 등과 같은 주요 개념을 다룬 작품들이 전시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현대미술의 조형언어를 직접 감상하고 체험할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대구미술관은 2011년 개관 한 이래 한동안 미니멀리즘을 비롯한 모더니즘 미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시기획을 주로 해 왔고, 관람객 또한 대부분이 미술 관계자 및 애호가들에 한정되어 그 규모에 비해 늘 한적하고 고요한 미술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난 쿠사마 야요이의 특별전으로 인해 대구미술관은 비로소 이러한 소수 전문가 중심의 미술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예술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 주었

Kusama Yayoi, 대구미술관,
A Dream I Dreamed.



다. 특히 가족단위로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환경이 열악한 대구에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 나아가 현대미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로서의 공공미술관의 가능성을 확인케 했다.

그동안 국공립미술관이 마치 경쟁하듯 관람객 수 갱신을 목표로 서양미술의 거장들의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 접근 금지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미술작품이란 수동적으로 조용히 관조해야 하는 성물처럼 비치게 한 점은 미술이 늘 우리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영역임을 각인시키는 데 일조해 온 측면이 있다. 물론 거장전은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관람객의 동원의 측면에서 성공이 보장된 전시라는 점에서,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유명 작가의 원작을 외국에 가지 않고도 직접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공공미술관이 선호하고, 지향할 수밖에 없는 전시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국공립미술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은 모던 아트와는 차별되는 동시대 미술의 주요 특징인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설치미술의 형식을 선보이면서 그동안의 보수적인

미술관의 이미지를 한 겹 벗겨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공립미술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성과 공공성^{문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잖은 아쉬움이 있다. 우선 설치, 조각, 회화 등 130여 점에 이르는 야요이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과연 야요이의 철학과 작품세계를 제대로 조명하고 전달했는가 하는 점에서 전문성의 문제를 남겼고, 또한 공공미술관으로서 일반 시민관람객들을 위해 경영의 측면을 넘어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용의 문제, 즉 공공적 책무의 문제에 대해 재고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대구미술관은 단순히 관람객수와 전국에서 찾아오는 미술관이라는 표면적인 접근에서만 아니라 내용적, 전문적 측면에서도 현대미술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미술관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야요이를 거론하자면, 야요이는 기본적으로 인상파 이후 전후 후기추상회화에 이르기까지 미술계를 지배한 형식주의의 모던아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950, 60년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일련의 실험적 미술운동

100년 전 야요이



“야요이의 작품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의 예술적 승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 있다기보다는 현대사회에 던지는 심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 개념미술운동의 맥락에서 주목받는 작가이며, 특히 초기 주요 작업들해프닝과 퍼포먼스와 분리하여 그의 작품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야요이의 작품은 대체로 개인의 정신적 장애의 징후적 결과물로서만 다루지거나, 강렬하고 다채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만 강조됨으로써 정작 작가의 예술세계는 개인의 에피소드나 시각적 이미지에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야요이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갤러리에서 더욱 고착되면서 대중화된 듯하다. 야요이의 작품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의 예술적 승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 있다기보다는 현대사회에 던지는 심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야요이의 초기 작업들 가운데 몇몇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야요이는 미국 모더니즘 미술을 대표하는 잭슨 폴록의 위세가 정점에 있던 1950년대 말 뉴욕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반백모더니즘 미술 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던 70년대 초반까지 뉴욕에서 보냈다. 야요이가 이 시기에 뉴욕에서 활동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당시 사회의 편향적 시각에서 볼 때 ‘정신적

1 Claire Bishop, Installation Art, A Critical History, Tate Publishing, 2005, pp. 90-91, 참조.

Kusama Yayoi, Infinity Mirrored Room,
Yayoi Kusama, I'm Here, but Nothing,
2000.



장애'가 있는 '아시아 출신'의 '여성 작가'라는 세 가지 핸디캡을 가진 야요이가 당시 남성 위주의 미국 미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취했던 예술 형식은 해프닝과 퍼포먼스였다.

만약 야요이가 초기에 관심을 기울인 추상표현주의 경향의 작품을 계속해 나갔다면 오늘날의 야요이는 없었을 것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야요이는 평생 자신의 예술적 '시그니처' signature가 되어 버린 '물방울 무늬 polka-dot'를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가져와 퍼포먼스, 해프닝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야요이에게 이 '물방울 무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야요이에게 있어서 '물방울 무늬'는 무한성을 의미하는 것이자 지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으며, 그 무한함 속에서 지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기호이다.¹

이 점은 야요이가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지만을 추구한 작가가 아님을 의미한다. 야요이는 이러한 '물방울 무늬'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업 방식으로 일련의 퍼포먼스를 실행하는데, 여기에는

항상 '자아-지움 self-obliteration'이라는 스스로 멍멍한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이는 일종의 카무플라주 효과와 같은 것으로, 물방울 무늬로 자신을 지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무한한 다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상징적 장치이자, 이고Ego를 내세우며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데 골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이다.

구체적으로 야요이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상 앞에서 여러 퍼포머들과 함께 서로의 알몸에 물방울 무늬를 붙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퍼포먼스를 했으며, 베트남 전쟁이 정점에 달했던 1960년대 말에는 알몸의 바디페인팅 해프닝으로 전쟁의 폭력에 대항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첫 번째 알몸 퍼포먼스는 1968년 10월 15일 일요일, 뉴욕증권거래소 맞은편에서 있었는데, 야요이는 현장에서 선언할 문구를 미리 신문 지면에 쓰게 했다.

야요이의 보도자료와 이 퍼포먼스의 포스트에 따르면, "주식으로 만들어진 돈은 전쟁을 계속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전쟁설립기구에 항의한다. 금융가를 불태워라. 금

“주체를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변 환경 속의 일부가 되게 할 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야요이가 말하는 핵심이다.”

용가 사람들은 농부가 되고 어부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비즈니스’를 멈춰라. 금융가의 사람들을 물방울 무늬로 지워버리자. 별거벗은 몸을 물방울 무늬로 칠해 금융가 사람들을 지워버리자” 등이 있다.²

말하자면 야요이는 물방울무늬를 ‘자아-지움’의 상징으로 사용하며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것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야요이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빈곤으로 빠뜨리고 나아가 곳곳에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신체와 물방울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했던 것이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969년 야요이는 ‘나의 영웅, 리차드 닉슨에게’ 라는 공개편지를 작성했다. 그 내용에도 야요이는 뚜렷하게 자신의 ‘자아-지움’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의 지구는 다른 수백만의 천체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polka-dot’에 지나지 않으며, 평화롭고 조용한 천체들 속에서 증오와 투쟁으로 가득 찬 하나의 구슬과 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새로운 에텐동산으로 만들어요. … 당신은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요.”³

2 1968년, 야요이는 월 스트리트를 겨냥하는 퍼포먼스를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실행했다.

3 Tate Modern 홈페이지 참조.

4 Claire Bishop, 같은 책, p. 91.

Kusama Yayoi, The Anatomic Explosion happening in front of the Alice in Wonderland statue in Central Park, 1968



즉, 주체를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변 환경 속의 일부가 되게 할 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야요이가 말하는 핵심이다. 야요이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거울 역시 영원 속에서 티끌로 존재하는 인간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예술적 장치이며, 또 다른 중요 주제인 ‘사랑’ 역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전쟁과 증오가 난무하는 세상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로 작용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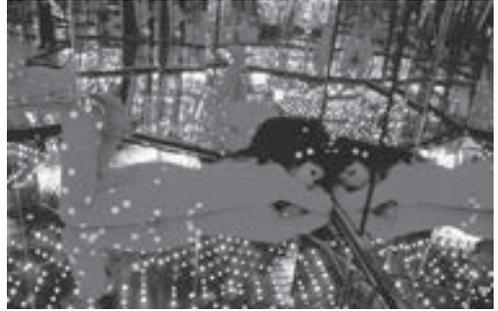
이렇듯 야요이의 작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나, 그러한 경험에서 창안한 자신의 다양한 예술적 코드, 즉 ‘물방울 무늬’, ‘영원성’, ‘사랑’ 등을 통해 공적 공간으로 확대되어 나아감으로써 당대의 공동체적 삶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려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야요이의 이러한 초기 비판적이고 전위적인 행위의 흔적을 ‘물방울 무늬’를 통해서만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야요이의 작품이 여전히 동시대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았듯 그가 60년대에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동시대성을 지니며, 지금 우리의 문제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미술관의 야요이 특별전은 그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평가되는 초기

Kusama Yayoi, Naked Protest at Wall Street, 1968, 10, 15.



Yayoi Kusama, Kusama's Peep Show or Endless Love Show, Castellane Gallery, New York, 1966



의 해프닝과 퍼포먼스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그 도록의 비평글에도 초기 작품들에 관한 심도 있는 해석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야요이의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 신비적, 유희적 효과의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그의 미학적, 역사적, 동시대적 의의를 놓치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대 미술의 개념적, 예술적, 비판적 차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의 한계는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미술의 역할을 하나의 이벤트, 페스티벌,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적 행사로 축소시켜 버리는 관행에 있다. 기관장은 미술관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즐기는 장소로 기능케 함으로써, 나아가 경영의 측면에서 보다 인기 있고 보다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전시형태와 운영 방식을 요청하고 선호함으로써, 미술의 시대적 역할을 외면하고 예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기관장의 수준이 그 국가나 도시의 예술적, 문화적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 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능력 있는 전

5 이를테면, 독일의 베를린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현대예술의 메카 도시의 하나가 된 것은 바로 3선 시장(크라우스 보베라이트)의 예술에 대한 조예와 전폭적 지원에 힘입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를린 시장이 한 것은 예술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관료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예술가 및 예술관련 전문가들에게 최대한 자유와 자원과 공간을 제공할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의 한계는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미술의 역할을 하나의 이벤트, 페스티벌,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적 행사로 축소시켜 버리는 관행에 있다.”

문미술인들을 발탁하여 그들에게 창작 지원, 전시 기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안출하고 실행하는 데 최대한의 자율권과 재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공립미술관을 제대로 운영할 유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발탁하지 못하는 관료적 인선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 도시에는 이미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료시스템의 개편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40년 남짓한 우리나라 미술관 역사를 감안하면 여러 시행착오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술관의 자율권 확보와 최소한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결국 지역에 한정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도 못한 채 사회적 공감과는 거리가 먼 미술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래 대구미술관은 이전의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한결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더하여 미술사적 담론에 충실한 전시 기획과 작

품 해석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는 7월에 있을 장 사오강의 전시를 기대해 본다.

DaeMun

나 는 닭 이 우는 마을에 산다

-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위하여

김선령

1

시인

지난 여름 김광석길이 있는 대봉동 방천시장 부근에 둥지를 튼 지 정확히 넉 달이 지나가고 있다. 빌딩과 원룸으로 많이 뒤틀리기는 했으나, 호젓이 흐르는 신천을 옆에 끼고 7,80년대 대구의 표정을 비교적 뚜렷이 간직하고 있는 동네다.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커피집 플로체, 양장점 재봉소리, 미미미용실, 엄마손분식, 김광석주막, 수성전당포, 샘물깎거리, 은자골막걸리를 비롯한 정겨운 가게들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이만저만 아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겼다. 플로체에서 연탄불을 갈아주기도 하고, 재봉소리 앞을 지나며 브라더미싱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두손아트에서 낫술을 마시기도 하고, 하릴없이 김광석길을 거닐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방천시장은 오랜 벗처럼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지난 여름 아버지 기일에 이 시장에서 조기를 살 때, 내 고향 영양읍의 오일장을 떠올리며 허름한 주점에 들러 막걸리 한 병을 비우기도 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새벽닭 울음소리였다. 초저녁에 든 잠이 세 시쯤 깨어 책을 펴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새벽 다섯 시를 조금 넘길 무렵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니, 저 닭이 미쳤나. 여기가 어딘데. 이백오십 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구 한가운데서 꼬끼오, 하면서 목청을 뽐아대다니. 그러나 닭은 분명히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나를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김광석의 목소리에는 안치환과는 영 다른 뉘앙스가 있다. 조금만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목소리에 새벽 닭 울음소리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 초연 포스터



데리고 갔다. 여기는 분명히 영양이 아닌데, 닭 울음소리는 마술처럼 대구를 영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삼십여 년 전 김광석은 어린 시절 이 동네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아, 목청은 저렇게 뽑아 올리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어 「광야에서」와 같은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어

김광석의 목소리에는 안치환과는 영 다른 뉘앙스가 있다. 조금만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목소리에 새벽 닭 울음소리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덕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 김광석은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우렁찬 닭 울음소리를 들었으리라. 거침없이 뽑아 올리는 그의 생목은 아무래도 건강한 수탉이 새벽에 뽑아 올리는 울음소리와 많이 닮아 있다.

은행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 밤 꿈에 김광석이 왔다. 일찍 죽으면 참 좋은 점도 있

“ 올해 대구 문화 예술계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김광석을 테마로 한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무려 이백여 회나 무대에 올려진 것이다. ”

다. 같은 용띠니까 그는 정확히 나보다 열두 살 아래다. 나는 살아서 늙어가고 있고, 김광석은 죽을 때의 나이 서른세 살 그대로였다.

“오리 할아버지, 드디어 이 동네로 오셨군요.”

젊음은 참 좋은 것이다. 그 자체로 풋풋하고 아름답다. 젊은 청년 김광석은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며, 잘 생긴 이마를 보여주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을 김광석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 김광석은 김광석이다. 그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김광석으로 빛나고 있지 않은가. 어느 평론가가 그대를, 그대의 노래를 금강석이라고 하지 않았다. 김광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또 있으니, 하늘에서도 그냥 김광석으로 영원히 젊은 관객으로 살아가거라.”

그러고 또 이러는 것이었다.

“요새도 이 동네에 새벽닭이 운다고 하던데 참



말입니까.”

“그래, 운다. 새벽닭이 목청을 뽑아 올려야 이 동네에서 니 같은 가수가 또 생길 게 아이가.”

2

2013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대구 문화 예술계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김광석을 테마로 한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무려 이백여 회나 무대에 올려진 것이다. 대구 초연 44회, 서울 대학로 소극장 앵콜 공연을 포함해서 158회, 뜨거운 찬사와 호응 속에서 관객 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전을 바꾼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즌 2」가 서울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이 작품은 ‘故 김광석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7년여의 기획 기간을 거쳐 지난 해 11월 30일 대봉동 소극장 페아뜨르 분도에서 초연했다. 2013년 1월 6일 김광석의 기일에 맞추어 막을 내린 이 공연은 44회 무대에 올랐다. 투자자는 없었다. 다만

김광석이 생전에 못다 한 꿈을 되살려 세상에 내보이고자 하는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그가 떠난 지 17년 만에 그를 무대 위로 소환한 것이다.

초연의 열기에 탄력을 받아 이 작품은 서울 대학로 소극장 아트센터 K로 옮겨졌다. 2013년 3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달 간 열렸으며, 팬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앵콜 공연에 들어가서 총 158회 만구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들였다. 어떤 스폰서도 없이 김광석 마니아들로 구성된 아티스트들의 힘으로 대구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상업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사건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3

서울 공연의 성공에 힘입어 이 작품은 2013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Return to Daegu, 김광석 다시 돌아오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4회 공연되었다. 이 무대의 가장 큰 의미는 소극장을 벗어나서 일천 석



을 훌쩍 넘어서는 대극장에서 본격적인 뮤지컬로서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9월 14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영남대역에서 내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천마아트센터를 찾아갔다. 아직 늦여름의 열기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캠퍼스를 향해 저만치서 가을이 오고 있었다. 천마아트센터가 조금씩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봄비는 로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로에서 검증된 이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와 호소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무대의 히어로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 송 라이터 박창근이다. 그는 아직 대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가수는 아니지만, 놀라운 가창력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탄탄히 구축해 가고 있는 훌륭한 가수다. 2년 전 여름 영양에서 내가 초청 시인으로 진행된 북콘서트에 초청되어 멋진 노래로 행사를 빛내 준 가수가 아니던가. 박창근이라면 대형 무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여 회의 무대 경험이 축적되었다고는 하나 소극장에 올린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대형 프로덕션이 자본을 투입한 작품이 아니라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무명 가수가 노래를 통한 도전과 좌절을 거듭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인생의 고달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는...”

김광석 마니아들의 순수한 끼와 열정으로 승부하는 무대라고 생각하니, 과연 무대를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

대형 무대에 어쿠스틱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배우들 또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스타들이 아니어서 관객의 호응이 어떨까 하는 내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로에서 관객 평점 10점 만점에 9.7점을 기록한 커리어에 걸맞게 작품은 밀도 높게 진행되어 갔으며, 관객의 호응 또한 대단했다. 이풍세 역으로 등장한 박창근의 가창력은 무대와 객석을 압도했으며, 안수빈과 권혁준, 홍중화, 언희, 박정권 또한 프로 뮤지컬 배우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무명 가수가 노래를 통한 도전과 좌절을 거듭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인생의 고달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는 스토리텔링도 단단했지만, 중요한 국면마다 터져 나오는 김광석의 노래는 뮤지컬의 완성도와 재미를 증폭시켰다. 러닝타임 130여 분의 작품은 그렇게 객석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형 극장을 탄식과 환희로 가득 채우며 힐링 뮤지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4

지금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과 음악을 대폭 수정하여 다시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2013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즌 2」라는 타이틀로 공연되고 있다. 이쯤에서 이 작품의 공연 일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 대구 초연 : 대봉동 테아뜨르 분도¹⁰⁰석,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44회 공연
- 서울 공연 : 대학로 아트센터 K 네모극장²⁵⁰석, 2013년 3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앵콜공연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58회 공연
- 대구 공연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1,200}석, 2013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4회 공연
- 서울 공연 : 대학로 눈빛극장²⁰⁰석, 2013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즌 2」는 초연 작품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다. 아직 보지 못한 이 작품은 김광석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알고 있다. 초연 작품이 김광석의 생애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면, 「시즌 2」는 픽션에 가까우며, 극의 전개나

“ 그의 음악은
모던 포크의 계보를
확장하면서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애환과
젊음의 아픔, 민주화와
관련된 저항정신을
담아내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 ”

전환 국면에서 김광석의 대표 음악이 무대를 채우는 형식이다. 더욱이 극 중에는 김광석의 죽음을 애도하며 김광석길의 벽화가 흐르고 그의 노래 「부치지 않은 편지」가 현정의 노래처럼 불려진다. 그러므로 「시즌 2」는 초연 작품의 진화라기보다는 초연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리즈를 기획한 LP STORY는 앞으로 「시즌 3」, 「시즌 4」 등 또 다른 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김광석의 생애와 노래, 특히 노래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콘텐츠가 생산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리즈가 김광석의 생애와 노래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주연 배우 박창근도 대구가 낳은 가수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 예술계에 신선한 파장을 던져 주고 있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의 생애와 음악을 통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시들어가는 후기 산업사회의 향수를 불

“ 대구의 문화 예술 토양이 생각보다
그리 척박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의 생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리일으킨다. 그가 활동하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허리에 삐삐를 차고 다녔다. 음악에 관한 한 386을 포함한 그 이전 세대는 LP판을 레코드에 얹거나 워크맨을 귀에 꽂고 있었으며, 그 아래 세대는 MP3를 들고 다녔다.

김광석의 청년 시절, 좀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이십 대는 산업화의 후유증과 민주화의 열기로 들끓던 80년대를 관통한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모던 포크의 계보를 확장하면서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애환과 젊음의 아픔, 민주화와 관련된 저항정신을 담아내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 그의 음악적 전성기는 80년대 후반부터 1996년 1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진다.

이십여 년 전 김광석의 돌연한 죽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한창 무르익어 가는 재능을 본격적으로 펼칠 나이에 그는 돌연히 세상을 떠난다. 사회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이지만, 음악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돌연사다. 그는 늘 사회 전반의 정서와 시대정신을 노래에 담아온 가객이다. 그가 살아 있다면 90년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시

절과 사회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그의 부재가 더욱 안타깝고, 그가 없는 자리가 너무 적막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지금 젊은 마니아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리즈로 그의 정서와 정신을 우리 곁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김광석을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가 대구에서 생산되었고, 버전을 달리 해가면서 상당한 생명력으로 객석을 달구고 있지 않은가. 특히 눈에 띄는 후원도 투자자도 없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구의 문화 예술 토양이 생각보다 그리 척박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의 생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이 작품을 자생 콘텐츠가 거의 없는 대구에서 일어난 2013년의 문화 예술적 사건으로 보는 근거다.

6

대봉동 방천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김광석길은 대구가 자랑하고 있는 골목투어 「근대路의 여행」의 아주 특별한 포인트다.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김광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리즈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화예술콘텐츠가
건강한 새벽닭 울음처럼
꼬끼오, 하고 연이어
목청을 뽑아 올리기를
기다린다.”

석길이 근대가 아니라 손을 뺐으면 닿을 수 있는 현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당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석길은 버려지다시피 낙후된 재래시장 방천시장을 감싸 안고 있다. 벽화와 조각으로 조성된 이 길이 제대로 된 문화상품으로 살아나야 시장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 김광석길 또한 살아난다. 시장과 김광석길이 함께 살아나야 「근대路의 여행」 코스가 더 깊고 풍성한 문화 상품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가. 길은 저 혼자 멀뚱히 서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초라하게 서 있다. 김광석길을 찾는 사람들이 스며들 공간도, 김광석을 기억할 만한 문화상품은 커녕 액세서리 하나 고를 가게조차 없다. 젊은 작가들이 땀과 열정으로 만든 연극이나 뮤지컬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하나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김광석을 테마로 한 작품마저 제대로 품어 안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어떤 후원도 투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방천시장과 김광석길을 품고 있는 대봉동 일대는 다행히 한 세대, 좀 더 넓게 보아 두 세대 전의 대구의 표정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



원이다. 더구나 수탉이 목청을 뽑아 울어재끼는 마을이 아닌가. 이 지역마저 원룸이나 상업적 빌딩으로 점령된다면 대구는 더 삭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대구 특유의 표정과 호흡과 맥박과 체온을 간직하고 있는 방천시장과 김광석길이 문화예술과 시장이 상생하면서 현대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대담하고 신선한 재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구에, 대봉동에, 방천시장에, 김광석길에 닳을 내리고, 서울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상하면 유쾌해진다. 2013년 모처럼 대구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시리즈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2, 제3, 제4의 문화예술콘텐츠가 건강한 새벽닭 울음처럼 꼬끼오, 하고 연이어 목청을 뽑아 올리기를 기다린다. 바로 이 작품이 그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DaeMun



공익재단



물 건너는 사람

푸른 강아지와 놀다

물 건너는 사람

나면 못 스와니

평화의 강아지를 사주세요.
하지만 강아지 사지마세요.
강아지 사지마세요.



03 / 벽을 깨다

장르와 장르가 만나다

문학_시에 음악의 날개 달기 -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

문학_시의 대중화, 서정시 콘서트

음악_음악을 보고 미술을 듣다 - 멀티미디어 아트와 다원예술

건축_대구건축, 벽 깨기와 신도시건축미학을 위하여

시 에 음악 의 날 개 달 기

-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

이태수

1

시인

시와 음악, 시인과 음악가와의 만남은 시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호 어우러짐^{융합}이 빚어내는 시너지효과는 물론, 그 반향이 그렇듯이, 향수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바람과 정서적 향기를 안겨다준다.

시서정시는 원래 음악과 깊은 함수관계를 가진 문학 장르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음악성을 끌어안고 있다. 하지만 음악과 가까이 만나고 바로 어우러지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극대화되는가 하면, 바로 그 운율이 날개를 달게 되기 때문이다.

수성아트피아가 평일 낮 시간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시도해 지난 2012년 2월^월은월부터 2년째 지속적으로 펼쳐온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는 그 대표적인 경우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시인의 목소리'와 '그의 음악친구'가 만나 어우러지는 이 무대^{공연}는 시와 음악의 만남을 통해 '시를 음미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다!'라는 슬로건이 그 성격을 어느 정도 함축해 말해 준다. 시를 중심에 두면서도 단순히 시를 낭독하고 해설을 곁들이는 무대가 아니라 그 속에 시인의 인생과 음악을 녹여내고 독자^{관객}들과 가까이 그 문학적 향기와 감성의 정점을 함께 향유하는 길 트기로서의 공연이라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시와 음악이 왜 잘 맞아떨어지고, 시를 떠받들어 주게 되는지, 그 요인을 짚어보기 전에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모든 글과 시가 구분되는 기준은 '음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글¹⁾과 다르게 오로지 시²⁾만이 음악성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음악성이 곧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시가 서정시, 서사시, 극시 등 세 장르로 나뉘었지만, 이때에도 세 장르는 모두 다소의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문'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져 그 갈래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 속성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시는 '운문'이면서 '창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학 장르로, 모든 글 중에서 유일하게 '리듬'³⁾운율=운과 율격을 가진 글⁴⁾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날은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반서정주의 시'들도 적지 않아 '서정주의 경향의 시'에 한해서만 '서정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라고 하면 일반적

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정시'를 가리키고 있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시의 명칭 문제를 놓고 본다면, 영미문학권에서는 리듬을 거느리는 문학 장르인 시를 'poem'⁵⁾구체적인 작품이나 'poetry'⁶⁾장르 개념, 추상적 용어라 한다. 우리 국문학에서는 서양의 시에 해당하는 용어를 '시(詩)'라고 불렀다. 서양보다는 확실하게 '노래'라는 뉘앙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의 주류로 이어지고 있는 서정시 lyric poem⁷⁾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현악기의 'lyre'에서 유래한 'lyric'이라는 말 때문이다. 이 뜻만으로도 시가 원래 음악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시가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에 '문학상의 명칭'인 '시(詩)'와 '음악상의 명칭'인 '가(歌)'를 함께 표기한 점만 보더라도 그 성격이 확연해진다.

시는 이같이 음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문학 장르이다. 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음악성을 거느리고 있지만, 음악과 어우러질 때는 금상첨화⁸⁾錦上添花의 길과 장을 열어놓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시가 낭송을 넘어
음악과 바로 만난다는
건 그보다도 더욱
이상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시의 운율과 어조를 돋우어내는 시낭송 분위기가 고조되고, 시낭송가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건 활자문자매체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과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이를 향수자들과 함께 향유하려는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가 낭송을 넘어 음악과 바로 만난다는 건 그보다도 더욱 이상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3

시와 음악을 접맥시켜 보려는 시도는 지난날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를 중심에 둔 공연이 아니라 시를 노래예술가곡으로 만들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가곡을 보급하려는 시도이긴 했지만, 필자도 개인적으로나 뜻을 함께하는 시인, 예술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그런 시도를 한 건 40여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오른다.

1980년대 초에 필자와 한 방송인(손상락 프로듀서)이 아이디어 짜내 제안하고, 대구MBC가 받아들여 한 달에 한 번 창작가곡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으로 방

시인 김명인, 홍세호, 최정림



김명인



영하는 가곡운동을 편 적이 있다. 필자의 시에 작곡가 임우상^{당시 계명대 교수}이 곡을 붙여 소프라노 김귀자^{당시 경북대 교수}가 노래를 부르고 답소를 나누는 첫 방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네 차례^{4년}에 걸쳐 시인과 작곡가, 성악가, 피아니스트, 방송 관계자가 뜻을 모아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폰서 문제로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시도로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으며,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문제도 역부족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1984년 대구MBC에 FM방송이 창설되면서 필자가 시인들을 주선, 노랫말시를 제공하면서 매달 창작가곡 한 곡씩 만드는 길을 텃다. 1년 동안 창작된 12곡으로 연말에는 주최 측이 LP판 레코드를 만들고, 대구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그 곡들로 공연하는 가곡운동을 펴는 성과로 연결됐다. 그러나 이 역시 4년 만에 방송사의 사정과 호응도가 높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92년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테너 김완준, 바리톤 박영국, 작곡가

정희치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시와 음악이 만남을 추진하게 됐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시인, 작곡가, 성악가, 피아니스트, 시와 음악 애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예술가곡회를 출범시켰으며, 그해 봄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발표회를 가졌었다.

대구예술가곡회는 그동안 회원 변화^{특히 성악파트}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정기연주회와 간간이 소음악회^{초기}를 갖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정기 발표회를 가질 때마다 작곡집을 냈으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만들어진 가곡들을 망라한 예술가곡집 1집과 그 이후 2011년 제20회까지의 가곡들을 묶은 예술가곡집 2집도 발간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후원단체들이 없어져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년 들어서는 세대교체를 염두에 두고, 젊은 세대들을 대거 영입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기도 하다. 이 운동은 이 지역 시인들의 현대시를 예술가곡으로 창작해 널리 보급하려는 시도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최현묵 이야기



관장님 이야기



4

수성아트피아의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가 빛을 보게 된 것은 극작가이자 공연예술전문가인 최현묵 수성아트피아 관장이 취임한 뒤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를 중심에 두고 음악과 소통하는 공연무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에서 비롯됐다. 사석에서 주고받던 이야기가 실마리가 된 셈이다. 문학, 특히 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최현묵 관장의 배려의 덕택임도 말할 나위가 없다.

종래에 수성아트피아의 공연 브랜드로 사랑을 받았던 '튜즈데이 모닝'의 후속으로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고정시간을 확보, 인문학 강의에나 어울릴 법하며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문학 장르인 '시'를 음악과 연계시키면서 일반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공연예술로 끌어올려보자는 데 뜻을 같이하게 됐던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의 본질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성이 가미된 공연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프로그램과 사회를 맡기로 한 필자가 첫 해의 시인 11명 선정과 교섭 작업부터 하게 됐다. 최현묵 관장과의 몇

“수성아트피아의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가 빛을 보게 된 것은 최현묵 수성아트피아 관장이 취임한 뒤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를 중심에 두고 음악과 소통하는 공연무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에서 비롯됐다.”

차례 협의와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동안의 공연 기획을 세우게 됐으며, 필자가 사회자 없이 단독 출연해 첫 무대를 가지게 됐다. ‘자화자찬’ 같기도 해 첫 공연이 끝난 뒤 『수성문화 S:』 2012년 봄호 인터뷰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인용한다.

관객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나쁘지는 않았더니 다행입니다. ‘시’라는 것이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면 자칫 자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박수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런대로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시인으로서 이런 공연 무대에 선다는 것부터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연 시도 자체가 대구에서는 처음이고 또 낮시간 대라 얼마만큼의 관객들이 올지, 그것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가 가장 걱정이 됐지요.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를 공연 기획 단계부터 함께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제의 받았을 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듣는 순간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학에도 여러 장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시’거든요. 괜찮다 싶어 〈중략〉 황동규 시인부터 신달자, 유안진, 정호승 시인 등 직접 연락을 해서 해보자고 했더니 그분들도 흔쾌히 하겠다고 하

더라고요. 취지가 좋으니, 이심전심 통했나 봐요. 〈중략〉 저는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분이 함께 공연해 주셨지만, 앞으로 나올 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음악친구들이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누구와 공연을 하게 될지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중략〉 궁극적으로 ‘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꾸기’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누구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 가진 보편적 정서가 기본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꿈을 담아내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흔히 요즘을 일컬어 ‘시’가 죽은 시대다. 〈중략〉 시를 읽는 젊은이들이 적은 것 같아요. 매체 발달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해서 종이로 된 책과 시집이, 사실 ‘시’라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욱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집 판매량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자면 우리나라만큼 시인이 많은 나라가 없고, 또 시집이 대접받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지요. 〈중략〉 시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성아트피아의 이번 공연은 참 좋은 기회가 할 수 있지요. ‘시’와 좀 더 친해질

“ 이 무대는
특히 매회 시인이
선호하거나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가의
라이브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니까요. 사실, 주위를 살
펴보면 시와 문학에 대한 향수층들이 많아요. 그런 수
요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대중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면 관계로 그 뼈대만 축약한 내용이지만, 이
인용으로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첫 무대가 마련되기까지의 속사정과 내막을 어느 정
도는 짐작해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
까지 마련해온 ‘시인의 목소리, 그의 음악친구’는 지
금까지 프로그래머 역할을 한 필자의 시인 선정과
대본 구성, 사회로 수성아트피아의 제작·연출·기
술팀과 호흡을 맞춰 스물두 차례의 무대를 펼쳤다.

첫해인 2012년에는 필자^{이태수}, 2월, 황동규^{3월}, 이
하석^{4월}, 유안진^{5월}, 이동순^{6월}, 강은교^{7월}, 천양희^{8월},
이기철^{9월}, 문인수^{10월}, 신달자^{11월}, 정호승^{12월}이 출연

진지 무용사



유용석 피아니스트



유용석 피아니스트



했으며, 2013년에는 정진규²월, 정희성³월, 허영자⁴월, 나태주⁵월, 김광규⁶월, 노향림⁷월, 김명인⁸월과 시조시인 이우걸⁹월, 시인 박재열¹⁰월, 송재학¹¹월, 박정남¹²월 등의 시인이 출연했다.

출연 시인이 자선한 자작시 10편 내외의 낭독과 해설을 축으로 친구처럼 가까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상물을 곁들이기도 하는 이 무대는 특히 매회 시인이 선호하거나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가의 라이브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음악친구로는 필자의 경우 이의춘베이스과 장수연피아노이, 황동규에게는 김신영피아니스트, 이하석에겐 김은진해금과 박창근기타, 유안진에겐 국악 CD민요, 이동순은 자신의 색소폰 연주홀러간 옛 대중가요, 강은교에겐 홍순포베이스와 방혜경피아노, 천양희에겐 박인아첼로, 이기철에겐 박영국바리톤과 정취정피아노, 문인수에겐 박경화민요와 차진성고수, 신달자에겐 이은정, Wolfgang Golds플룻과 Julia Reth하프, 정호승에겐 주선영소프라노과 권경아 피아노 등이 출연했다.

2013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음악친구로는

정진규에게 한기문클라리넷이, 정희성에게 이수경소프라노, 허영자에게 이경버순, 나태주에게 박희숙소프라노, 김광규에게 이월숙플룻, 노향림에게 윤현진바리톤, 김명인에게 홍세영아코디언과 최정란기타, 이우걸에게 김은진해금, 박재열에게 서창완콘트라베이스, 송재학에게 오재한색소폰, 박정남에게는 임용석베이스이 출연했고, 피아노 반주는 계속 허수정이 맡았다.

2년 동안 출연한 시인들은 이름만 열거해도 대부분이 한국시단에서 두드러진 개성으로 자기세계를 구축한 중진, 중견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지만, 이들의 시를 받쳐주는 음악이나 영상물들도 그 시인의 시와 체취를 잘 살려주고 북돋우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연의 분위기를 띄워준 음악친구들은 시인의 개성이나 취향에 맞춰 만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성악과 기악, 국악, 대중음악 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음악 내용 역시 각양각색으로 다채로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화답해 주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필자의 공연 때는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시작해 베이스 이의춘과 피아니스트 장수연 부부가 필자 작시의 '봄밤에는' 정희치 곡과 '새에게' 권태복 곡을 불렀

시인 송제환



시인 이우권



다. 처음 시도되는 무대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우려를 완전히 비켜설 수는 없었으나 프로그램을 거듭 진행하는 동안 음악친구와의 호흡이 잘 맞았다면 큰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다.

실제 음악친구들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 같다. 강은교 공연 때는 베이스 홍순포가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를, 이기철 공연엔 자작노랫말의 ‘기다리는 마음’^{김동환}곡 등을 바리톤 박영국이 불러 호응을 얻었다. 정호승 공연 때는 소프라노 주선영이 정호승 작시의 대중가요 ‘이별 노래’를 성악창법으로 불러 이채를 띠었으며, 정희성 공연 때는 소프라노 이수경이 가곡 ‘봄치녀’ 등으로 봄 분위기를 띄웠다. 나태주 공연 땀 소프라노 박희숙이 ‘비단강’ 등 나태주 작시의 창작가곡들을 들려줬으며, 노향림 공연 때도 그가 작시한 창작가곡 ‘압해도’^{최영섭} 곡을 바리톤 윤혁진이 불렀으며, 박정남 공연엔 베이스 임용석이 러시아 민요들을 불러 시와 한겨울의 정서를 일깨워 주었다.

피아노 독주를 곁들인 무대로는 황동규 공연 때 뿐이었는데 젊은 피아니스트 김신영이 시인의 선택에 화답하기 위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30번 3악장’을 한 달간이나 연습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날개를 다는 시가 더 많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먼 것만 같아 아쉽다.”

모았고, 천양희 공연엔 박인아의 무반주 첼로 연주로 바흐의 첼로조곡들을 들려주었으며, 신달자 공연엔 이은정 등의 플룻과 하프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한편 정진규 공연엔 한기문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K622' 등을, 허영자 공연엔 이 경의 베토벤 연주로, 김광규 공연엔 이월숙의 플룻 연주로, 박재열의 공연엔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송재학 공연엔 서창원의 색소폰 연주로 시와 시인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이하석 공연 때는 해금의 김은진과 기타의 박창근이 들려준 퓨전국악으로, 문인수 공연엔 국악인 박경화의 소리와 고수 차진성이 아우른 '정선 아라리'로, 이우걸 공연엔 시조와 잘 어울리는 김은진의 해금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유안진 공연 때는 이례적으로 영상 CD로 우리 민요를, 김명인 공연엔 아코디언^{홍세영}과 기타^{최정란}가 어우러져 특유의 정서를 자아내는 연주로 이채를 띠었으며, 이동순 공연엔 사회자가 잠시만 등장한 뒤 독무대로 자작시 낭독과 해설에 곁들여 흘러간 예 대중가요를 직접 색소폰 연주로 들려주고 이야기를 곁들여 시와 대중적 교감을 극대화하는 무대로 이끌기도 했다.

1년 단위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심하고 난감한 부분은 시인 선정 문제이다. 낯 시간대의 공연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특히 여성들이 주관객이 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고, 관객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시인이어야만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시인이라도 대중적 인기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하며,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지만 대구의 시인을 많이 선정하지 못해온 것도 이런 점 때문임을 밝혀 둔다.

2014년으로 이 공연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지만, 그간 반응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의 향수층이 점차 뒷걸음질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서 그런지 관객층의 좁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날개를 다는 시가 더 많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먼 것만 같아 아쉽다. 이런 시도가 조금 더 사랑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따름이다. DaeMun

시의 대중화, 서정시 콘서트

김용락

시인
예술 감독

1

'서정시 읽는 도시'

한 도시의 문화정책 슬로건이 '서정시 읽는 도시'라는 건 내가 과문해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문화적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어떤 특정한 도시가 한 도시 전체를 '서정시 읽는 도시'로 지정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 그 내용이나 콘텐츠의 충실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시를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은 그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윤발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자본주의적 성격의 예술인 시를, 개인의 취향도 아닌 한 도시의 문화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충분히 놀랍고 감동 할 만 일이다.

2천 년 전 공자는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不學詩 無以言 “시 삼백이 사무사”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이라고 한 바도 있고,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매슈 아놀드는 “시는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처럼 시를 좋아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 읽기를 한도시의 문화정책의 과제로 삼은 도시는 대한민국 '대구시'가 처음인 것 같다.

대구가 한 때, 주로 70년대에 '시인의 도시'라는 속칭을 얻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학을 호사취미나 가십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중적 호사취향에 맞춰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실제로 대구에는 뛰어난 시인이 많이 배출되었고, 활동한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 신동집, 김춘수를 비롯해 <자유시>, <형상> 동인 80년대의 <분단시대>, <오늘의 시>, <낭만시> 동인을 비롯해 개별적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낸 시인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서 시 전문지인 <시와 반시>는 꾸준한 성과를 내 왔고, 종합 계간지 <사람의 문학>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면서 좋은 시인들을 발굴해 왔다. 최근에는 시 중심 사회비평 무크지 <문화분권>이 창간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구가 시의 도시라는 속칭을 듣는 것이 과히 지나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런 좋은 시인, 동인지, 문학잡지의 인프라 위에서 대구가 ‘서정시 읽는 도시’라는 구상도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정책적 표방이 반드시 내실을 얻으면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서정시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문학적 실천을 모색한 이 기획도 그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다음에 이와 유사한 기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서정시는 흔히 시를 쓰는 시인이서적 주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시적 대상에 순간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의 창작방법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서정시는 주관적이면서 순간적인 장르이다. 서사시가 시적 화자를 내세워 전쟁이나 영웅담과 같은 객관적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것과는 대비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이나 독자들은 서정시라고 하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산과 강, 꽃과 같은 자연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인 반응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서정시와 관련해서 유명한 경우가 있다. 독일의 미학자 아도르노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가 가능한가?”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진위나 해석을 두고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너무 유명해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구가 되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을 6백만 명 학살했다. 인류 최악의 야만적인 폭력행위였다. 그 살인행위가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시인이 한가하게 서정시를 쓰고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는 의미로 아도르노의 저 구절은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0년 5월 광주 학살이 있고 난 후 한 시인은 저렇게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시인이

“ 서정시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기는 하지만, 부정한 권력이나 타락한 기득권이 그 오염된 현실을 외면하고...청맹과니 전략의 일환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탄한 적도 있다. 이런 말들의 함의는 시인이 역사적 현장과 현실에 보다 치열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시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기는 하지만, 부정한 권력이나 타락한 기득권이 그 오염된 현실을 외면하고 역사라든가 민중과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해 눈감게 하는 청맹과니 전략의 일환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2

서정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눈으로만 묵독을 하든 소리 내어 낭독을 하든 일단 인쇄된 상태에서야 읽기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육영수 교수중앙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서양에서 15세기 중엽1450 구텐베르크 납 활자가 처음 발명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지적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99년 타임지는 새천년을 앞두고 지난 1천 년 간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본 지정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활





자의 발명이 책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1377년에 만들어진 고려 '직지심경'이 학계의 정설이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세계사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¹⁴⁸³⁻¹⁵⁴⁶의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금속활자의 발명에 의한 이 인쇄술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종교계의 부패를 상징했던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 비판한 소책자를 빠르게 인쇄 보급함으로써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루터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보헤미아의 신학자로 알려진 얀 후스¹³⁷³⁻¹⁴¹⁵가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그는 교황청에 의해 화형 당했다. 여론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책의 대량 생산과 보급은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쇄술의 특징은 “확산, 표준화, 보존, 고정성”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주요도시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커뮤니케이션 혁명 일어났다. 가제본 상태의 소책자들이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가령 왕실가족의 근황이라든가 종교적 기적, 자연 재해, 길거리 가십 등을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1605년 플랑드르에서 격 주간 신문 최초 발행됐고, 1702년 최초의 일간지 「데일리 쿠란트」가 영국서 창간됐다. 1750년부터 책 대여점과 독서실이 서유럽 전역에 생겨나면서 대중 독서 전성시대 개막됐으며 1710년 영국에서 자자에게 저작권 인정 인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1777년 프랑스는 입법을 통해 저자의 영구적 저작권을 최초로 공식 인정함과 아울러 후손에게 권리 양도를 인정하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출신성분, 재산유무에 관계없는 전문작가가 등장하여 펜으로 출세는 신분상승을 이루었으며 책을 통해 즉자적으로 사고하는 ‘근대적 독자’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철학자, 정치인이면서 데카르트와 함께 근세 철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당시 사회의 지적 분위기를 잘 전해주는 말이다. 책을 통해 유용한 지식과 정보 습득, 자신의 사회적 물질적 상황을 향상하려는 신흥계층인 부르주아지의 성장을 전제로 가능했던 주장이었다.



프랑스의 자유적 사회주의자 P.J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은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가난 때문에 중등교육도 못 받은 인쇄소 식자공이 활자책을 통해 부르주아 세상의 게임 법칙과 불평등의 근원에 대해 학습해서 맘스와 논쟁하는 세기의 노동자 지식인이 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살롱에서, 영국은 커피하우스에서 신문 가십책자 정기간행물 통속소설 등을 읽은 시민 지식인 저널리스트 들이 모여 교회와 국가의 지식독점 체계를 무너뜨렸다.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의 혁명적 발전을 추구하는 대신에 기존의 권력구조와 가치관을 강화하는 역기능 있다. 초기 면죄부 판매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교회 관계자였다.

근대 인쇄출판업은 종교서적 출간과 판매에 깊은 관련이 있는 데 인쇄술의 보수화 반동화의 한 사례이다. 1600에서 1650년 사이 파리에서 종교서적 출간은 이전의 30%에서 50%로 증가했고, 1778에서 1789년 재출간된 136만3700권의 책 중 63%가 종교서적이었다.

현대의 탁월한 미디어 학자인 캐나다의 마샤 맥

“ 맥루한은 활자인간은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형의 전범이 아니라 필사시대 인간보다 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

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은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 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전환은 근대 기술문명이 가져다 준 비극이라면서 인쇄술은 인간의 경험을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으로 환원, 정체시켰다고 주장했다. 단어를 소리와 분리-마음과 머리를 격리시킴으로써 그 결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감성적 뉘앙스'가 상실되었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관점을 표준화된 단어와 문법으로 번역해 평면적으로 '고정' 시킴으로써 세상읽기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앗아간 것은 '구텐베르크 시대의 커다란 패러독스' 주장했다.

맥루한은 활자인간은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형의 전범이 아니라 필사시대 인간보다 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활자인간은 읽는 행위로만 세상을 판단, 해석하고 행동하는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비극적 존재로 전락했으며, 고대와 중세의 소리 내어 읽기는 본질적으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대화의 성격으로 공유된 것이 나누는 담론이 인쇄술로 인해 획일화되고 복제 가능한 상품책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와 더불어 대화하지 못하고 인쇄된

책의 창백하고 기계적인 공간에 갇힌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경청할 만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2010. 책세상 참고

3

한국문학에서 1980년대를 '시의 시대'라고 불렀다. 1970년대부터 민음사의 '민음시선'이 출현한 것을 필두로 창작과비평사의 '창비시선'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시선' 등 대형 출판사에서 주목만한 시선 시리즈를 기획하여 시집을 대량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접시꽃 당신』이나 『홀로서기』 같은 시집은 1백만 부 이상이 팔리기도 했고, 고은의 『만인보』, 신경림의 『농무』 등 일부 시집들도 거의 1백만 부에 육박할 정도로 판매되었다. 판매부수만이 시의 시대를 호명한 것은 아니다. 시인들이 시를 통해 당시 신군부 독재세력에 저항하였다. 시를 현실 변혁의 중요한 무기로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시의 대중화가 도래했다.

그러나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자들은 시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시 자신의 매너리즘, 출판환경의 변화, IT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폰 등장 등 여러



“ 시와 시인과 독자가 서로 상실된 감성적 뉘앙스를 회복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감성의 고양을 통해 문학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 행사였다. ”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시가 80년대 독자들에게 받았던 폭발적인 호응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러나 다시 오지 않는 과거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2013년 대구에서 대구문화재단 주최로 '서정시 읽는 도시-대구'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현되었다. 올해가 4년 째이다. 이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시행하였다. 첫 번째가 <서정시 콘서트>, 이 행사는 20여 명이상이 등장하는 대형 오케스트라와 10여명의 남성 중창단, 무용단, 시낭송가, 영화 장면 인용 등이 동원되는 대형무대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회 열렸다. 관객도 적게는 5백~6백 명 많게는 1만 명이 이상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서정시 낭송회로 <찾아가는 詩간 여행>이었다. 중고등학교, 지역 도서관, 노인회관, 이주민센터 등을 총 13회 찾아가서 지역의 중견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하고,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해 독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2~3인의 연주자들이 동행하여 중간 중간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관객은 각각 50명에서 많은 때는 15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서정시 메일링 서비스> 발송이었다. 지역의 현역과



작고 시인 30명의 시를 시낭송가의 시낭송과 시 내용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하여 독자 1만 여명의 집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컴퓨터 메일링을 통해 배달하는 작업이었다.

이 행사들은 앞서 인용한 마셜 맥루한(M. McLuhan 1911-1980)의 “인쇄술은 인간의 경험을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으로 환원, 정체시켰다”는 주장과 “단어를 소리와 분리-마음과 머리를 격리시킴으로써 그 결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감성적 뉘앙스’가 상실되었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관점을 표준화된 단어와 문법으로 번역해 평면적으로 ‘고정’ 시킴으로써 세상읽기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앗아간” 오늘날 문학 향수, 특히 시문학 향수의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 할 수 있다. 음악, 무용, 퍼포먼스, 시낭송, 현대기술문명인 IT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접목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시와 시인과 독자가 서로 상실된 감성적 뉘앙스를 회복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감성의 고양을 통해 문학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 행사였다.

공자가 말한 시를 배우지 않으면 할 말이 없고, 매슈 아놀드의 시야말로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언이라는 취지를 어떻게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극심한 자기 소외를 겪고 있는 대중들에게 오롯이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 행사의 중요한 목표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판단도 전적으로 대중의 몫이다. DaeMun

음악을 보고 미술을 듣다

- 멀티미디어 아트와 다원예술

김지혜

바이올리니스트
퍼포먼스 큐레이터

1879년 잡지 <핀치>에 ‘가까운 미래에 전화와 가정용 영화를 합친 장치, 자택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에디슨의 텔레포노코프 : 사운드뿐 아니라 빛도 전송한다>라는 상상화 한 장이 실렸다.

이 상상화는 신기술의 발전이 인류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고도 신문, 전화, 라디오나 TV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연극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지 않아도 자택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극 배우들은 극장용 연극을 벗어나 이런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극을 만들어내야 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콘서트 홀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축음기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나은 녹음 기술이 요구되었으며 카메라의 등장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경험들이 가능해졌다.

이와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낸 것이 미디어의 발전이고 동시에 예술가들의 예술적 표현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등장한 것이 미디어 아트이다.

Punch Victorian Era Cartoons(1897)
미디어 아트(정동암 지)

미디어 아트, 그리고 백남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기계매체는 인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예술가들이 이 매체들을 본격적으로 예술 작업에 활용한 것은 훨씬 긴 시간이 지나서였다. 20세기 초반에 무성 영화가 등장하긴 했지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작업이었고 상업성이 짙었기 때문에 순수예술가들은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영화가 처음 예술 작품으로 전시되는 정도였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예술가들이 기계매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술가로 슈톡하우젠독일의 전자 음악 작곡가 1928-2007이 있다. 그는 최초의 전자 음악 작곡가로 미디어 아트의 대명사로 통하는 백남준^{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1932-2006}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백남준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 중 또 한 사람이 존 케이지^{미국의 작곡가 1912-1992}인데, 존 케이지는 불확정적이고 우연성을 가진 음악을 주장하면서 악기와 사물을 결합한 다양한 소리에 대한 탐구를 했던 작곡가로서 백남준의 예술적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술가이다.

정의 내려져 있는 음렬, 화성, 리듬 등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을 부정하고, 감상자가 한정적 요소들로만 구성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부정하고, 듣고 상상하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내는 매개체로서의 음악을 주장하였던 존케이지의 영향으로 백남준은 기계매체를 예술에 활용,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것을 실험하게 된다.

1963년 독일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TV’^{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V}에서 백남준은 13대의 텔레비전, 3대의 피아노, 소음기등을 배치하여 연주자의 행위적 퍼포먼스, 음악, 다양한 이미지등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이것이 음악이다, 혹은 미술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없고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던 작품이다. 1964년부터 뉴욕에 정착한 백남준은 음악, 퍼포먼스, 비디오를 결합한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Fluxus 운동을 주도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세계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장르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디자인, 동영상, 음악 모두를 포함하여 제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응용해 다양한 변형과 조합을 통해 제작하는 총체적 예술 장르이다.”

미디어 아트의 진화, 멀티미디어 아트

컴퓨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계매체는 역시 컴퓨터이다.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를 열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아트는 1960년대에 시작됐는데 1965년 뉴욕의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에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예술 전시라 할 <컴퓨터로 산출된 그림들>이란 전시회가 열렸고 이것은 컴퓨터와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시회이다.

1970년대 예술가들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예술 작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테크놀로지 자체에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Manfred Mohr, Woody Vasulka 같은 예술가들은 2차원,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작곡가 Herbert Brun은 키보드 신디사이저의 모체라 할 컴퓨터 작곡 도구를 고안했다.

1990년대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웹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의 멀티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거왕Ge Wang의 지휘로 공연된
Prinston Laptop Orchestra

의 발전이 시작된다. 멀티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라고도 하는 이 장르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디자인, 동영상, 음악 모두를 포함하여 제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응용해 다양한 변형과 조합을 통해 제작하는 총체적 예술 장르이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21세기에 또 하나의 혁신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Princeton Laptop Orchestra이다.

컴퓨터, 디지털 아트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악기로 변신

2005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페리 쿡Perry Cook 교수와 그의 수제자인 거왕Ge Wang의 주도하에 수많은 작곡가, 연주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앙상블 음악을 논의하였고 2006년 4월 4일 프린스턴 대학 Richardson Auditorium에서 최초의 Laptop Orchestra 연주를 선보였다^{위키피디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는 예술적 창작 영역의 한계를 무너뜨린 혁신적인 도구였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도구^{tool}로서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연주가 가능한 악기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Laptop Orchestra의 예술사적 의미는 이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Laptop Orchestra의 영향 중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자면 Stanford Mobile Orchestra가 있는데, Ge Wang^{미국 출신작곡가}, 컴퓨터 과학자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한 것으로 모바일 폰에 장착된 앱app을 활용하여 연주를 하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루기에 서툰 비전문가도 연주를 하고 예술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예술 생산자와 수용자에 대한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구의 멀티미디어 아트, 그리고 다원예술

언제나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등 예술 장르를 정의하는 개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이란 틀 속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그 관념들을 깨뜨리는 작업이 예술가들의 몫이고, 이것이 예술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1879년 잡지 <펀치>에 실린 한 장의 그림에서

“다매체 예술단 Ars는
디지털 미디어와
여러 예술 장르의 작업이
어우러져 콘서트와
전시회를 동시에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멀티태스킹의 역량을
갖춘 실력있는
단체이다.”

상상했던 것들, 거기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미디어와 예술이 만나 일어난 진화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업을 통해 끝없이 기존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가치들을 제시해왔고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예술은 각 장르의 개체성이 무너지고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21세기는 전문 분야의 개체성마저 모호해지고 각 전문 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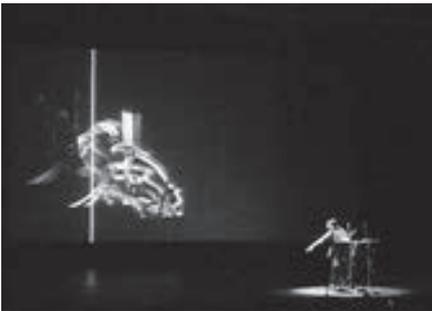
이러한 소통과 통합이 만들어 낸 시너지synergy 현상들이 지금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새로운 예술장르를 개척해왔던 역사 속의 예술가들을 지나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구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다매체 예술단 Ars

작곡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김용규가 단장으로 있는 다매체 예술단 Ars는 2007년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멀티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음악과 인터랙티브실시간 영상이 결합된 작품들을 작곡하고 바이올린, 아쟁, 성악 등 다양한 악기, Jazz 뮤지션들과의 협연을 통해 멀티미디어 아트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이다. 또한 '신매체 대중속으로' 2010년 6월-2011년 11월 공연, 국제보상공원, 봉산문화회관 등라는 공연을 통해 보여주듯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존 케이지 탄생100주년 기념 '우연성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존 케이지를 재조명할 뿐 아니라 우연성 음악의 21세기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있는 공연을 했다.

이들은 또한 '전람회의 음악'이라는 공연을 통해 인터랙티브 컴퓨터 사운드와 영상, 바이올린, 비올라 등 서양악기와 대금, 거문고 등 국악기가 함께 구성된 멀티미디어 음악이 연주되는 콘서트, 그리고 큐레이터 최의진과 함께 김용규의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와 여러 예술 장르의 작업이 어우러져 콘서트와 전시회를 동시에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멀티미디어 아트스트로서 멀티태스킹의 역량을 갖춘 실력있는 단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이올린과 컴퓨터 실시간 영상을 위한 다매체협주곡 2번 Thorem 김용규 작곡, 2006년 대구 문화예술회관 공연



존 케이지 탄생 100주년 기념 "우연성음악 페스티벌 2012" 공연 포스터

4명의 연주자들이 개인의 노트북(laptop)에
프로그래밍해 둔 체널을 서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소리와 영상을
선보인 대구 최초의 laptop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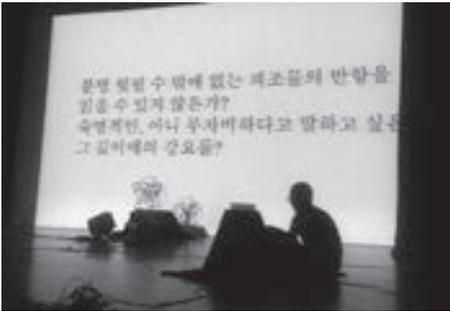
• 다원예술교류연구회ONENESS

다원예술교류연구회 ONENESS는 2013년 4월,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Laptop Ensemble 연주를 대구에서 최초로 선보였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다원예술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이다.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백남준과 동시대 많은 예술가들이 시작한 fluxus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Fluxus란 용어는 1962년 조지 마키나우스(George Macinaus)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 운동, 다양한 예술 형식이 어울린 통합적 예술 개념으로 이해되며 변화, 움직임, 흐름 등의 의미를 가진 플럭서스는 어느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탈장르적 예술 운동이다. 1963년 마키나우스가 쓴 플럭서스 선언문에는 '귀족병에 걸린 지적인, 프로화된, 상업화된 예술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들의 지향점이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예술, 반짝 예술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다원예술과 플럭서스 예술 운동이 만나는 지점이다.

다원예술교류연구회ONENESS의 컴퓨터 시운트 영상. 바이올린의
죽음 퍼포먼스(SELF-PORTRAIT) 2013년 대구 문화예술회관



“다원예술교류연구회 ONENESS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다원예술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원예술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 협업(Collaboration)하는 작업이나 퓨전예술과는 전혀 다른 장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원예술교류연구회에서는 독일 문학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라는 짧은 단편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새롭게 쓴 대본을 바탕으로 컴퓨터 사운드, 영상, 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즉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멀티미디어 아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학 작품 속 작가가 던지는 '예술가의 주관적, 객관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제로한 음악적, 연극적, 미술적 요소가 결합되어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것이 음악이거나 연극이거나 혹 미술, 문학이라 정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탈장르 예술로서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고 극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경험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란 개념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관객들은 무엇이 깊이있는 것이며,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하며 음악, 연극, 미술, 혹은 문학이라는 장르적 카테고리 벗어나 본질적인 의미에 좀 더 가

까워지는 것이다.

다원예술교류연구회는 대구의 근대시대 예술가들의 작품과 21세기의 멀티미디어 아트, 탈장르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를 실험하는 것을 앞으로의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 전자음악협회 새운소리

전자음악 협회 새운소리는 대구에서 전자음악, 멀티미디어 음악 분야의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로 1992년 11월 10일 첫번째 발표회를 시작, 그 후로 2013년 현재까지 총 33회의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전자 음악은 앞서 미디어 아트를 설명하며 잠시 언급했던 독일 작곡가 슈톡하우젠이 <습작 1, II>¹⁹⁵³이란 작품으로 처음 시도한 음악이다. 전자음을 소재로 전자 음향기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완성하는 작업 또는 전자음, 악기음, 인성 등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전자 음향기기에 의한 음향 처리를 수반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 전자음악 협회
새운소리는 매년
공모전을 함께 개최하여
젊은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이 경우는 테이프 음악(tape music), 실험음악(experimental music)이라고 한다. 또한 음향기기만을 이용하여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일렉트로닉 음악(live electronic music) 같은 작업 방식도 포함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컴퓨터 음악, 멀티미디어 아트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전자음악협회 새운소리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낯선 예술 장르의 활동을 일찍이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실험적 무대를 선보이며 대구 지역 멀티미디어 아트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각 대학 전자음악, 컴퓨터 음악 분야의 작곡과 교수들의 모임으로 현재는 약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고, 또한 국내 타 지역의 작곡가들 및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작곡가들과 지속적 교류를 하며 국·내외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청하였다. 또한 매년 공모전을 함께 개최하여 젊은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세은소리 전자음악협회 컴퓨터음악
작품 발표회, 2013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통합,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고,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아르망 트루소, 프랑스의 물리학자

훌륭한 예술을 위해선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고 뛰어난 과학은 예술적 영감과 창조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아르망 트루소의 말은 멀티미디어 아트를 넘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통합, 융·복합 예술이 요구되고 있는 21세기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인용구이다.

전 세계는 지금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통합으로 일어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에 비해 지역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아트, 다원예술등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도나 가치 평가가 낮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서 소개한 아티스트들 외에도 대구 지역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젊고 역량있는 아티스트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대구를 찾는 현상들이 일어나길 소망해 본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음악을 눈으로 보고 미술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레이저, 3D기술 등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 단순한 볼거리 제공만이 아닌 예술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가 계속 창출되길 기대한다. DaeMun

참고문헌

- 《미디어 아트》 정동암 저, 2012
- 《뉴 미디어 시대의 아트:예술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은경 저, 2008
-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클래식음악용어사전》삼호뮤직, 2002

대구건축, 벽 깨기와 신 도시 건축 미학을 위하여

김영대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머리말

이 시대 대구지역의 변모하는 실마리를 보여주는 도시건축적 현상이 있으니, 한옥병원이나 한옥커피숍은 물론 대구예술발전소가 문을 열고, 대구시민회관이 재개관하는 등 도처에 크고 작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년전부터 도시 자체가 시민생활의 터전으로서 녹지인프라 구축 또 도시경관형성 등 비교적 풍부하고 정리된 기반시설을 닦아온 토대 위에 도심의 근대골목이라든지 외곽의 명소들이 하나둘 생겨나왔던 터라, 이런 몇 현상을 본다고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도시를 만들어가는 큰 흐름이 서서히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것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변화가 대구문화를 이끄는 예술적 현상의 하나로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갈 길이 멀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어려운 지역경제 특히 건설업계의 고달픈 현실을 감안하면 건축계 스스로 고무적이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근래 대구 건축현상을 일부나마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찾으려는 자체 점검이다.

벽 깨기

누구나 싫지 않는, 아니 나아가서 원하는 우리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벽을 깨는 것이다. 그것은 한계나 방해물 물리치고자 장애를 깨어

(좌) 김수현, (우) 김민준



부수려는 극복의 바람이며, 더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의 틀이나 잘못된 관성의 힘을 고치고 바꾸려는 개선의 의지이다. 덤으로 깨치고 새로운 것을 얻는 깨달음도 있으니, 이번 특집의 화두라 할 “벽을 깨다”라는 의미는 거듭나고자 하는 대구문화예술의 하나로써 건축계의 바람과 의지의 되새김질인 셈이다.

그런데 벽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세상을 분할하여 독립성과 개별성을 확보해주고 소우주의 창작과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진화할수록 다양성을 담보로 하며, 개개의 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다양성 자체도 존재할 수 있다. 벽 없이 모든 것이 하나이고 한 통속이라면, 그것은 원시 단세포의 상태일 뿐이다. 물론 이 벽은 소통을 전제로 존재해야한다. 벽이라지만 아이디어가 넘나들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공생 관계가 되어야 전체로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한 유기적 구조체가 된다. 이러하니 벽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벽이기에 깨야하는가. 크게 보면 사회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벽은 이제 우리 자체가 되어버린 듯하다. 일찍이 “담장허물기사업”이 대구에서 시작된 애향운동임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

다. 우리는 커진 담을 그만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담은 건축의 장르와 장르 사이에 또 양식과 양식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설계, 조경 등 타 분야사이의 벽 또한 매우 엄연히 버티고 있다. 나아가서 건축전문가와 시민아마추어 사이에도 벽은 존재한다. 결국 사회집단에서도 그러하듯이 늘 우리 시대사회에서 소통과 상생을 그만큼 외치듯이 벽은 우울하게 가로막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하니 막힌 것을 뚫고 서로 통하기 위해 우리는 벽을 깨야 한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별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형상의 전체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약속해야 한다.

이제 현대 대구지역 도시건축계의 현상 일부를 건축예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현상 1.

삼덕동의 임재양외과는 한옥병원으로서 시민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침단의술을 구가하는 기능 위주의 여성전문병원이 전통한식가옥에서 가능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롭게 보인다. 정원도 있고 근대건축양식과 같은 별채도 있지만, 한옥 본체는 오히려 여성전문병원의 분위기를 더 살려준다. 작은



한옥마을
관공영박물관

중정은 비록 덮개도 있고 전통적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 자체도 보기에 따라 살기 편하게 꾸려온 세간의 기와집 마당을 닮았다.

근대건축이 기능위주로 집의 형태와 공간을 만들었고 심지어 지역성을 극복한 국제주의적 건축도 만연하였기에, 현대에도 늘 부닥치는 케케묵은 쟁점의 하나는 기능과 형태의 관계이다. 의도하는 여러 기능을 나열하여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고 그에 걸맞은 공간을 구성하고 연결하고 생성하는 방식은 철저히 계산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미 깔려있다. 그러기에 서구의 건축은 기능으로 방을 구획하고 분화시켰던 것. 허나 달리 보면, 그러한 고정된 공간이 인간행동을 고정시킬 수 없고, 환경이 인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듯이 우리는 공간이용의 선택권을 확보하려하고 벽과 담을 뛰어넘으려 한다. 오히려 프로그램건축이라 할까, 공간이 주어지는 대로 만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고 특히 좁고 고밀도사회에서는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한옥병원이 딱 반갑긴 하지만, 타지에서는 이미 너무나 자연스레 생겨나고 있었다. 서울 북촌이나 가회동의 전통기와집들은 여러 상업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심지어 박물관으로 변모하고 있

“대건축이 기능위주로 집의 형태와 공간을 만들었고 심지어 지역성을 극복한 국제주의적 건축도 만연하였기에, 현대에도 늘 부닥치는 케케묵은 쟁점의 하나는 기능과 형태의 관계이다.”

다. 타지현상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입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통건축의 현대적 공간화는 큰 흐름이다. 다만 우리도 자부해야 할 것은 이 한옥병원은 신축건물이라는 것이다. 차원이 조금 다른 셈이다. 원장 주인의 발상과 그 용기가 대단하다. 아울러 종로1가의 “가미박물관”은 우리 전통과 기방문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장소로서 근대골목투어의 한 꼭지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그 집 사장은 도심 속에 새롭게 전통한옥을 지어 한식당을 만들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하듯 대구의 의식 있는 사람들의 한옥 사랑과 그 멋진 계승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현상 2.

대구예술발전소는 ‘근대산업유산의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의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기치를 내걸고 오랜 시간 준비작업 끝에 마침내 문을 열었다. 공원 속에 큰 터를 잡고 번듯하게 신축하였던 대구문화예술회관이나 대구미술관과 달리 이 발전소는 수창동의 을씨년스러운 길모퉁이에 헌집을 고쳐 지어 자리를 겨우 만들었다.

KT&G 별관은 그 자체가 행할 정도로 우직하

고 너무나 솔직한 구조체였다. 이 창고는 집꾼의 편한 보행을 위해 계단 폭을 좁힌 디테일에서는 오히려 숙연해지는 근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외관은 되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활하듯 새로 태어났으니, 결코 예술적이거나 문화적이지 못한 주변여건 때문에 대구의 지역예술현장에 과감히 뛰어든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물론 그렇다고 아담한 도시지역이나 자연의 숲속이 더 예술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아마도 치열한 예술창조의 현장은 그 환경조건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관람객으로서는 뭔가 생경스러운 주변 도시풍경이 예술현장에 있다는 자극을 주는 것만 같고, 따라서 대구예술발전소에 들어가면 반대급부로 뭔가 치열히 노력해야 하는 분위기를 받게 된다. 산업유산을 그냥 허물지 않고 재활용한 사례는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큰 각광을 받지만, 기실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기억과 창조의 문화”운동이다.

2002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서울 한강 속에 있는 선유도공원은 쓸모없게 된 옛정수장시설을 재활용하여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일종의 도시문화공간이다. 가장 성공적인 서울의 재활용공간으로서 가히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여러 도시에서



대구예술발전소 전경

여러 산업시설들이 새롭게 변신을 거듭해왔다. 심지어 군산의 경우, 옛 항구의 주변에 일제강점기시대 건물을 재활용하여 찻집은 물론 주변거리를 예스럽게 복원하였다.

아무튼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에서는 새로운 시도 그 자체이다. 포정동의 대구근대역사관도 유사한 결과이지만, 현장의 치열함은 견줄 바 못된다.

진단

먼저 따져야 할 이슈는 재생이다. 한옥병원은 민간부문에서 한옥이 지닌 기능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재현사례라면, 대구예술발전소는 공공부문에서 근대산업시설이 변모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재생사례이다. 두 건축이 추구한 방법이나 구현한 미학은 비록 다를지라도, 대구지역에서도 시대적 건축경향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즉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기여로서 단순한 외형이나 물량중심의 재개발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그 지역성이 보전되면서 옛 기운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려는 도시재생의 순정한 시도이다.

“도시건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도시의 사회공간적 틀과 시간적 맥락을 존중하는 가운데, 건축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기법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미 현대도시는 개발위주의 도시 확장추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도시인구문제나 도시경제 차원에서도 기존의 도시구조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 도시조직, 즉 그 알맹이를 새로 채우거나 다듬어가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전란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대구의 원도심은 기능을 다시 조정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는 재활성화와 재생의 도시개발기법이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도시건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도시의 사회공간적 틀과 시간적 맥락을 존중하는 가운데, 건축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기법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임재양외과의 한옥공간에서는 웬지 낮익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감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병원건축의 예술미 아니겠는가. 대구예술발전소의 내부에서는 현장의 두근거리는 박동소리를 듣는 듯하다. 이 또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어떤 기대 속의 미학일 것이다. 두 건축은 메마른 도시의 일상에서 웬지 훈훈해지고 친밀하면서도 새롭고 아득한 흥분을 일깨워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대구지역사회에서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새로운 건축미학이 절실하다는 그 어떤 변화감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기대는 우리 사회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시대에 속도와 시각은 매우 지배적인 현상이다. 굳이 온라인이라든가 사이버공간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각”이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고, 비주얼 즉 그림이 글이나 문장 등 그 어떤 의사표현매체보다도 분명하게 전달성과 호소력을 지닌다. 동시성은 참여와 낙오를 극단적으로 가른다. 시각성은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강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건축은 나름 똑똑해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으로 빠져들어야 할 것이다. 한옥병원은 그 나름대로 스마트한 사례이다. 온갖 가능성과 기술력을 가졌는데, 한옥 혹은 크게 보아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어디 여전히 난해한 일이겠는가. 그 추상적 혹은 정신적 가치의 재창출이라는 큰 과제가 아닌 다음에야, 한옥을 병원으로 쓰는 심미적 시도는 경제적 소득을 일부 포기하면서 우리 문화를 되찾는 용기, 그래서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같은 희망추구가 아닐까.

또 다른 이슈는 융합의 과제이다. 이 시대 범람하는 용어 중 하나가 통섭과 공생 즉 융합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만큼 그간의 벽이 높고 막혀서 이제 허물고 소통해야 할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각각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고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

“건축미학이라 함은 예술로서의 건축에서 좀 더 넓게 보아서 대구만이 지니고 갖추어야 할 도시적 규모와 상황에 적절한 건축미학, 즉 도시건축미학이라고 하겠다.”

무지 풀리지 않기 때문인가. 융합은 여러 것이 함께 어울려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다.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서 함께 추구하여 공동의 선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이에 때로는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는 것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 새롭게 작용하여 상상 밖의 것을 발현하게도 해준다. 이런 점에서 융합은 근대 기능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구조라 할만하다.

그런데 융합의 큰 그림을 누가 리드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칫 시너지효과는 놔두고, 비록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서로 경쟁이 되기 십상이다. 좁게 보면, 통섭이 특히 그러하다. 한때 학제적 접근이 큰 각광을 받았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학문과 기술 분야의 연구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전문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보조를 맞추어 추구하는 일이다. 그 다음 등장한 다분히 시사적인 개념이 곧 통섭이다. 마치 생태계의 원리처럼 통섭은 개별을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자는 것 아니겠는가. 더불어 학제적 접근에 이어 학통적 접근도 나타났다. 학통적 접근은 내가 네가 되고 너도 내가 되어 서로 오가며 추구하자는 것이다. 감정이입의 실무적 차원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융합, 통섭, 학통은 결국 답

대구예술발전소 유산관련
연예사진



을 깨고 소통하여 서로의 역할을 발휘하고 그에 걸맞은 이익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함께 창조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선을 의도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할지 결정하는 일, 또 분야를 오가며 조정하며 총괄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일은 자칫 외면은 물론 따돌림까지 당할 수 있다. 특히 한 우물을 파야한다는 고유한 추진방식이나 보수적 지역성은 자칫 그 자체가 답이 되기도 한다. 도시와 건축과 조경과 환경 등의 전문분야가 함께 아우르고 발휘하여 마치 관현악의 합주와 하모니를 구사해야 하는데, 누가 지휘를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신도시건축미학을 위해

한옥의 다양한 변모나 근대산업시설의 재활성이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또 보다 창의적인 문화부흥의 촉진제로 작용하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새로운 도시차원의 건축미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건축미학이라 함은 예술로서의 건축에서 좀 더 넓게 보아서 대구만이 지니고 갖추어야 할 도시적 규모와 상황에 적절한 건축미학, 즉 도시건축미학이라고 하

겠다. 이제 절실한 대구신도시건축미학을 위해 먼저 마치 벽을 깨듯이 떨쳐버려야 할 것이 몇 있다.

1. 형식적 전통으로부터의 탈출하기

전통건축이나 역사적 유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문화재복원은 엄밀히 보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유사하게 만들 뿐이다. 이미 송례문복원사태에서 값진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이제 전통건축은 전통건축대로 짓되, 다양한 쓰임새를 연출하듯 만들어내어야 한다. 새롭게 거듭나는 현대화한 전통건축은 자칫 매우 전통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새로운 기법도 개발하고 변형과 양식을 실험하며 나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정신유산의 계승이 되어야 한다.

2. 강요된 현대화에 대한 미련 버리기

도시의 부분마다 역사적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시대적 유산과 흔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대구에는 16세기도 있고 19세기도 있으며, 아예 삼국시대 이전도 존재한다. 미학적 관점에서 도시 전체가 꼭 같이 나아갈 수는 없다.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또 그렇게 도시가 존재하는 것은 어디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과거의 건물의
재활용하는 노력은
기존의 도시 틀 속에
안정적이라 해도
큰 외양적 변모 혹은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에도 없는 고유한 가치다. 문제는 그 속의 도시민도 그렇게 살아야하는가 하는 점이고, 이런 뜻에서 변용은 거의 필수적이다. 또한 근대건축이나 근대골목 등 일부가 일제강점기의 흔적인 경우, 자칫 과거의 향수 자체가 어색해질 우려도 있고 정체성의 문제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3. 매끈함에 대한 애착 버리기

대개 그러하듯 현대에 살아남은 옛 건물은 순수할 정도이며, 나름 질박미를 지니고 있다. 용도폐기가 가져오는 버려짐은 건축에서 잔존할 수 있는 최후의 근본적인 것, 대개 골조나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 재빠른 현대인에게 전혀 다른 미학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에서도 볼 수 없는 인조물의 시간적 표출이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사회생활에서 도시는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잘 다듬어진 반듯함을 제공해야 한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기 어렵다. 질퍽한 마당이나 거친 벽은 질감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기도 전에 없애 버린다. 그러하니 수수하고도 거친 폐허의 미학이야말로 대구가 챙기고 지켜야 할 고유한 아름다움의 하나다. 왜냐하면 경상도의 기질과 통하니까.

4. 크기에 대한 아쉬움 버리기

대구의 대부분 지역이 그러하지만, 특히 구도심은 고층건물과 단층건물이 뒤섞여있다. 한두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 흔히 도시의 발전이나 개발양상은 초고층건축의 스카이라인이 삼각구도를 이루듯 하늘을 뒤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선진외국 도시를 보며 부러워했던 우리의 콤플렉스였다. 허나 잘 사는 도시도 앞선 도시도 꼭 그런 모양은 아니다. 심지어 도심지가 없는 도시도 버젓이 잘 살고 또 아름답기도 하다.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과거의 건물의 재활용하는 노력은 기존의 도시 틀 속에 안정적이라 해도 큰 외양적 변모 혹은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 도시에서 집과 길의 크기와 규모와 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콘텐츠와 질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 일찍이 환경론자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

맺는말

창조적 활동, 특히 건축미학의 창작과 구현은 왕성한 실험정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사회에서는 실험정신이 존재하지 않는지. 극과 극이 통하듯 오히려 안정적이고 보수적 집단에서 새로움을 더 갈망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록 작지만 획기적인 실천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두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시간과 공리를 거쳐 완성된 건축미학을 보면서, 결코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대구다운 실험정신은 비록 한 걸음 늦을지라도 실컷 재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실수는 절대 없이 조금씩 내보이는 매우 단단하고 속 깊은 미학이다.

이제 쉬임과 다름을 받아들이고, 본질에 더 다가가는 진정성을 갖추어, 우리 대구가 지녀온 고유한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는 일 - 대구 신도시건축미학의 첫걸음이다. 한옥병원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다. DaeMun

2013 대구지역 문화예술계 10대 뉴스

김수영

영남일보 기자



01 2013년 (재)대구오페라하우스가 본격 출범했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대구오페라하우스 전경

01 / 대구오페라재단 출범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르 중 하나는 오페라다. 그래서 지역에는 오페라전용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예술단 중 하나인 대구시립오페라단, 올해 11년째를 맞은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이들 3개 단체가 지역오페라의 중심역할을 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구오페라재단이 2013년 말 공식 출범했다. 오페라재단의 출범은 몇 년전부터 진행돼왔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드디어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들 3개 단체로 분산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오페라재단이 출범함으로써 대구오페라의 역량을 좀더 높이는 것은 물론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13년 8월 초 대구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9월 창립총회, 10월 중순 이사회를 거쳐 10월 말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이어 대표를 임명하고 12월 28일 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초청 음악회도 가졌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토대로 완성도 있는 연출, 실력있는 오페라가수 발굴,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기획을 통해 오페라 기획과 제작의 일원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또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참신성, 경험을 갖춘 정예화된 집행조직을 만들어갈 뜻도 다졌다.

재단법인의 유연성을 활용해 상황에 적합한 능동적인 조직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상류소비층을 형성해 예술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혜택을 일반시민 및 예술애호가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02 / 대구미술관, 쿠사마 야요이전 성공 개최

지난해 7~11월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개인전이 대구미술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남겼다. 정확히 96일간의 전시기간에 33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공연은 대박이 있어도 전시는 대박이 없다'는 지역문화계의 일반적 상식을 깨뜨려 버렸다. 이번 전시 관람객의 수치는 일평균 3만 5천명, 주말평균



02 석달의 전시기간에 33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대구미술 역사를 새롭게 쓴 쿠사마 마요이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03 대구예술발전소가 독일의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인 ZKM과 지난 10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한 모습

5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런 기록은 그동안 지역미술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전시기간동안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100m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는가하면, 대구미술관의 넓은 전시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서 작품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구아트페어,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에 몇만명이 찾는 예는 있었지만 단일작가에 이런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은 대구미술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전시의 경우 대구만이 아니라 지역 인근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대구미술관과 지역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시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쿠사마 마요이라는 거물급 작가의 전시라는 점도 있지만 대구미술관의 마케팅 전략도 좋았다는 분석이다. 쿠사마 마요이 전시의 경우 서울의 미술관이나 화랑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것인데, 대구가 유치를 했다는 점에서 대구미술관의 기획력이 개관 3년 만에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신생미술관이라 재정적으로나 인원 등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선희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뚝뚝 뭉쳐 전시를

성공시켰다는 것이다.

대구미술관측은 이번 쿠사마 마요이 전시의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형급 작가들의 기획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해 대구미술관을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03 / 대구예술발전소, 독일 영상미디어센터 ZKM과 MOU 체결

대구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와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2년 문을 연 대구예술발전소가 지난 10월 세계 3대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이 독일 ZKM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구지역 영상예술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상예술분야는 최근 세계 전시 흐름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지역에서는 공연이나 미술분야 등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ZKM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기존 일반화된 공연, 전시 중심의 지역예술계 판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ZKM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04 2013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구예술발전소 전경

15일까지는 국내외 유명 영상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보여주는 기획전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기도 했다. 또 ZKM 수석큐레이터를 초청해 특강도 펼쳤다. 대구시는 앞으로 ZKM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영상예술은 물론 다른 예술분야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또 지역을 포함한 국내 영상예술분야의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육성해 해외에 진출시킴으로써 글로벌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도 보였다.

04 / 대구예술발전소 본격 가동

지난해 말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등을 통해 시험가동에 들어갔던 대구예술발전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창조적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과 연계된 창의적 환경을 구축해 구도심을 재생하고 대구를 문화창조도시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다. 단순한 공연장, 전시장의 틀을 벗어나 여러 장르의 예술이 융합되고,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구예술발전소의 큰 운영방침이다. 기획행사 등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복합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 중심으로 진행했다. 대구예술발전소의 활동 중 올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Ten-Topic Project'로, 대구예술발전소가 다른 문화공간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개모집을 통해 10개 장르의 20여개 팀을 선정한 뒤 이들 청년예술가들이 예술발전소에서 입주생활을 하면서 실험적인 융·복합적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대구예술발전소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인 '대구예술발전소-수창동에서'가 펼쳐졌는가하면, 12월에는 대구문화재단이 1970년대 대구를 한국의 현대미술중심으로 만들었던 '대구현대미술제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구미술의 저력,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획전도 열어 주목을 받았다.

05 / 대구시민회관 개관

대구시민회관이 지난 11월 29일 콘서트전용홀로 재개관한 것도 올해 지역문화예술계의 핫 이슈가 됐다. 1975년 문을 연 대구시민회관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오랫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개관



05 2013년 11월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재개관 기념공연의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



06 올해 지역문학계에서 여성문인들이 문학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올해 지역의 문인단체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은 박지영 시인(왼쪽)과 류인서 시인(오른쪽)

30년이 넘으면서 시설이 노후한 것은 물론 교통이 혼잡한 시내에 자리잡은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요인이 돼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는 듯 했다.

이에 대구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콘서트 전문홀로 시민회관을 재단장했다. 총 사업비 559억원이 투입되어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6천 793㎡의 규모로 완공됐다. 1천석 이상의 대형극장인 그랜드 콘서트홀^{1천 284석}을 비롯해 소극장인 챔버홀^{248석}, 전시실, 대구시립교향악단·대구시립합창단 등의 상주예술단체의 연습실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민회관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 최초의 콘서트 전문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그랜드콘서트홀은 국제적 수준의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 시민회관 측의 설명이다. 개관기념공연 등을 통해 콘서트 전용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은 대구시민회관은 음향시설 등의 측면에서는 평균점 이상을 받았다. 극장을 잘만 운영한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콘서트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대관장으로 취임한 배선주 관장의 경우 대구오페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은 만큼

앞으로 시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배 관장은 언론사와의 취임인터뷰에서 시민회관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친근하면서도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대구시향과 대구시립합창단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연주단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06 / 대구지역 주요문학상 여류문인 휩쓸어

올해 대구지역 문학관련 단체에서 시상하는 주요문학상을 여류문인들이 휩쓸어 지역문학계에서의 여성파워를 확인케 했다.

대구문인협회가 연말에 한해동안 왕성히 활동하고 좋은 작품을 보여줬던 지역문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구문학상'과 '대구의 작가상'을 모두 여성문인들이 거머쥐었다. 대구문학상 수상자로는 박지영 시인(시부문)과 남영숙 수필가 수필부문이 선정됐다. 박 시인은 '대구문학' 102호에 발표했던 '쫄쫄해진 사과', 남 수필가는 '대구문학' 100호에 실린 '연리지'로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의 작가상은 박이화 시인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11



07 대구공연정보센터 dgtickets

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간된 22권의 시와 시조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박 시인의 시집 ‘흐드러지다’천년의 시작가 제4회 수상작품으로 뽑혔다.

대구시인협회가 시상하는 ‘제23회 대구시인협회상’과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구지역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2회 국제펜 대구아카데미문학상’도 여성문인들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구시인협회상은 시집 ‘신호대기’문학과지성사를 펴낸 류인서 시인, 국제펜 대구아카데미문학상은 수필 ‘역풍경’이란 작품을 쓴 허정자 수필가가 각각 수상했다.

이같은 여성문인들의 약진은 여성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동안 취미처럼 글을 쓰던 아마추어문인들이 많았던데서 본격적인 문학가로서의 치열한 작품정신을 보여준 여성문인들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한 중견시인은 “예전에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시간 여유가 있는 중년주부들이 취미삼아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이 다양한 문학강좌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대학의 관련학과 진학 등을 통해 프로문인으로서의 역량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지역문학계에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07 / 대구공연정보센터 구축, 운영

‘공연예술도시’를 슬로건으로 단 대구시가 공연산업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국내 첫 상설 공연정보센터인 ‘dgtickets’를 만들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 설치한 공연 정보 및 공연 티켓 판매센터이다. 중구 동성로에 들어선 이 공연정보센터는 대구에서 열리는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회 등에 대한 다양한 작품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티켓까지 판매하는 원스톱형 시설이다. 당일 공연 티켓의 구입뿐만 아니라 예매도 할 수 있다. 특히 당일 공연 티켓을 최고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 공연정보센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티케츠 TKTS’를 본떠 만들었다. 공연장 밀집지역인 브로드웨이에 들어선 티케츠는 당일 열리는 공연의 빈 좌석을 할인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서 착안해 대구시가 만든 것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공연정보센터와 지역 공연단체, 공연장, 기획사 등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연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보고 싶은 공연의 티켓을 쉽게 구매하는 것은 물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대구가 공연산업의 지역거점지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대구시민들에게 저



08 2013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공연작 중 하나인 오페라 '운명의 힘'의 공연모습



09 2013년 착공에 들어간 대구문학관 조감도

럼한 공연티켓을 제공함으로써 공연 관람기회를 더 많이 쥐고극적으로 공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08 /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성공 개최

11회째를 맞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성공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문화계의 성과였다. 2013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제는 '프리미에르(Premiere)'. 이는 초연, 처음, 앞서가는 것 등을 의미한다. 올해 축제는 이 의미에 충실하게끔 꾸며졌다. 지역에서 첫선을 보이는 작품, 대구오페라의 역사를 시작한 작품 등 처음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의 거장인 베르디와 바그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작품들도 공연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의 개막작인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은 대구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한 베르디의 작품 '돈 카를로'도 대구 초연으로 공연됐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이 제작한 오페라 '토스카'는 2013년 오페라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이탈리아 현지 극장의 작품을 대구에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 것은 물론 현존하는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는 다니엘 오렌이

직접 선택한 정상급 성악가들을 데리고 첫 내한공연을 펼쳤다는 점에서도 지역문화계 안팎에서 주목을 이끌어냈다.

다니엘 오렌의 경우 이번 국제오페라축제의 공연에서 그의 명성에 걸맞는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지휘를 보여줬을뿐만 아니라 지역 성악가는 물론 지역예술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지역은 물론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09 / 대구문학관 착공

대구문학관이 1월 공사착공을 시작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대구에는 근대와 현대문학사의 주요한 거점도시이자 시인 이상화·이상희, 소설가 현진건 등 걸출한 문인들이 다수 배출한 문향의 도시이다. 대구문학관은 이같은 지역문화가 태동한 발자취를 보존하고 문향의 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0년 대구문학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10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행사모습

사진 제공_영남일보

2011년 4월 대구시, 중구청, 우리은행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옛 상업은행 대구지점^{중구 중앙대로} 자리를 최종 대구문학관 부지로 확정했다. 이 곳은 근대문학의 태동기에 지역의 문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또 인근의 이상화고택, 대구근대역사관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역사적 건물들과 함께 연계해 지역대표 문인골목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테마형 문화관광명소로 키우겠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문학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문학관 안에 소장될 콘텐츠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그해 12월 최종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 1월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은 2014년 4월 예정이다.

대구문학관은 중구 향촌문화관과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데, 향촌문화관은 1층과 2층, 대구문학관은 3층과 4층에 자리한다. 3층에는 대구문학전시실, 명예의 전당^{이상화, 현진건, 이장희의 방, 영상관, 체험관이 들어선다.} 4층에는 문학서재, 동화감상방, 동화구연방, 기획전시실, 세미나실이 마련된다.

10 / 시민 축제로 거듭난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지난 10월 11~13일 중앙로, 동성로 등 대구 도심에서 열린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이 시민의 축제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도 올해 지역문화계에서 눈여겨볼만한 이슈였다.

올 행사는 공연은 물론 아트마켓,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컬러풀퍼레이드가 마련됐는데,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5만여 명의 관객들을 불러모으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12~13일 양일간 반월당네거리, 동성로,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된 컬러풀퍼레이드에는 전년^{44개팀} 648명에 비해 참여자가 큰폭으로 늘어난, 총 72개팀 2천 여명이 참가해 이 퍼레이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부, 일반부, 구·군부, 초청팀 등으로 나누는 등 행사를 좀더 조직적으로 잘 기획한 것이 좋은 성과를 내게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퍼레이드의 메인구간인 중앙네거리와 반월당네거리 구간은 대구를 상징하는 '창조사과'를 활용한 '거리환경장식'과 '미디어아치'를 설치해 잊혀져가는 대구의 사과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상징물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DaeMun



대구예술의 힘

연극_영원한 연극인 김홍곤, 우리의 위대한 멘토

영원한 연극인 김홍곤, 우리의 위대한 멘토^{mentor}

권원순

홍해성기념사업회장



故 김홍곤 교수



1. 대구 문화풍토와 연극

현실^{actuality}보다 허구^{figment}에서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찾음으로써 현실을 다시 보고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예술인들이다. 특히 연극인은 이런 태도로 하여 어느 곳, 어느 시기에나, 심지어 풍요로운 시기조차 악전고투하는 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하고 있다. 언제나 시대를 역행하며 그 시대, 그 사회가 엮어내는 비인간적인 힘과 대결하고 어둠을 걷어내며 모순을 고발하는 이들의 허구적 일생은 평범한 일상인과는 다른 비극적 요소를 잉태하고 있기 마련이다.

대구 특유의 전통성과 보수성도 그러하지만 특히 송문사상^{崇文思想}은 예기^{藝妓}를 천시^{賤視}하여 오늘날 대중예술의 뚜렷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는 대중문화 사회에서 대구 출신의 배우, 연예인, 가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허구를 욕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려는 예술의욕^{Kunst Wollen}이 있다. 김홍곤¹⁹²⁶⁻¹⁹⁷⁷은 전통과 보수와 송문에 의해 차단된 척박한 풍토에 연극의 씨를 뿌리고 꽃피운 대구연극의 스승이요 참 연극인이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23년을 극작가, 연출가, 희곡 강의로 연극에 정열을 쏟았고 길러낸 많은 제자들이 대구연극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 연극인으로서 짧게 살다 간 그의 일생을 조망해보는 것은 어려운 시대의 우리들의 삶과 대구연극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에 있다.

2. 가정과 가족

김연수와 점미연의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경북중학교^{6년제}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에 영어를 가르치는 반복적인 생활에 자기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회의에 빠져 있었다. 이는 바로 연극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것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여석기 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를 통해 연극을 알게 되었고 연극이야말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연유^{緣由}한다.

27세의 대학원생이던 그는 같은 대학 사범대학 생물학과에 다니던 이복주와 결혼한다. 미모의 아내 친정은 명문집안이었다. 아버지 이규한은 일찍이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대륜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큰 오빠 이종하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법대 학장이었으며 경북대학 경제과 교수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의 아버지이다. 둘째 오빠 이종수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종수 외과의원 원장이었고 셋째 오빠 이종구는 니혼대학 졸업 후 제일여상 교장이었다. 28세 되던 1953년에 그는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때가 명문집안의 아름다운 외동딸과 결혼하고 대학 교수가 되어 본격적으로 연극을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일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희망에 벅찬 시기였다.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는데, 장녀 정희는 현재 포항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의 부인이고 차녀 김정원은 경일대학교 예체능대학 뷰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 아들 창진은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도미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UCLA}대학 기계공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3. 술이 가져다 준 행복과 불행^{不幸}

김홍곤 교수를 두고 술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 안정되고 행복한 분위기 때문인지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다. 호탕한 성격의 그에게 있어 술은 활기를 불어 넣는 정력제였다. 술에 얽힌 에피소드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연극으로 가까이 지나던 나는 강의 시간에 이마에 붙인 반창고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물었다.

“선생님 그때는 교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마를 어떻게 하시다가 다쳤습니까?”

“아,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대문 철조망에 받혀서……”

이들이 멀다 하고 또 이마에 반창고다. 그 이후론 묻지 않았다. 술에 취해 들어가다 같은 사고를 또 내었으니 자꾸 물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연극연습을 마치고 출연 학생들과 술집을 들렀는데 열심히 마시던 선생님이 그만 취해버렸다. 학생 둘이 어깨를 메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집안에 들어서자 큰 소리로 “이복주”하고 사모님을 부르더니 요강을 가져오라고 호령을 내렸다. 대령하자 우리더러 바지 자크를 내리고 오줌을 누게 하란다.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다.

그가 열심히 찾던 술집은 대구백화점 건너 골목길 입구에 있는 흑토 클럽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홀엔 언제나 주객들로 만원이었다. 술꾼에게는 술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거기서 지인들을 만나고 옛 이야기, 학교 이야기, 시국이야기, 예술이야기로 왈자지껄한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도 늘 연극이야기를 하고 또 공연을 구상하고 있었다. 저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강의 준비는 언제 하는지 궁금하였다. 그러나 경감 한 번 없었고 여름방학에 연구실에 들렀더니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바지를 걸어 올리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이렇게 남이 노는 시간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남이 공부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는구나. 나름대로 술을 마시고 연구하는 생활철학을 갖고 계셨구나 하고 한



권시울
민



권영근

참 후에야 깨달았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나는 선생님 술집 순례에 곤혹을 치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문 닫은 술집 문을 두드리고 주모를 깨워 한 잔 하고 얘기를 나누다 다시 다른 술집으로 향했다. 어느 날 통행시간이 지나 덕산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꼭 파출소에 인사하고 가잔다. 끌려 파출소에 들어갔더니 순경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집까지 데려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곧장 가까이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뒤에 듣고 보니 집으로 가다 소변이 보고 싶으면 순경을 세워두고 하수구에 소변을 보곤 했단다. 단골손님으로 이미 친숙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술은 선생에 있어 잡다한 세상사를 잊고 머리와 몸과 연구와 연극을 활성화하는 충전제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가정이 안락하고 술을 즐겨 마시던 진솔한 모습의 그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즉 1976년 3월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생인 같은 과의 김영희 교수가 총장이 되면서 교수 재임용제도가 생겼고 그는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품위손상'의 이유는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희 총장을 공공연히 욕하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51세의 한창 나이에 직장을 잃어버린 그의 음주는 폭주가 되고 일상은 사정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울분과 한탄의 술이 생명의 독이 되고 학문과 연극을 앗아 가는 지름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1977년 6월 25일 1학기를 마무리하고 감기가 오래 낫지 않아 친구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간경화. 본인만 모르고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 경북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갔더니 팔에 주사기를 꽂고 상체를 일으켜 반기면서 하는 첫 마디. “요즘 흑토에 누가 나오더냐?” 병명을 모르던 나는 잠시 앉았다가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병실을 떠났다. 일주일 쯤 지나 재차 방문했더니 병상이 비어 있고 퇴원하고 계시지 않았다. 그 후 15일간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운명하셨다. 지난 주 병상의 선생이 나에게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운명하신 것도 모르고 자택도 몰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1977년 더위가 한창일 무렵인 8월 16일 침산동 자택에서 빛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영문학과 연극의 나의 영원한 멘토mentor, 김홍곤 선생님!

4. 연극

그의 연극인으로서의 출발은 1958년 서울 신문과 국립극장이 주최한 장편희곡 현상공모에 작품 「우물」이 당선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물」은 같은 해 3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이진순의 연출로 국립극단 제10회 공연으로 국립극장에서 공연되었고 이어 10월 24일 영남대학교 극회에서 최현민 연출로 대구 키네마 극장에서 막을 올려 호평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 하의 어느 시골. 면장에 입후보한 아버지는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마을에 우물을 팠다. 그리고 선거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자집 아들과 자기 딸과의 정략적 결혼을 획책한다. 그러나 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녀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을 빚는다. 아버지의 강요에 고민하던 딸은 끝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 빠져 자살해 버린다. 결혼이 무산되고 재정지원의 줄도 끊기고 우물물은 못 먹게 되었다. 결과는 선거에 실패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연극의 주요 요소인 아이러니^{irony}와 갈등^{conflict}을 극대화 하여 리얼리즘의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당시 사회에 만연한 권력욕, 부조리, 부정 등을 비판 것으로 이는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사회에 항존^{恒存}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예리한 시각적 언어요, 통렬한 비판의 교훈으로 남아진다.

그의 유일 장편극 작품인 「우물」이 국내 유명 연출가들에 의해 연이어 공연되자 지역 각 대학의 초청 연출이 쇄도하였다. 이로부터 1960년대는 대학극이 활발히 전개되고 미래 대구연극의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연출한 주요 작품은 「죽은 아버지」^{고통 작. '60. 11 효성여대}, 「작은 사랑」^{존 골드워즈 작. '60. 11 경북대}, 「건빵과 제대군인」^{작자 미상. '61. 경북대}, 「고래」^{유진 오닐 작. '62. 경북대}, 「줄리어스 시저」^{셰익스피어 작. '65. 11 영남대}, 「엄마의 모습」^{캐서린 포 작. '67. 5 효성여대 주최 대구KG홀}, 「오페라」^{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67. 계명대학}, 「고래」^{유진 오닐 작. '68. 11 경북대}, 「로미오와 줄리엣」^{셰익스피어 작. '68. 5. 효성여대}, 「5일간」^{헨리 지크 작. '76. 5 계명대 외 수많은 작품}들을 연출하였다. 그의 연출 작품들은 셰익스피어의 고전극이나 외국 작가의 작품이 전부이다. 대학극이 활성화되면서 탄탄한 연기력과 연극이론으로 무장된 연극인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극단을 창설하여 대구 연극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놓았고 기성 극단에 가입하여 연극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였다. 권원순^{홍해성 기념사업회장}, 박상근^{전 경북·대구연극협회장}, 서영우^{대구·경북연극협회 이사}, 신충식 등은 선생의 지도를 받은 경북



대 제자들이며 하병천, 전대웅, 김원중, 김삼일, 이필동, 홍문종, 채치민도 연출법과 문학세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 그의 연출 작품들은 거의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인데 플롯Plot을 해설하는 식의 음악효과music effect와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브리지 뮤직bridge music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리얼리티의 부각에 무게를 둔 연출법이었다. 대구연극사에 있어 김홍곤의 연극적 업적은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대구연극의 들녘에 고독히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오늘의 대구를 연극·뮤지컬의 공연도시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한 것은 그의 연극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5. 우리에게 남긴 것

김홍곤. 그는 애당초 경제관념이 없는 분이며, 완전 기본파로 격식을 싫어하는 실용주의자였다.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 모습 뒤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철저함 그리고 인간적 진실함이 숨겨져 있었다. 술에 젖은 커튼 뒤의 무대에는 술과 연극과 진실한 인간이 고인이 된 김홍곤의 삶의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 종소리와 함께 객석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제가 아버지께서 연극을 연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배우의 연기가 시원치 않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생소한 표정과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연구에 깊이 빠져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고 창작과정의 고통이었죠. 그 열정을 제 속에서 느낄 때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제가 새로운 기계를 머리 속에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밤을 샐 때면, 아! 아버지도 당신이 그리신 장면을 무대에서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밤늦게까지 맥주잔을 비우셨나보다 하고 공감합니다.” DaeMun



Pe



사람들

우리들만의 조우

: 심윤, 강민영, 한승훈, 차현욱

eoople



Our own 우리들만의 조우 Encounter

심윤, 강민영, 한승훈, 차현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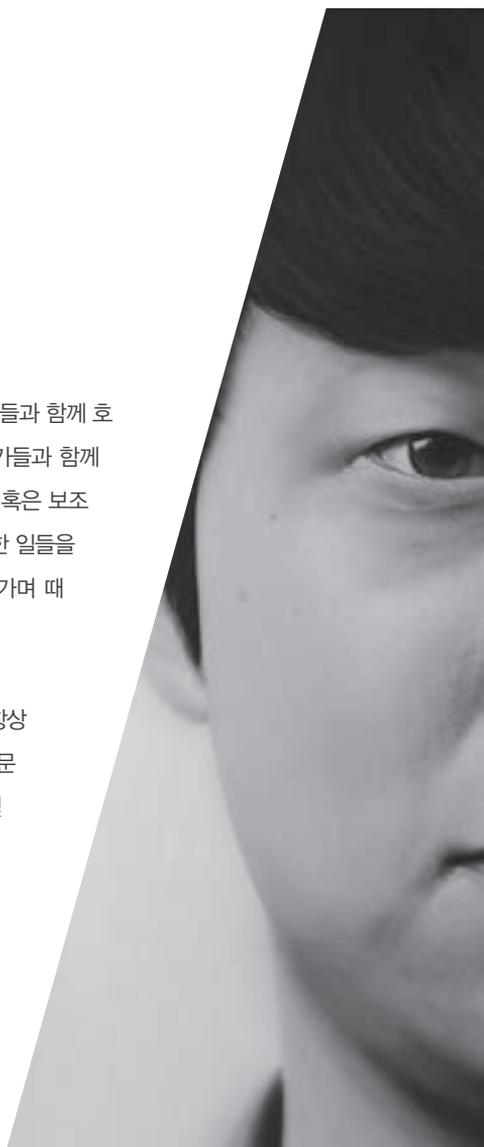
김지윤

큐레이터

나는 비평가는 아니다. 이전까지 작업을 하면서 많은 또래 작가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시에 참여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간혹 마음 맞는 작가들과 함께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혹은 보조 큐레이터 혹은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아래 의미 있는 전시개최를 위한 일들을 돕기도 한다. 그래서 참여자 혹은 기획자, 협력자의 입장을 번갈아가며 때론 일인칭이 되기도 삼인칭이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많은 작가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항상 작업이 품은 속내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중 예술담론계간지-대문에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몇 글자 적으면서 그들의 작업을 풀어보고자 한다.

여기 소개할 네명의 작가 심윤, 강민영, 한승훈, 차현욱은 내가 미술계에 몸담고 활동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중 한명들이다.





1. 심윤

자신의 얼굴을 보기위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 본적 있는가? 혹은 누군가의 얼굴을 살살이 훑어 본 적이 있는가? 머리, 눈썹, 눈 순서로 내려오다 거울을 좀 더 가까이 끌어와 뽀루지에 모공까지 집중해서 보고 나면 비로소 자신의 외부 상태를 알게 된다.

심윤의 작업은 우리가 굳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거울을 가까이 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앞에 다가온다. 그것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거대한 크기로 말이다.

심윤은 손기술이 좋은 작가 중에 한명이다. 그리고 보니 누군가가 한 이야기 중에 경북지역 출신의 남자작가들의 손기술이 전국을 통틀어 최고라는 말이 어렵듯이 생각난다. 기질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색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바 없지만 그 말

Shim Yun

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기억이 있는데 심윤도 그 끄덕임에 일조를 한 인물 중 하나다.

작가의 일관된 관심사는 오로지 인간이다. 간혹 상징적인 오브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로 인체를 적나라하게 펼쳐놓는 작업을 한다. 때론 목이 잘린 채 몸통만 움직이고 있는 인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체의 머리 부분만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HEAD' 시리즈도 보여준다.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초상화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을 표현하려는 행위보다 신체의 일부 혹은 머리를 빌려와 껍데기만을 그린 일종의 정물화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항상 관객과 눈을 마주하고 있다. 관객을 응시하는 표정 속에는 인간의 위기상황과 불안을 담아 별다른 제스처나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 형상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작업의 큰 특징이다.

또한 대형 사이즈의 캔버스에 흑백으로 그려진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사실적이다. 정교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얼굴표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살갗위로 튀어나온 핏줄이나 땀구멍 등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가 표현해낸 인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인체의 신비'같은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는 것 마냥 시선이 따라가게 된다.



이를 의도라도 한 듯 작가는 신체의 표면을 하나의 지도로 접근한다고 말한다. 그가 담아낸 인물들의 여드름은 언덕이 되고 주름과 흉터는 골짜기가 되어가며 한 땀 한 땀 공들여 새기고 담아낸 하나의 인간지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을 파고드는 것이 인간 집중도의 순별이라고 봤을 때 그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MAP'시리즈는 이러한 순별을 그대로 밟고 있다. 축적도 스케일도 없는 그의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 혹은 어딘가가 나타날 것만 같다.

작은 붓으로 한 땀 한 땀 문신을 하듯 새겨지며 시작된다. 때로는 할퀴고 문지르고 닦아낸다. 흉터는 메마른 분화구가 되고 모공들은 질퍽한 웅덩이가 된다. 털들은 수풀이 되고 시커먼 우주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작은 지도들이 만들어진다.

- 심윤의 작가노트 中 -

2. 강민영

강민영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만난 것은 몇 해 전 「대구예술발전소:수창동에서」라는 전시였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작가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작품을 먼저 봤다는 것이 맞겠다. 하지만 작품이란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생각하는 나로써는 작품을 본다 라는 표현보다 만났다 라는 표현을 더 애용하는 편이다.

작품을 처음 봤을 땐 마치 사진처럼 정교하고 오묘한 느낌 느껴져 가까이 다가가보니 수풀이 하나하나 그려진 유화 작업이었다. 혼자 펼럭이는 깃발이 외로워 보이면서도 뭔가 투쟁하는 듯 한 외침도 들리는 듯해서 한참을 작품 앞에 서서 바라보았었다.



Kang Minyeong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외딴섬에 나 홀로 외로이 서있는 착각이 들면서 멍한 컨이 먹먹했던 기억이 난다.

강민영은 풍경을 그린다. 풍경 중에서도 외딴섬처럼 보이는 장소의 어느 한 부분—수풀우거진 평야—을 포착하여 그녀만의 느낌으로 필터링한다. 풍경은 마치 안개가 자욱 낀 새벽녘 같기도 하고 맑게 개인 어느 하루 같기도 하다. 맑게 개였지만 햇벌의 따스함은 온데 간데없고 마냥 메마른 풍경 그대로이다.

작가는 자신의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몇 번에 걸쳐 화면의 바탕을 색으로 덮어나가는 작업을 한다. 칠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몇 번의 컬러 레이어가 합쳐져 캔버스 위로 떠오른다.

나는 수풀 잎 하나하나를 그리는 과정이 손이 많이 갈 꺼란 이야기를 건넸지만 의외로 풍경에 깔려진 색채를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답을 한다. 대답을 듣고 보니 강민영의 섬이 우리가 가본 곳 같기도 하면서 기억 저편에 침체된 풍경조각 같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색채가 손끝으로 분출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사진 이미지의 구현이 아닌 내면의 한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강민영은 작업의 바탕이 되는 섬의 이미



지 촬영을 위해 새벽 늦지
대나 강원도 인제 양구의 늪
시대와 같은 풍경을 일일이 찾
아다닌다고 한다. 촬영이 여의
치 않아 때로는 승인절차를 밟아
야 하기도 하고 원하는 풍경을 포
착하기 위해 그 주변 일대를 돌아
다니며 사진에 담는다. 자신의 눈이
선택한 어느 한 지점을 셔터로 누르고
다시 그것을 캔버스에 붓으로 펼치다
보면 작가만의 섬이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작가는 이러한 군중속의 고독, 외로
움을 섬으로 상징하여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그런 허한 공간을 메울 수 있는 한 가닥 희망과
여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마음도 붓 끝에 녹
여낸다.

내가 강민영의 섬에 자주 눈길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싶은 심경이 아닐까...

「누구나 자신들만의 섬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다루
고 있다. 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련

해서, 평범한 일상이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예기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낯설음,

세상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사람,

사람들 간의 섬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

- 강민영의 작가노트 中 -

3. 차현욱

차현욱 작가의 가창 오픈스튜디오 작업실에 첫발을 내
딛을 때의 느낌은 그랬다. 마치 그의 머리 속을 비집고 들어
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작가의 속내를 볼 수 있을 것 같
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한국화를 전공한 그의 이력 보다 먼
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작가이다.

「나의 작업은 인공물로 가득 찬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
로 향하는 여행에서 시작된다. 허물없는 솔직한 대화
를 위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대상을 찾아 떠
나는 것이다. 그 대상을 찾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나의 '상상'이라는 여과지를
만나면서 치층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단순히

Cha Hyeon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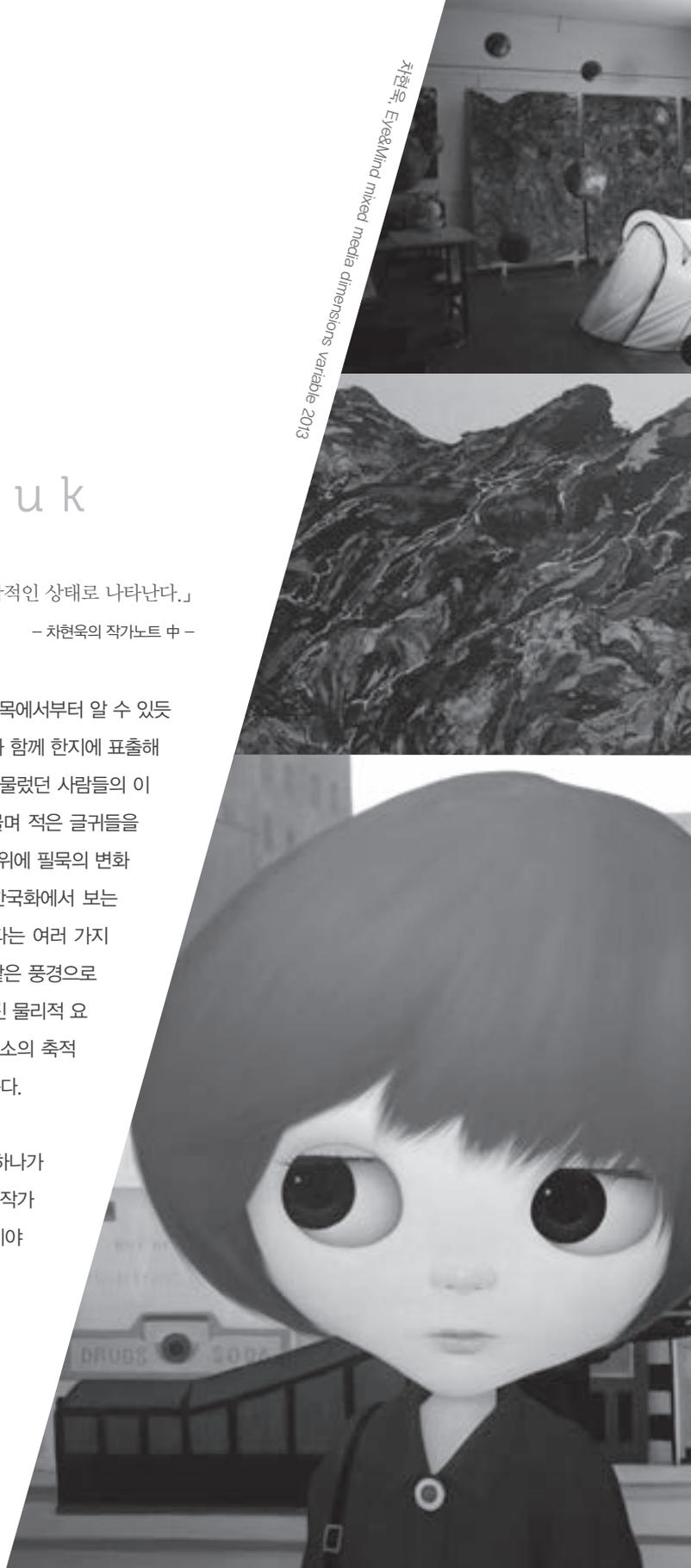
재현된 장면이 아닌 시공간과 오감이 섞여 복합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 차현욱의 작가노트 中 -

차현욱은 <그러서 새긴 이야기>라는 타이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마치 일기를 써 내려 가듯 자신의 속내를 먹물과 함께 한지에 표출해 낸다. 직접 찾아다닌 자연속의 특정한 장소들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연 구성체들의 이야기들, 그 장소에 머물며 적은 글귀들을 자신만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일정한 크기의 한지 위에 필묵의 변화를 이용해 자연이라는 소재를 표현하는데 흔히 한국화에서 보는 고적인 풍경으로 보여 지는 독립된 형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감각과 축적물이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풍경으로 눈앞에 다가온다. 차현욱은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물리적 요소들이 자신의 감각기관과 '경험'이라는 시간적 요소의 축적물과 만나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설명을 이어준다.

우리가 미술을 마주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을 때인데, 작가는 친절한 그의 성격만큼 먹으로 풀어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기도 한다.

최근 작가는 '그러서 새긴 이야기 - <Eye & mind>' 시리즈를 가창 오픈스튜디오 전시에서부터 2013 대구아트페어 - 청년미술프로젝트와 범어아트스트리트에서 선보였다. 주로 가변





설치작업으로 특정한 공간에 부착되어 있는 축적물이 마치 어떤 계기를 통해 확장되어 불규칙적이지만 자유롭게 떠다니는 형태로 나타난다.

차현욱은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이 새롭게 경험하는 것과 과거에 믿어왔던 것들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내적 혼란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 행동을 계기로 삼아 이를 통해 현 시점의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다.

「작업이 설치된 공간은 내면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고 이 공간 속에 있는 구체들은 지각의 과정에서 생성된 사고의 조각들이다. 응축되어 있지만 팽창되거나 펼쳐질 가능성이 잠재되어있는 지각 과정의 시발점을 나타낸다. 이 구체들의 안쪽에 배치된 평면 작업은 내적 사고의 원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결과물을 암시하기도 한다.」

- 차현욱의 작가노트 중 -

4. 한승훈

「- 하루살이라는 벌레 들어 본적 있으려나? 하루살이는 말이지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이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몸속은 비어있고 소화 기관은 없지. 대신에 알이 가득 차 있지... 그제 낳으려고 태어나는 생물인거지. 사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시시하지...」

- 저도 비어있어요...

- 이거 인연이네 나도 비어있거든 텅텅 비었지

-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 요즘에는 모두 그래 너 뿐만이 아니란다...

- 한승훈 작가노트 중, 영화 <공기인형> 중에서 -



Han Seung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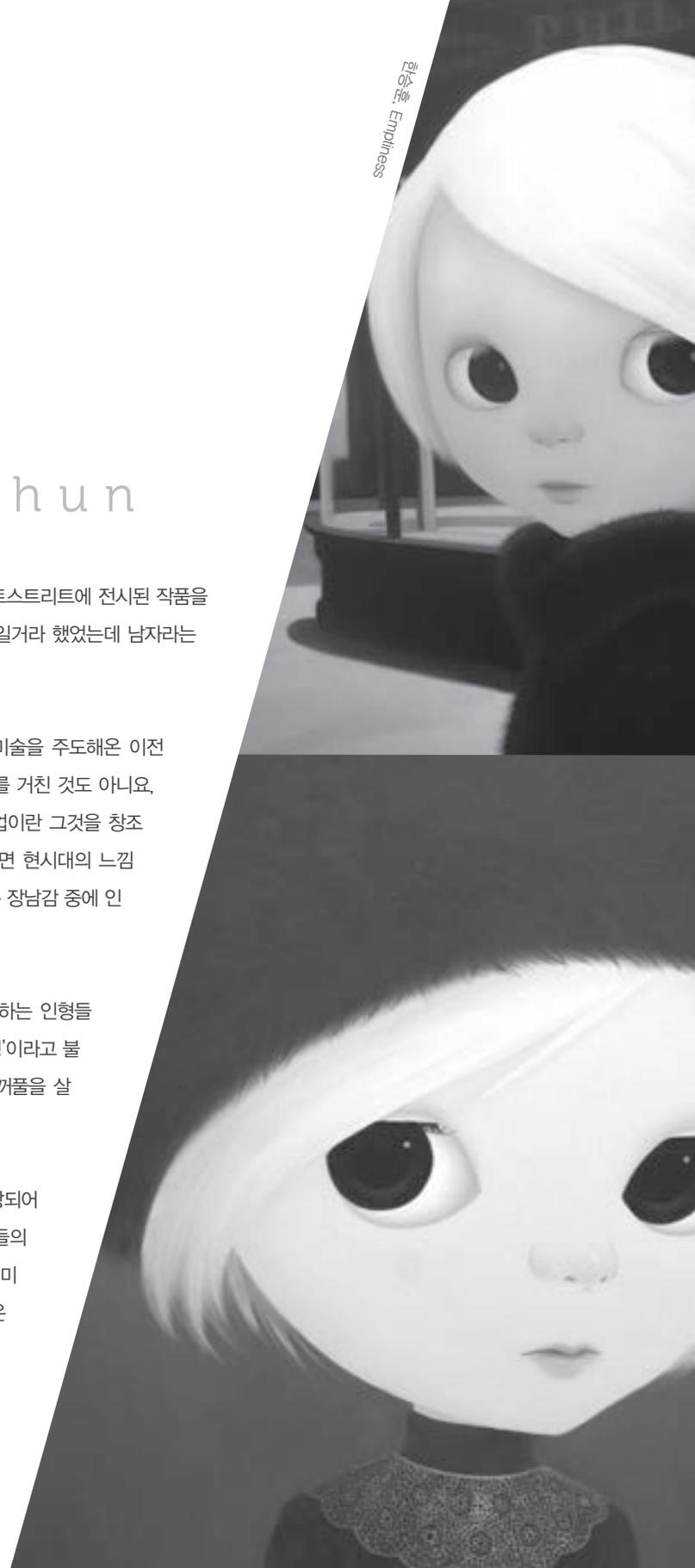
한승훈의 작품소재는 인형이다. 예전 범어아트스트리트에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인형이 등장하기에 으레 당연히 여자작가일거라 했었는데 남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 소재의 역사?가 궁금했었다.

현재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은 한국의 현대미술을 주도해온 이전 원로작가들처럼 전쟁이나 가난 혹은 격동의 시대를 거친 것도 아니요, 풍족한 자원과 정보 속에서 자라난 세대이다. 작업이란 그것을 창조 해내는 사람의 마음을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현시대의 느낌이 묻어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필 그 많은 장남감 중에 인형일까?

의문을 갖고 캔버스를 쳐다보니 작업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이다. 흔히 '눈 깜빡거리는 인형'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형들은 작가의 손에 조정당한 듯 눈꺼풀을 살짝 내리고 도도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인형답게 이쁜 스타일과 색채로 포장되어 때론 배경 없이 등장하기도, 때론 미국의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공허를 잘 표현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유희물감 특유의 은은한 색채와 그의 세심한 붓 터치가 창조해낸 인형은 왠지 이뻐 보이면서도 텅 빈, 공허한 느낌이다.

작가는 장남감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의 스타트 라인을 긋는다. 현대인들의 허무와 적막을 속이 텅 빈 플라스틱인형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침묵 속에 빠져있다고 이야기한다.

현대인, 현대사회라는 용어는 대부분 공허, 외로움, 허무, 적막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동반한다. 하지만 단지 그런 사실들을 늘어놓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무한 일이 아닐까? 한 가닥의 희망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

부족함 없이 자란 현세대들이 오히려 나눔과 배려를 잊고 산다는 것을 인형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는 한승훈 작가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속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모두가 텅 비어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그렇다. 누군가의 대용품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대 개인의 가치는 하잘 것 없다.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그런 상실감에 현대인은 마음이 텅 비어버렸고, 몸 속이 비어있는 인형보다 슬프고 불쌍하다. 그 공허함이 너무나 차갑다. 모두들 상처입고 텅 빈채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누군가의 따스한 숨결을 필요로 하는 인형인지도 모른다.」

- 한승훈의 작가노트 중 -

한승훈의 인형은 다시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마음은 어디 있는가? DaeMun

대구, 지금 여기

Daegu Citizen Hall



대구시민회관 재개관을 축하하며

— 문화의 힘으로 선진 도시로 비약하는
대구를 희망 한다

김성중

의학박사 / 내과전문의 행복한내과 원장

우리는 어떤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인구가 많고 그 나라의 경제규모가 크다고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무리 부유한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일지라도, 문화의 힘이 받쳐 주지 않다면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대국인 동시에 문화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대구보다 불과 100만 명이 더 많은 350만 명 규모의 도시이다. 인구 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서울이나, 도쿄, 베이징과 같은 도시와 비교하자면 생각보다 작은 도시란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불과(?) 인구 350만 명의 베를린이지만, 페르가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와 같은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베를린 필하모닉, 베를린 심포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 그리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와 같은 일류 오페라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십 수년째 정체되어 있는데, 만약 문화의 힘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일인당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로의 발전은 쉽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동력이, 제조업과 IT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은 문화를 통한, 그리하여 삶의 질 까지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구 250만 명의 대도시 대구를,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도시로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구시민회관이 3년간의 리노베이션 후 지난 11월 19일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대구시민회관 재개관 기념 아시아오케스트라페스티벌>



“ 대구시민회관의 모습은,
외관의 전체적인 윤곽만 예전 시민회
관의 모습이 기억되어 질뿐이지,
마치 처음 신축된 연주홀처럼
새로운 모습의
시민회관이였다.”

개막 음악제를 통해서, 완전히 새 단장한 멋진 자태를 시민들에게 드러내었다. 어떤 이들은 1975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해오던 대구시민회관을, 다목적 공연장에서 콘서트 전용홀로 리노베이션 한 것을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 콘서트 전용홀 하나 생긴 것이 뭐 그리 큰일이냐고,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필자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경험이다. 2002년 미국으로 의학연수를 갔다가 메이저리그 메츠의 뉴욕 홈구장이었던 Shea Stadium이 구장은 2009년에 철거되고 현재는 City Field 구장을 메츠의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야간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바라다본 5만8천석 규모의 커다란 외관에도 이미 압도되었지만, 관람석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눈이 시리도록 새파란 잔디가 깔려있는 그라운드를 보면서, 이런 멋진 야구장이라면 어떤 선수든지 저절로 야구를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만약 세계적 명성의 메이저리그 선수라 할지라도 낙후된 시설로 악명 높은 현재의 대구시민야구장에 와서 야구 경기를 하려면 온전히 그들의 수준 높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주자와 연주홀과의 관계도 그러할 것이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연주자 혹은 연주단체라도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있는 있는 그대로 들려줄 훌륭한 연주홀이 없다면, 좋은 연주를 들려주어야 할 연주자에게나 혹은 그들과 음악적 교감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관객에게나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콘서트 전용홀로 리노베이션 된 대구시민회관은 문화의 도시, 대구를 대표할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다. 대구시민



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열린 11월 29일 대구시향의 개막연주회와 12월 17일 경북도향 연주회, 그리고 챔버홀에서 있었던 12월 5일 박경숙 첼로 독주회 등 세 번을 방문하여 구석구석 살펴본 대구시민회관의 모습은, 외관의 전체적인 윤곽만 예전 시민회관의 모습이 기억되어 질뿐이지, 마치 처음 신축된 연주홀처럼 새로운 모습의 시민회관이었다.

내부가 시원스럽게 잘 보이도록 사방 외벽을 거대한 유리로 둘러싼,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넓은 로비를 지나서 그랜드 콘서트홀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너도밤나무로 시원스럽게 바닥 마감되어 있는 멋진 무대를 바라보면서, 대구에도 드디어 다목적 공연장이 아니라 연주만을 위한 콘서트 전용홀이 생겼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너무 크거나 혹은 작지도 않은 1284석의 적당한 규모의 콘서트 전용홀을 갖추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한 대구시의 노력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했을 때 눈에 띄게 좋았던 부분은, 좋은 재질의 목재로 만들어진 좌석을 꼽을 수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대구의 여타 공연장을 보면, 너무 두껍게 천으로 씌워진 좌석들로 객석이 채워져 있어서 연주자들의 소리를 잡아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재개관한 시민회관의 객석은 너

무 딱딱하거나 혹은 폭신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미관의 목재재질로 만들어져, 두세 시간 음악에만 집중하여 감상하기에 좋은 좌석이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청중의 눈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연주회 때 마다 어색한 모양의 임시 음향 반사판을 연주자 뒤쪽에 배치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다목적 공연장과는 달리, 객석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면서 높이도 최대한 낮추어, 시원스레 눈을 사로잡는 콘서트 전용 무대 그 자체였다. 몇몇 분들은 4관 편성이 필요한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공연할 경우에는 무대가 좁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시던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연주 전용홀의 규모에 딱 맞는 사이즈의 무대였다.

필자가 다녀본 미국 혹은 유럽 각국의 유명한 연주 전용홀의 무대사이즈보다 적거나 크지 않은 적당한 규모의, 그리고 객석과의 거리와 높이를 잘 조절한 무대였다. 굳이 비교하자면 음향이 좋기로 소문난 베를린필하모니 연주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연주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무대가 약간 여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다가 무대가 좁기로 소문난, 비인황금홀과는 비교하자면 오히려 너무 넓다고나 할까? 콘서트 전용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향인데, 아직은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 않

“시민회관의 음향은 민감한 일부의 매니아들의 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에게는 딱히 악평을 받을만한 음향은 아니란 것이 필자의 느낌이었다.”

아 새 집 냄새로 가득찬 시민회관의 음향을 평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콘서트홀을 가득 채운 1,000개 이상의 목재 객석과 바닥의 목재들, 그리고 홀을 감싸고 있는 목재 음향판 등이 완전히 건조되어 자리를 잡는 1-2년 뒤에는 더 정확한 음향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콘서트 전용홀 답게 대구의 여타 공연장의 음향과는 확실히 차별된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시원스레 소리가 전달되는 느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니아의 입장에서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두 번의 연주회에 참석하고 들어본 연주로 평가를 해보자면, 리모델링한 시민회관의 음향은 중간 포지션을 잡은 딱히 장점을 내세우기는 힘든 음향을 들려준다고 말할 수 있다. ‘중간 포지션의 음향이란 표현을 필자가 다녀다본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필자의 귀에 대구시민회관이 들려준 음향은 보스톤 심포니홀이나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처럼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음향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위스의 루체른 페스티벌 연주홀처럼 잔향감이 오래 지속되어 웅장한 곡을 연주하기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아닌, 평범한 느낌의 음향이란 뜻이다. 하지만 돌려서 이야기 하자면, 음향에 민감한 일부의 매니아들의 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에게는 딱히 악평을 받을만한 음향은 아니란 것이 필자의 느낌이었다. 이번 리모델링에 관련한 관계자들은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구 시민회관의 음향이 세계수준이라고 홍보를 하던데, 과연 필자가 언급한 몇몇 유명 콘서트홀에 상주하는 연주단체들이 대구시민회관을 방문하여 연주를 할 기회를 가진다면, 어떤 평가를 할지 무척 궁금하다.



콘서트 전용홀 안팎을 관찰하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눈에 보였는데, 가장 크게 눈에 거슬리는 것은 연주 무대 위를 비추어주는, 무대 천정에 설치된 조명시설이었다. 늘 무대 세트를 변환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송국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깔끔하지 못한 조명시설을 설치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마치 멋진 인테리어를 마친 새집에다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낡은 조명장치를 붙여 놓은 듯한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오프시즌에, 무대를 비추는 조명 시설만큼은, 잘 지어진 멋진 무대와 어울리는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악애호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콘서트 전용홀이란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줄은 알지만-가장 아쉬운 점은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1985년 건립된 이후, 국내 곳곳에 각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멋진 외관의 공연장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쉽게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곳은 전무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오히려 1970년대 말에 건립된 세종문화회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내 대표 연주 홀인 서울 예술의 전당이, 처음부터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였다면 뒤이어 건립되는 타 공연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파이프 오르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오히려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것 같다. 대구에서도 계명대 아담스 채플이라던가, 인터볼고 호텔과 같은 민간 시설에서만 파이프 오르간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콘서트 전용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 큼 역사가 있는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굳이 바흐나 모차르트의 종교음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양 음악의 모태가 기독교 음악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터인데, 그 기독교 음악의 기초가 되는 악기가 바로 파이프 오르간인 것이다.

유럽의 대도시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 이나 대구 시민회관 콘서트홀 수준의 음악당을 건립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지 않다는 것이 상상 가능한 일일까? 예를 들자면 교향곡 연주에 있어서도, 파이프 오르간을 요구하는 곡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이라던가 말러 교향곡 2번<부활>, 8번<천인교향곡> 등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나면 왜 파이프 오르간이 악기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3년 전 베를린필하모닉 홀에서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2번〈부활〉의 5악장 피날레에서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100여 명의 합창단의 외치는 그 거대한 소리를 뚫고 웅장하게 울려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압도되어 버린 감동적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다. 국내 연주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다 보니 그러한 곡들을 연주할 때 임시방편으로 전자 오르간을 설치하여 연주하곤 한다.

실지로 대구시향도 수년전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을 연주할 때 전자 오르간으로 대체하여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국가대표 축구팀이 천연 잔디 구장이 아닌 인조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부상의 위험 때문에 몸을 아낄 수밖에 없게 되는, 부자연스러운 경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만약 이번에 대구시민회관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더라면, 국내 유명 교향악단들 혹은 오르간 연주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한 연주를 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며, 대구의 문화 위상을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마지막 바람은, 대구시민회관이 늘 연주회가 열리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오고가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울 예술의전당을 들릴 때 마다 무척 부럽게 느끼는 것은, 예술의전당이 그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로 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어느 때에 그곳을 찾아 가더라도 늘 음악회가 열리고 있으며, 음악회 이외의 문화행사도 끊어지지 않으며, 또한 수준급의 카페와 레스토랑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기에, 서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

“대구시민회관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드문드문 연주회가 열리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늘 좋은 공연과 이벤트가 있으며 편한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곤 한다. 대구시민회관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드문드문 연주회가 열리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늘 좋은 공연과 이벤트가 있으며 편한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인구 250만 명에 4년제 음악대학이 5개가 있는 대구 규모의 도시라면 시민회관을 대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늘 공연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가을 대구 오페라축제에 바그너의 <탄호이저>를 가지고 내한 공연을 펼친 독일 칼스루에(Karlsruhe) 국립극장의 예를 들어 보자면, 칼스루에 시 시민구가 28만 명에 불과한, 독일 내에서도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 칼스루에 국립극장의 상주직원만 650여 명이며 극장의 연간 연주회가 700여 회가 넘는다고 하니, 어찌 독일이란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연주자들의 악기뿐만 아니라, 콘서트홀 자체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악기라고 생각을 한다. 매일 매일 악기를 연주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악기가 아무리 고가의 명성 있는 악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리가 빛을 잃어갈 것이다. 아무리 거액을 들여서 좋은 콘서트 전용홀을 갖추어 놓았더라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연주에 쓰이게 된다면, 어찌 그 콘

서트홀이 좋은 음향을 들려줄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음악의 향기로 매일매일 가득 찬 대구 시민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연주회 참석이 목적이 아닌 시민들도 마음 편하게 시민회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조만간 시민회관 내부 곳곳의 여유 공간에 몇 개의 편의시설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된 시민회관의 품격에 맞는 안락한 카페라든가, 음악 서점, 음반 판매점 등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이웃 백화점의 문화강좌와 연계하여 음악과 관련된 몇몇 강좌를 시민회관 내에서도 한 번씩 가진다거나, 시립예술단원들의 재능기부와 같은 도움으로 청소년 예술 강좌를 개최하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늘 왕래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수십 년간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써, 21세기에 걸맞게 현대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탈바꿈한 대구시민회관이 단순한 하나의 건축물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랑받는, 선진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아이콘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DaeMun

文化

문화공감

시가 있는 풍경 - 노태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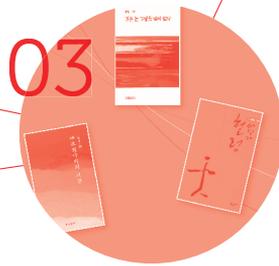
칼럼 · 손태룡의 음악상자 - 대구 서양음악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구 예술인의 신간





共 感



서정시 읽는 도시 - 대구

“서정시
3편을
외우자”

rg

01

서정시 읽는 도시 - 대구
서정시 세 편을 외우자

노태맹



碧巖錄을 읽다

1.

살구나무 아래 서 있는데
살구 하나가 툭, 발아래 떨어진다.

참았던 울음에서 피리 소리가 났다.

2.

외도(外道)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없이 한참 계시니, 외도가 찬탄하
며 말하였다. “세존께서 대자대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
어갈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

(벽암록 中. 장경각. 236쪽)

침묵. 내가 나의 부처일 때가 있다.

3.

고통과 분노도 나이가 든다.
세상이 다 이해된다고 느낄 때 나는 늙은 거다.

뿌리가 다 썩은 蘭 화분에 꽃이 피었다.
이게 이해된다고 말할 때 우린 이데올로그인 거다.

침묵은 무게를 가진다.

심지어 뽀족뽀족하기까지 하다.

4.

내 살구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사내에게
살구 하나를 툭, 머리 위로 던져 주었다.

울음이 아니라 침묵의 구름이었던 거다.

02

손태룡의 음악상자 대구 서양음악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손태룡
음악이론가

대구지역의 서양음악사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배경과 시기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시대배경은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당시의 음악가 및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양음악사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의 표현수단은 선율이었고, 바로크시대는 조성(調性)과 화음의 시대였다. 이어 고전시대는 음악형식과 악기음색을 중요시 여겼으며, 낭만시대에는 음악양식으로 악기편성에 그 특징이 있다. 근현대에는 음악형식과 조성이 파괴되어 무조음악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대구서양음악사도 서양음악이 유입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알아보는 것이 전체를 이어서 이해할 수 있겠다.

대구음악사의 시대배경은 무엇인가

대구지역에 서양음악문화가 유입된 시기는 1827년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연도는 천주교 탄압의 정해교란(丁亥敎亂)을 피해서 이차공사가 집안이 대구로 이주한 해이다. 이후 1837년에는 천주교인 김현상(金顯祥) 일가 아들 김종구, 손자 김찬수가 서울에서 박해를 피해 왜관 신동의 신나무골을 거쳐 대구시 칠곡군 한티로 왔으며, 경북 상주로 낙향한 서철순(徐哲淳) 집안이

개신성당의 명도화약대(1912년)



1859년 대구로 이사와 정착하였다. 한편 1835년경에는 대구 시 달성군 하빈면 무등동 낙골에 살던 이재근^{루카}가 가정이 낙골의 박해를 피해 서구 내당동 울현^{백교개}으로 옮겨와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1860년대 이르러서는 대구공소가 조성되었으나, 이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소예절을 드릴 수 없는 종교탄압의 시기였다. 이후 1887년에 중구 계산동 대구본당^{개신성당}의 설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명의 신자들이 불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1887년 이전부터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천주가사 및 성가와 손풍금이 천주교의 신부를 통해 유입되어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주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종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 종교의식을 진행시켰으므로, 천주가사 및 성가 역시 종교의식과 직결되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어려웠다.

서양음악이 대구지역에 실질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1893년 4월 22일로 볼 수 있다. 이 날짜는 미국인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선교사가 부산에서 조랑말을 타고 밀양 - 청도를 거쳐 팔조령을 넘어 대구 종로를 방문한 날이다. 이렇듯,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대구지역에 66년 일찍 들어왔고, 1860년대에 대구공소가 조성되고 1888년 불란서인 로베르^{Achille Paul Robert, 1853-}

1922 신부에 의해 새방골현 상리동에 임시성당이 세워졌었다. 이어 1891년에 대성당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에 의한 서양음악이 대구지역에 먼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구한말 고종^{高宗, 1852-1919}의 재위시기로서, 명성황후인 민비와 흥성대원군의 반목과 쇄국정책 등으로 조정^{朝廷}이 친일파 - 친청파 - 친로파 등으로 분열되는 때였다. 이러한 파벌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일본-중국-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 정치 - 경제 - 사회의 무질서가 만연한 조선의 마지막 시대였다. 결국 무질서 속에서 농민봉기인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정에서는 동학혁명을 평정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을 불러들여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내외외환^{內憂外患}의 와중에 기독교의 유입은 혼란한 사회 속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어 그들을 하여금 서양음악을 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 기독교의 선교에 편승하여 물밀듯이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문물은 새로운 시대적 변혁을 가져오게 했다. 공식적으로 개신교를 우리나라에 처음 전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1858-1902} 목사



『찬양가』 표지 (1984년)



『가곡집』 박세준작곡집 (1927년)

대구성가협회 (1938년)



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 1859-1916) 목사인데, 이들이 성경과 함께 찬송가를 1885년 4월에 가지고 들어와 가르쳤다. 이들 두 선교사는 처음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이후 마펏(Samuel Austin Moffet, 1864-1939) 목사는 서울에서 선교를 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세워 일반교육도 함께 병행하였다.

1893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찬송가집』을 발행하였고, 1896년에는 감리교회에서 『찬미가집』이 발행되었다. 이듬해인 1897년에는 북장로교회에서 『찬송시집』이 발행되었다. 대구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독교인으로서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윌리엄 베어드는 바로 북장로파였다. 따라서 1897년에 북장로교회에서 출간된 『찬송시집』을 1897년 가을에 대구 최초로 세워진 야소교회당(종로 제일교회에서 예배할 때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가집에는 악보가 없고 가사만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선율로 찬송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서당식 교육에서 학교교육이라는 신교육으로의 전환은 기독교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서양음악의 접촉은 성당을 통한 성가와 교회를 통한 찬송가였으며, 1885년경부터 실시된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양성화된 때부터이다. 서양음악교육의 초창기는 학교교육이나 정규 교과과정보다는 성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경북도청악대 (1944)



1906년 계성중학교와 1907년 신명여학교가 제일교회에 의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물론 교재로는 『합동찬송가집』을 비롯한 단순한 미국노래를 영어로 부르거나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굴욕적인 국권침탈이 이뤄지면서 일본제국주의는 학부 편찬 『보통학교창가집』을 발행하였다. 애국적 민족적 요소를 불식시키고자 사립학교에서 불러지는 노래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창가집이 발간된 것이다. 미션계 사립학교의 교육이 그만큼 일본제국주의에게는 커다란 장벽이었던 것이다. 이 『보통학교창가집』에는 「학도가」, 「애국가」, 「운동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곡이나 일본음계가 풍기는 왜색의 곡들이 상당수 있어 우리의 정신을 훈미케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교육 속에서 1909년 9월 서양음악을 교육하려는 뜻으로 서울에서는 음악교육기간인 조양구락부(調陽俱樂部)가 발족하였다.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와 평양의 숭실대학(1925년부터 숭실전문학교)에 다닌 사람들이 그곳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음악을 진지하게 접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내용은 대구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구합창운동의 선구자

박태원(1897-1921)이다. 박태원의 음악적 영향으로 박태준(1900-1985,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 김문보(1900년생, 영남지역 최초의 소프라노 추애경(1900-1973, 한국음악계의 틀을 짠 현제명(1903-1960)이 서양음악을 전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대구의 기독교계 학생들의 진학경로는 제일교회 - 대남학교(후에 순도-회원) - 계성학교 및 신명여학교 - 숭실대학 또는 연희전문학교 - 유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들 전문학교에서는 당시 음악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되지 않았지만, 학교의 선교사를 통하거나 방과 후 특활활동을 통해서 서양음악을 체득했었다. 더욱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한 사람은 졸업한 후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음악유학을 갔었다. 외국에서 유학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 음악가들은 우리나라 제1세대 서양음악가이자 초석(礎石)이 되었던 인물들이다. 향토 출신의 제1세대 서양음악가들의 영향으로 바리톤 이점희(1915-1991, 음악학자겸 작곡가 김진균(1925-1986 등 대부분 음악가는 전문적인 음악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대구지역의 서양음악계는 바로 이들의 음악적 영향으로 형성되었음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대구교향악합창단 (1962년)

대구음악사의 시기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시기구분이란 사회적 변화를 몇 개의 특징적인 시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인식이다. 대구음악의 사회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기구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구음악사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필자 이외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 다만 여럿 음악학자들에 의해 한국음악사 개설서에서 시대구분만 다루어졌는데, 대부분 역대 왕조에 의한 구분이었다. 대구음악사는 주로 음악활동의 사회적 사실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구음악사 서술은 사회적 사실을 바탕으로 찾아진 음악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음악사에 나타나는 음악현상이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변천과 지속이 거듭되는 것이지만, 역사적 인식은 변천의 측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시기구분은 음악의 사회적 변천에 바탕을 두고, 사회 속에 실제로 나타난 변화가 뚜렷한 시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기구분의 구체적인 작업은 음악의 사회적 변천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구교향악단-창단연주 (1957년)



작곡 3인회-임우성, 백영철, 우종여 (1971년)



어느 한 시기의 음악문화는 그 시기의 주된 음악가의 활동에 의해서 그 장르의 변천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구음악사의 체계적 이해란 결국 대구인에 의한 음악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구인들이 서양음악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시기구분의 명칭으로 사용될 용어는 대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룬 음악문화의 발자취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곧 시기구분의 용어가 한 시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첫째 시기는 서양문물이 표면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부터 일본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직전까지로 삼았다. 곧 1827년 이공사가 집안이 대구로 이주하고 대구분당의 설립이 추진된 1887년과 제일교회 설립자 베어드가 대구에 첫 발을 디딘 1884년 4월 22일부터 1919년까지 해당된다.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음악사적 성격은 새로운 서양의 음악이 유입되어 발전해나간 점이다.

첫째 시기의 초기에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노래와 악기가 특징으로 꼽힐 수 있으며, 한편 개인의 음악적 습득과도 관련된다. 천주교의 미사에 필요한 성가 및 손풍금을 통한 음악활동과 개신교의 예배의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찬송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00년 3월 26-28일 처음으로 대구에 유입되어 성경교육에 사용된 피아노가 이 시기의 특징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들은 모두 시기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첫째 시기의 명칭을 서양음악의 유입과 수용시기, 또는 피아노의 유입과 관악기의 등장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시기는 일본이 대구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면서 문화면에 관계한 기간을 말한다. 곧 동요작곡이 시작되는 192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직전까지 해당된다. 대구의 제세대 서양음악가들이 탄생되는 이 시기의 특징적인 성격은 대구사람이 자주적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한 점이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개인과 학교에서의 활동이 이 시기에 있었다. 박태원이 창단한 제일교회찬양대, 박태준의 작곡, 김문보와 권태호의 독창, 그리고 대구사범학교와 계성학교, 대구성가협회, 계산성당찬양대, 도청관악대의 음악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둘째 시기의 명칭을 서양음악의 자주적 전개시기라 할 수 있겠다.



예술가곡집 (1992년)



오페라 청라언덕-광고 (2013년)

셋째 시기는 일본제국주의에서 벗어난 해방부터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거쳐 미군정에 의해 통치된 3년간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기 전까지이다. 곧 1945년부터 1963년까지를 말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으므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대구음악계에서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시기였는데, 이는 서울의 전문음악인들이 대구로 피난 내려와 많은 음악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셋째 시기의 명칭을 서양음악의 창조적 발전시기, 또는 악대의 활동과 서울음악의 수용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시기는 혼란한 사회적 환경이 안정이 되어 일반 및 전문음악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기간, 곧 1964년부터 1980년까지이다. 대학교에서의 음악과 개설로 수준높은 전문적 음악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1952년 효성여자대학교의 음악과, 1961년 계명기독교대학현 계명대의 종교음악과, 1970년 영남대학교의 음악과가 개설되었고, 특히 1964년 11월에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1969년 대구교향취주악단, 1972년 대구오페라단, 1974년 한국관악협회대구지부, 1978년 계명실내합주단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때문에, 넷째 시기의 명칭을 서양음악의 대구모적 활동시기라 할 수 있겠다.

대구관악제 (1981년)



대구오페라하우스 (2003년)



다섯째 시기는 많은 전문음악가가 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외국선진국에서 서양음악을 배워온 유학파들이 주로 활동한 기간을 가리킨다. 곧 경상북도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는 1981년부터 1990년대를 말한다. 서울지역에 의존하는 음악활동을 지양하고 젊은 음악가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고,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잦았던 외국 및 국내 다른 지역과의 음악교류 및 초청무대가 대구음악계에 자극제가 된 시기였다. 특히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 세대들이 크게 부상하였다. 때문에 다섯째 시기의 명칭을 서양음악의 독창적 모색시기, 또는 전문음악가와 유학파들의 활동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대구음악사의 체계적 이해는 결국 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대구음악사의 큰 흐름을 형성한 주된 요인을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교육적 일환으로 유입되어 시작된 형성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나간 대구음악인의 자주적 수용능력이라는 점이다. 형성능력이란 기존 불교 및 유교의 바탕에서 새로운 서양의 종교 유입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흡수된 서양음악의 의미이고, 자주적 수용능력이란 이

미 유입된 서양음악을 우리 스스로 확대 발전시킨 대구음악인의 자주적 역량을 뜻한다. 이러한 대구음악사의 형성과 수용을 함께하면 대구음악사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종교의 의식적 일환으로 기독교와 함께 대구지역에 유입되었던 천주교사와 찬송가, 곧 성가를 반주한 손풍금과 찬송가를 반주하는 피아노의 유입으로 인해 서양음악이 서양인에 의해 시작된 것이 대구 서양음악의 첫째 시기이다. 서양인에 의해 시작된 대구의 서양음악이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면서 일본인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둘째 시기에 해당되며, 해방기간과 6·25전쟁기간을 거쳐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음악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시기가 셋째 시기에 해당된다. 이후 대구음악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음악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넷째 기간에 속하며, 유학파들에 의해 음악활동의 폭이 넓혀진 시기가 다섯째 시기가 된다. DaeMun

03

대구예술인의 신간



희다

이항 지음 | 문학동네 펴냄

물방울 같은 한순간 그 물방울만한 힘이 나뭇가지를 휘게
 하는지 그때 붙잡고 싶었던 것은 네가 아닌 그 순간이었다
 당신도 그렇게 왔다 가는 걸까 어느 순간 기척 없이 빠져
 나간 손바닥의 온기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의 그늘처럼,

-「한순간」부분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새들은 북국으로 날아간다'를 발표하며 시단에 나온 지역 이항 시인이 11년 만에 첫 시집 『희다』를 냈다. 11년 전, 시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첫 도전에 덜컥 당선이라니. 나는 너무 쉽게 나비가 된 것 아닌가”, “막 첫집에서 깨어난 애벌레에 불과”한 시인으로서 “말의 집 한 채를 세우기 위해 조급하게 우왕좌왕하지는 않겠다”라고 소회를 밝혔었다. 그러한 자신의 다짐을 곱씹어 실천하듯,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탄생한 시편들은 한 편 한 편 그 미학적 성취가 견고하고 밀도 또한 크다.

“한비탕 헛웃음 뒤로 번지는 물기”^{웃음}로 표현되는 시집의 정서가, 물에 닿으면 기뭇 없이 사라지는 것들처럼 고요하고 은밀하다. 속절없는 감정으로부터의 도취를 벗어난 언어가 매듭도 비의도 없이 스미듯 서정에 가닿는다. 하지만 “낙타가 모래바람을 건널 때 순간 눈을 가려줄/속눈썹”^{희다}처럼 순하고 내밀한 그의 독백이야말로 실상 제 안의 짙은 ‘그들’이 ‘희게’ 풍화되고 표백된 흔적에 다름 아니다. 나뭇가지를 가늘게 흐르는 물방울 같은 시어들, 그 순간의 현현이 아름답다.



어디에도 없다

물빛 지음 | 만인사 펴냄

“물빛이 30집이라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 그동안 〈물빛〉 동인은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 없이 그냥 두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작품토론을 해왔습니다. 첫 모임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여서, 바로 지난 날^{2013/11/24}에 73번째 모임을 가졌으니 놀라운 일이지요. 융통성 없음의 성과(?)라고나 할까요?”라는, 〈물빛〉 동인을 이끄는 이진홍 시인의 머리말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디에도 없다』는 우직하기 짝이 없는 동인들이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룩한 뜻 깊은 결실이다.

〈물빛〉의 30년을 회고하는 작품집답게, ‘30주년 특집 좌담회’, ‘사진으로 본 물빛’, ‘옛 회원 작품’ 및 여러 시인(문인수, 이태수, 김연대, 박노열, 이하석, 이구락, 박진형)들의 축시와 초대시, 그리고 축사들이 눈에 띈다.

“제도권에 진입하는 데 전혀 뜻을 두지 않는 비제도권 문학이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문학에 일종의 충격을 가하거나 반동의 기류를 형성할 역할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에서 물빛은 분명 ‘소수문학’에 속한다.”라는

어느 회원의 말처럼, 〈물빛〉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모임이다. 덧붙여, 회원들의 작품을 세심하게 읽고 감상평을 써놓은 지역 시인들 장하빈, 김상환, 이진엽, 김동원의 ‘물빛 시 감상’ 코너도 이 동인지가 가진 커다란 자랑거리다. DaeMun

한국뮤지컬이라는 거목을 키우는 작은 씨앗, SEED

이유리
DIMF 집행위원장

매년 연말마다 각 분야의 이슈들이 결산된다. 한국 뮤지컬 시장도 올해 몇 가지 주목할 거리들이 있었는데 초대형 라이선스 공연들의 점령과 함께, 고 김광석의 부활이라고 할 만큼 올해 가장 많이 주목받은 창작뮤지컬 두 편 다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다뤘던 것이 화제였고 또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였다.

DIMF대국국제뮤지컬페스티벌가 선두주자로 신작 창작뮤지컬을 무대화하도록 지원해 주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하는 '창작 팩토리', CJ문화재단이 주최하는 'CJ크리에이티브 마인즈'가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작뮤지컬 시장 형성에 기여해 오다가 지난 해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이 생기면서 쇼케이스 공연에 지원하는 '예그린 앙코르', 리딩 공연 지원의 '예그린 프린지'까지 생겨 지원프로그램의 성격도 더 다양해 졌다. 그리고 올해 총무아트홀이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청년창의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총무아트홀 블랙 엔 블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작 5작품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멘토링과 프로듀싱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DIMF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거기에 '창작 팩토리'는 내년 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사업으로 전환되고 올해 부터 공연장 대관까지 해서 쇼케이스 보다 더 기성화된 공

연 지원을 시도했는데 얼마 전 대중과 전문가의 호평을 두루 감사 안으며 매진 행렬에 투자자들이 서로 나서는 화제작 '공동경비구역 JSA'를 탄생시킨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들 뮤지컬 창작 지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작품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뮤지컬산업의 생리 자체가 협업 체제의 단계적인 창작 프로덕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또, 라이선스 중심 시장이다 보니 창작자들이 공연을 실험할 장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창조는 창작하는 사람에서 비롯되기에 창작자 자체를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해 한 뮤지컬 세미나 자리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신진 작곡가 이나오씨가 한국 만큼 지원 혜택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나오 작곡가는 청소년기부터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과 미국을 거치며 작곡가로 교육받고 활동한 인물이어서 그 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만큼 창작자나 창작프로덕션에게는 신나는 여건이지만 또 그 만큼 각 기관의 각 지원 프로그램들이 서로 특징과 차별성과 유대성과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국연극지 주최로 국내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수행 기관 및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공유하는 좌담회를 벌이기도 했다.

DIMF는 지금 내년도 제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창작 지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 경쟁 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 느는 실정에서 위기의식을 실감해 경쟁력과 차별성을 위한 몇 가지 변화를 감행했다. 한국 뮤지컬의 거목을 키우는 씨앗이란 의미의 '딤프 창작뮤지컬시드SEED'라는 이름도 지었고 지원금도 늘렸고 그동안 독보적인 특징이었던 뛰어난 창작지원 선정작을 내년도 공식초청작으로 유치하는 2년 연속사업 성격을 더 강조했고 그 초청작에는 준비하는 1년 간 쇼 닥터 또는 프로듀서를 통한 멘토링 기능을 추가했다. 그래도 최근에 타 지원 프로그램들이 서울의 유명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려 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어 DIMF의 '뮤지컬시드'가 지역적인 한계를 지녔음에도 창작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게 더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탈출구를 고심 중이다. 뮤지컬산업 자체가 대도시 집중 산업이고 1천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관 보유량이 곧 시장 규모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서울을 유일한 뮤지컬시장으로 보고 있어 대구를 기반으로 한 '딤프 뮤지컬 시드'에게 지속적인 차별화와 경쟁력 유지는 필연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DIMF의 그 동안의 행보는 가치 기적적이다. 뮤지컬시장이 유일하게 서울 단 한 곳뿐인 한국 땅에서 전국적이고

2013년 창의인재동반사업 집중워크숍

꿈/슬/위/안/동/영

2013. 7. 15~17. 20 대구은행연수원



또 국제적인 뮤지컬 축제를 매 년 대구 지역에서 뮤지컬 한편 제작비인 20여 억원의 예산으로 한 달가량 대규모로 꾸려온 것은 무모하리 만큼 가열찬 용기였다. 그리고 7년이나 지속시켜 오면서 대구라는 새로운 뮤지컬시장을 형성한 점은 놀랍다. 특히 한국 뮤지컬시장의 지평을 바꾼 창작뮤지컬들의 모태 역할을 한 것은 한국 뮤지컬계가 박수치는 가치이다.

그래서 올 3월에 DIMF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DIMF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뮤지컬 창작 육성을 위한 일들이라고 판단했고 공표했다. 그런데 고맙게도 대구문화재단과 DIMF가 공동으로 뮤지컬 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 운명적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에 사람을 직접 키우자고 야심차게 기획한 '창의인재동반사업'에 뮤지컬 창작자, 작곡가, 연출가, 프로듀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국내 처음으로 뮤지컬 분야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처음이라서도 그렇고 운영 및 멘토링 교육 방식이 타 문화산업 선정 기관들과 달라서도 그렇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뮤지컬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현재 사업 수행 중이다.

대구문화재단이 책임 기관이고 DIMF가 교육 운영 수행 기관인 우리 창의 인재동반사업 이름은 '컬럼버스 런웨이 프로젝트'다. 제목처럼 개척적이고 도전적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27명의 창작자를 선발하여 매 월 100만원의 급여와 전문가 멘토링 혜택을 줘서 창작 결과물 발표까지 9개월 간 그야말로 창작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매력적인 지원 방식이다.

처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참가 신청 계획을 제시하면서 멘토도, 멘티도 작가, 작곡가, 연출가, 기획자가 한 팀이 되어 팀워크 체제의 멘토링이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반문이었다. 당연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성 뮤지컬시장의 작업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멘토와 멘티들의 열정에 여러 차례 감동 받아 온 이 독특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곧 대구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창작 성과 발표 공연을 올린다. 이 실험적인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 최초로 뮤지컬 창작자 자체를 팀워크 체제로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을 새로운 뮤지컬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국제적인 뮤지컬 축제를 치러 내는 대구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DIMF 또한 창작 텍스트 선발 지원-쇼케

이스 지원-기성 공연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창작 지원의 앞 단계에 창작자 양성 개발의 기초 과정을 실현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을 꾀하게 되었다.

한국 뮤지컬산업은 한국 공연시장의 60% 비중을 차지 하면서 최근 몇 년 간 연 평균 성장률이 2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역동적인 고속 성장 산업이다. 최근 한류 아이돌 스타들이 뮤지컬에 대거 참여하고 아시아 관광객들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고 우리 뮤지컬이 일본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한류의 차세대 주자는 뮤지컬이라는 발 빠른 진단들을 내리기도 한다. 뉴욕 타임즈 최근호에 한국 뮤지컬 시장이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분명한 건 뮤지컬산업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지니는 미래 가치 산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라이선스 중심이고 산업이라고 하기에 시장은 3천억 규모이고 배우 개런티에 치인 속 빙 강정의 모습이 지금 한국 뮤지컬 시장의 실체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우의 영향력이 공연의 성공 유무를 결정하는 추세이다. 몇십 억대의 개런티를 받는 조승우와 김준수 같은 배우들도 늘어날 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로열티를 해외에 쏟아 붓고 공연에 대한 권리도 한시적으로 빌려 쓰는 라이선스뮤지컬 시장을 극복해야 하고 그 대항마가 창작뮤지컬 콘텐츠이고 미래 자산임은 뮤지컬 종사자 모두가 공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 또 영향력을 지닌 인물은 창작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작자와 창작뮤지컬 지원과 육성은 한국뮤지컬이라는 큰 나무를 키우는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나무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기대하면서. DaeMun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이준형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공연기획팀

본 과정을 마치고 수기를 적는다. 처음 과정에 임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치 찰나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한 해 동안의 기억을 더듬으면, 면접을 보기 위해 70여 명이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가슴 졸이며 면접을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으며, 6개월에 걸친 수업, 한 달의 인턴 경험, 세미나, 과제 발표, 축제 기획 그리고 영국에서의 7일도 있었다.

게으른 건지, 마음속에 낙천이 있다. 좋은 말로 낙천이지, 또래에 비해 도전하려는 것이 부족한, 안정하고픈 마음이 강한 듯싶다. 그러한 성격의 반영으로 면접 역시도 또래들에 비하면 많이 겪어본 편은 아닐 것이다. 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면접이 필수적이긴 했으나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그러했듯 나 역시도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예대를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나의 대학 생활은 곧 동아리 생활이나 다름없다. 학교 다니면서 어쩌다 보니 연극에 빠졌고 성적은 겨우 낙제생 수준을 면하고 졸업했다. 부모님께선 평범한 것을 하기 원하셨지만 가만 두고 보면 세상에 그리 평범한 일은 없는 것

갈기도 하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때부터 예고 진학을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과감함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미적거림이 아마 대학교에 와서 폭발해버린 것 같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웬 연극이냐' 하고 그저 대학 생활의 일부로, 취미처럼 취급해버리신 부모님께서도 이쯤 오면 아마 진지하게 마음을 바꾸셨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에 몸을 담근 적도 있다. 얼마 견디진 못했다. 내가 죽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막연한 꿈을 제외하고, 사춘기를 거치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나의 첫 장래희망은 영화감독이었다.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없고 그보다 훨씬 전, 집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당시 영화나 방송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나름 내용이든 형식이든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콘티를 짜보던 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한 장래희망에 닿은 것이었다. 지금의 20대 대부분이 그랬을 것이다. 겪어본 것이 없어 구체적인 장래희망이 없는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나은 편이었다.

대학교 진학 후 밴드 동아리나 영상 동아리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을 차치하고 연극이 대학 생활의 한 귀퉁이를 자리 잡게 되었다. 연극

동아리를 시작한 것은 영화에 대한 차선책으로서였다. 그러나 '잘하고 싶음'에 대한 갈망은 그것이 차선책임을 가리지 않았다. 비록 동아리이지만 내가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은 만큼 더 이해해야 했으며 알아야 했고 그래서 더 공부해야 했다. 알려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잘 하기 위해 나름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조차 길었다. 그러면서 '관객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연극에 관련된 서적은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닥치는 대로 읽어냈다. 예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로 부러웠다.

졸업을 하고서 당분간은 방황했다. 연극에 대한 끈은 놓지 않으려고 대명동을 자주 드나들었다. 결국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속 한 구석에는 예술 기획을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이 놓여있었고, 그 와중에 대구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입사하고는 3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것저것 공부하고픈 내 마음을 표출한답시고 면접관 분들께 나를 대들었는데 어찌 눈에 띄었는지 나를 덜컥 뽑아주셨다. 합격 통보를 받고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다.

별로 특이할 것 없는 녀석을 특이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접하게 되었다.

6개월간의 수업과 기획서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필요하면 책으로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직접 겪어보고, 그것이 다였기에 수업에 관한 이해가 동반될 수 있을지에 관한 조바심이 있었다. 커리큘럼에 대한 막연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나, 수업에 대한 욕심이 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 지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때부터 관련 수업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도 했다. 강사 분들의 면면은 이루 말할 것 없었다. 대학 생활로 다시 돌아간 오묘한 느낌이 들었다. 스스로가 골똥하는 과제들도 있었고 팀을 이뤄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있었다.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현 예술시장의 동향과 그것이 처한 문제점, 나아가 갈 방향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모두에게는 공통으로 개인 과제와 팀 과제가 주어졌다. 지도교수님이셨던 최현묵 관장님의 지도로, 모자라지만 나름의 기획서를 제출했으며 팀 과제의 경우 작성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해보는 과정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피드백 아래 스스로 작성한 기획이 어설뜨게나마 형태를 갖춰갈 때, 그 성취감이 있었다. 수업과 과제를 거듭할수록 실제 기획을 해보고픈 마음이 커졌다.

나중이야 깨달은 것이지만 일련의 과정으로 '기획에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기획에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기획의 알맹이가 있을 것이다.

수업과 과제 발표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의 일부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획의 실무적 측면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는 바가 많았다. 동료들과 함께 기획을 협업하며 우리의 기획서를 실행으로 옮겼다. 당시 아직 많은 실무 경험이 없었던 우리들이었기에, 지금 회고하면 분업을 철저히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의 인턴 경험은 매우 짧게 느껴졌다. 그 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을 접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한다. 공연예술 시장을 바라보는 나



의 시야가 넓어짐을 느꼈다. 다만, 많은 것을 느끼기에 그 시간이 매우 짧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에서의 7일

세미나 이후로 영국 문화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 영국과 영국의 문화에 대해 미리 책으로 알고자 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긴 했으나 막상 지금 생각하면 직접 가는 것에 비할 바 있을까 싶다. 사전조사를 통해, 런던광역시의회의 의미 있는 움직임의 찰나를 포착했다. 그들은 작고 강한 정부가 주도하는 대처리즘이라는 큰 흐름 아래에서 지방 분권적 문화 운동을 펼쳐 문화예술 산업의 근간을 닦았던 시금석이다. 이는 후의 블레어 정부에 의해 '창조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국정 운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근간에는 영국이 있다. 국내에서 '창조 경제' 정책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에서의 7일은 그들의 '창조 산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





장장 14시간에 걸친 여정으로 도착한, 런던 미술섹스 하운스 지역 히드로 국제공항의 모습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세계 4위권의 국제공항이며, 연간 탑승객 규모가 6천만 명을 웃돈다고 하더라. 다음 여정을 위해 런던 중심을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가이드님 몰래 잠시 설짐을 치르려고 했으나 그런 생각은 이내 없어지고 말았다.

런던 시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서울과는 한 눈에도 다른 모습이었다. 책 보기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하며, 도로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그대로를 고수했다. 유럽의 시가지 중 일부는 각자의 계획 아래 전통적인 건축을 지켜내고 있다. 런던 시가지도 그들 중 하나이다. 그곳에는 친구가 공존하고 있었다. 서울도, 내가 살고 있는 대구 역시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서구화가 되면서 우리 것의 많은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한 흐름의 원천인 서구는, 반면에 전통이 대부분 살아남았다. 런던 시가지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시가지의 모습과 그 곳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여유가 보인다. 문화의 힘일 것이다. 그들이 밝아온 역사는 내가 학창 시절 주야장천 외웠던 세계사 과목 일부의 원본

이며, 그 역사는 고스란히 도심 곳곳에 남아있었다. 위치적으로도 가까웠던, 17세기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과 현재 코벤트 가든의 웨스트우드느 별개의 산물이 아니었다. 예술은 그들 나름의 자생력을 가지고서 런던과 공존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영국인들의 타지 사람들을 맞이하는 친절함 뒤에 그들 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수 세기 간 쌓아올린 견고한 문화가 소위 현재 그들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단상이 들었다.

많은 장소를 다녔다. 테이트 모던, 코벤트 가든, 사우스뱅크, 대영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등등... 이름만으로도 유수의 장소들이다. 느끼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남는 건 사 진뿐이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댔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내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따금 후회가 든다.

사실 같이 못 가는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두고서 나는 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 대학 생활에 딱히 이렇다 할 추억을 못 남긴 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점이 한 몫한 것 같다. 낯선 곳엘 가면 어딘가 모르게 시름시름 앓는 경향이 있다. 흑자들이 공기와 물 탓일 수 있다며 상비약이며, 이것저것 챙기곤했었다. 예상 외로 별 탈 없이 잘 다녀온 듯하다.

마치며

이번 과정을 마치며 공부에 대한 초석을 마련한 듯싶다. 정진함과 동시에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아갈 길이 멀다. 세상은 넓고 문화와 예술은 많다. 그릇이 작아 문화예술을 통해 대구를 바꾸겠다는 등의 원대한 포부는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작은 곳에서



부터 조금씩 일이든 공부든 배워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명확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이 시작이란 마음으로 올해를 이 과정과 함께 마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겠다. DaeMun



대구문화재단 메세나 운동

이충희

대구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Mecenat
news

메세나Mecenat는 기업의 사회적 이윤을 문화예술 공헌 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것로 이를 통해 문화마케팅에 대한 홍보효과와 문화경영으로 인한 직원들의 문화복지 향상 등 문화적 부가가치와 창조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창의적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최근,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공헌의 파급효과〉



사회복지

기초적인 의·식·주 지원
교육, 치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문화공헌

1차적 지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공연, 예술교육, 예술체험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정신적 건강Mental care,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멘탈 인프라Mental Infra 구축

국민 전체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기업 증가 및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이러한 메세나 활동의 지원방식은 다양한 양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메세나 활동의 개념은 재원의 직접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기부금 지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메세나 지원방식의 분류〉

지원방식	주요내용
작품구입	미술품/음악작품/출판물 등의 직접 구매를 통한 지원
행사협찬	공연/전시/축제 등의 지원 참여
자원출연	기부/협찬/후원/장학 등의 직접 자원의 투입
프로그램운영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공공프로젝트 후원 및 개최	국가행사나 공공 행사의 참여
행사 직접기획	공연/전시/경연대회의 직접 기획과 마케팅
재단설립	문화예술관련 재단 설립
공익광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성 광고의 송출
예술가 채용	프로젝트나 조직내 예술가 일시, 상시 채용

문화공헌에 대한 용어표현 또한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어왔던 패트론(Patron)과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세나(Mecenas)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중세 르네상스 문예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메디치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후원자가문으로 대표적 패트론이다. 지원의 방식은 크게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도 기업의 기부금 지원은 문화마케팅 전략으로서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는 마케팅전략에 해당된다.

〈직접지원의 유형〉

용어	정의
Sponsorship ^{협찬}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전제로 지원
Support ^{후원}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Mecenas ^{메세나}	기업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유럽의 귀족의 후원에서 유래
Patron ^{후견}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Donation ^{기부}	현금 또는 현물의 지원(약기/교보재 등)
Charity ^{자선}	소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또는 행사 개최
Grant ^{장려}	장학금이나 연구, 연수 등의 비용 지원
Subsidy ^{보조}	어느 단체나 기관의 사업 또는 경상비에 지속적인 지원
Endowment ^{출연}	기금이나 적립금
Funding ^{조성}	일정 자원의 조성이나 투자금의 유치
Competition ^{경연}	각종 콩쿠르나 오디션 경연대회
Naming ^{주최}	이름을 지은 시설이나 행사의 지원

간접지원의 대표적 방식의 하나인 재능기부는 예술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적 서비스나 예술활동을 공헌하는 것으로 현재 보편적인 기부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간접지원의 유형〉

용어	정의
Contribution 재능기부	전문적 서비스나 예술활동의 활용
Advertisement 광고	각종 공익광고나 문화예술행사의 Spot 광고
Campaign 캠페인	공공 이벤트나 캠페인의 활용
Marketing 문화마케팅	대형 문화행사나 공공 프로젝트 수행
HRD 임직원교육	임직원 교육연수에 활용
기부채납	비영리적 문화공간 조성후 지원이나 기부채납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동기부여 및 지원계기, 주요 의 사결정 요인으로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시^{48.8%},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영역 개척^{31.3%},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16.3%}로 조사되어,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한 지원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계기 분석, 출처 : 2013 Arts Giving Index〉



또한,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경영진의 인식부족과 거부감, 효과나 성과측정의 어려움, 파급효과의 제한과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의 경우 문화공헌 및 메세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그간 대구문화재단은 문화공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13년에는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록으로 공식적인 모금, 홍보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장애요인〉

-
- 경영진의 인식부족이나 거부감
-
- 효과나 성과의 객관적 정량적 입증의 어려움
-
- 파급효과의 제한과 미미함
-
- 업종의 특성상 필요성 못 느낌
-
-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시장의 위기
-
-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재원조성의 어려움
-
- 조직내외 관계자간의 만족도 편차
-
- 지나친 의존도나 향후 지속을 요구하는 것 우려

이와 같은 문화공헌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바람직한 추진방안 설정과 지역현실을 감안한 성과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인프라가 빈약한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수요발굴의 한계점이 있으며 더욱이 인식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일 것이다.

〈메세나사업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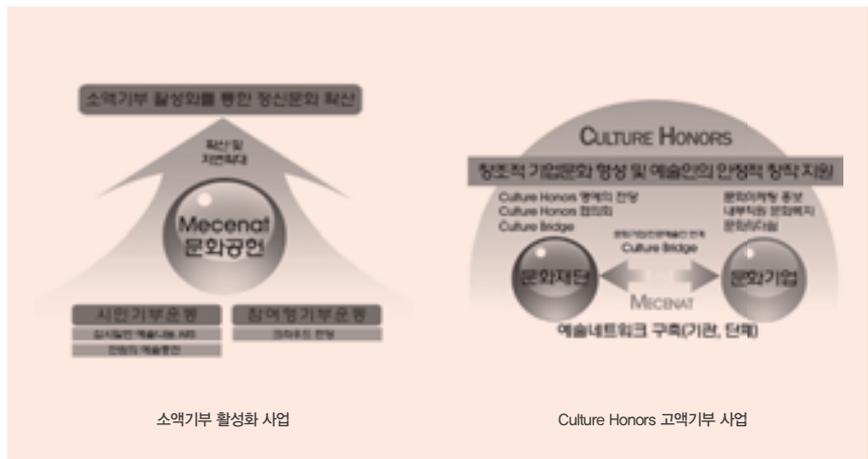
구분	추진현황
'12년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2009. 12월, 기획재정부} '10기업 1문화도시운동' 추진 '문화브랜드/기업' 매칭 : 대구은행에서 '09년, '10년, '11년, '12년 각각 1억원씩 기부 시민기부운동, 기업메세나운동, 재능기부운동으로 세분화 추진 기부자를 위한 예우프로그램 운영 기부 황금손 위촉, 문화나눔상 시상
	전문 예술법인 단체 지정 ^{2013. 4월, 대구시} 'Culture Society' 명예의 벽 추진 계획 수립 구축예정지 확보 중 문화 CEO 아카데미 추진 계획 수립 기업 CEO 예술대학원 과정 '13년 메세나 자문위원회 위촉 및 구성 소액문화기부 AR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업문화마케팅 세미나 및 콜로키움 개최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행사 기획 및 추진

Mecenat news

특히, 십시일반 예술나눔 ARS 시스템의 구축으로 소액기부를 통한 문화공헌 확산 정신운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고, 범 지역적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지난 12월 12일 '문화예술 나눔의 날'을 통해 기부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상호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2013 메세나상을 신규로 제정하고, 예술나눔부문, 문화공헌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추천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3년간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격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가진바 있다. 앞으로 추진사업을 소액기부 활성화 사업과 Culture Society 고액기부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통해 지속적 홍보·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공헌 추진방안〉



2012년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간 모금액은 4,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 공동모금회의 목표액은 3,110억으로 현재 8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개인이나 기업의 복지재원은 대다수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분야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46.6%, 교육·학술연구분야에 9.4%, 문화·체육분야에 4.5%, 기타 38.5%로 문화예술단체의 기부는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AFTA(Americans for the arts)는 문화예술을 후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 예술은 인간성의 근본**
창조성, 선함, 아름다움을 키워주고 인종, 종교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표현의 근본
-
- 예술이 주는 학교성적 향상**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능(SAT)성적이 타학생 대비 평균 100점이상 높음
-
- 예술은 산업**
매년 1,000억달러의 경제유발 효과, 570만개 일자리 창출, 300억달러의 세수효과
-
- 예술이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객 1인당 \$27.79의 부대비용 지출
-
- 예술은 관광의 초석**
예술을 보러온 관광객은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한다.
-
- 예술이 기여하는 수출증대**
예술로 파생된 산업 - 410억 달러의 흑자 창출
-
- 예술은 21세기형 인력 제공**
창의성은 기업 CEO들이 원하는 5가지 채용고려사항 중 하나

- 예술이 주는 치료효과**
미국 내 50%의 의료기관이 예술프로젝트를 제공
-
- 예술이 기여하는 커뮤니티 결속**
관객 예술활동에 투자할수록 사회적결속, 아동복지, 빈곤층 감소의 효과발생
-
- 예술은 창조산업의 엔진**
미국 내 904,581개의 예술비즈니스가 존재

문화예술의 역사가 깊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는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문화공헌에 대한 가치인식과 차별화방안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의 문화공헌과 메세나사업의 추진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확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시민들의 범 지역적 컨센서스의 형성 등 아직도 많은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전국 재단 중 본격적인 문화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도 아직 서울, 경기, 대구에 한정되어 있다. 문화공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점진적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이를 이끌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혜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업의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문화공헌 및 메세나사업의 추진방안들이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있는 즈음, 전 국민의 30.4%가 예술행사의 관람경험이 없다는 통계는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대의 씁쓸한 교훈일 것이다. DaeMun

대구문화재단

옛골목은 살아있다 3탄
'향촌동 소야곡'





DAEGU
ART
FACTORY
CHANG



DAEGU ART FACTORY CHANG